

도서관

통권 제 385 호

2011

ISSUE

고지도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차례

I 특별기획 고지도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고지도 소장 현황과 이해 | 6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서전문원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본 독도영유권 | 30

심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풍수적 재현으로서 고지도 | 44

권선정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의전담교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식민지 시기 지도 분석: 경성부 시가도(1911)를 중심으로 | 62

김종근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원

일상과 지리를 연결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지도자료실 | 87

민동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정보과 지도자료실 사서

2011년 도서관 기획대담: 김정호의 일생과 그의 저작 | 100

사회: 이기봉 고서전문원

패널: 김기혁 교수, 배우성 교수, 양윤정 박사, 이태호 교수

II 도서관 현장연구

일본의 사서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 116

조재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이용과 사서

III 2011년도 연구현황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144

국립중앙도서관 | 14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151

특별기획 “고지도”

- 01 _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고지도 소장 현황과 이해 · 006
- 02 _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본 독도영유권 · 030
- 03 _ 풍수적 재현으로서 고지도 · 044
- 04 _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식민지 시기 지도 분석 경성부: 시가도(1911)를 중심으로 · 062
- 05 _ 일상과 지리를 연결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지도자료실 · 087
- 06 _ 2011년 도서관 기획대담: 김정호의 일생과 그의 저작(2011. 11. 07.) · 100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고지도 소장 현황과 이해

이기봉 (Lee, Ki-Bong)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서전문원
bong2658@korea.kr

01

1. 한국 고지도의 이해를 위한 전제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았던, 쉽게 말해 때돈을 벌 수 있었던 향료(香料)의 생산지인 인도를 향한 대항해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492년 대서양을 횡단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1451-1506) 함대의 아메리카 도착, 1498년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을 횡단한 바스코 다가마(1469-1524) 함대의 인도 도착, 1522년 페르디난드 마젤란(1480-1521) 함대에 의한 세계 일주의 성공으로 결실을 맺는다. 유럽은 이 여세를 몰아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면서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 꽃을 피웠고, 근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유럽에 의한 대항해의 시작은 새로운 지역에 대한 지리 지식의 확장임과 동시에 정확한 지도 제작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가도 가도 섬 하나 보기 어려운 대서양·태평양·인도양과 같은 대양항해(大洋航海)에서는 땅길처럼 산·강·도시·역원 등등의 지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배가 망망대해의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맞추는 것이 생사(生死)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 때문에 경위도 측정에 의한 세계 지도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정확한 지도의 제작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근대식 지도의 시작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땅길 위주의 전통문명 국가에서는 산 넘고 물 건너 구불구불 실제로 가는 거리, 그중에서도 실제로 걸리는 시간거리를 주로 필요로 하였다. 경위도 측정에 의한 정확한 위치 파악은 단지 시간의 측정을 통한 정확한 달력의 제작에만 필요했지 일정한 지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았다. 조선의 고지도를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상식이 바로 조선이 19세기 말의

개항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대양항해를 시도한 적이 없는 전통문명 국가였고 그래서 근대적 측량지도를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다.

근대를 늦게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개항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 식민지를 경험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문명의 흐름에 100-200년 정도 늦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위치에 올라 있고, 근대를 처음으로 열었거나 개항기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나라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제 근대를 늦게 시작했다는 점만 솔직하게 인정하면 많은 역사가 새롭게 보일 수 있고, 전통문명 국가였던 조선에서 제작된 고지도의 역사 역시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조선의 고지도를 이해하기 위해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상식은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도의 제작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강조하고 싶은 정보를 다른 정보보다 눈에 띄게 표현하는 그림식 지도가 넘쳐나고 있고, 아주 자세한 5천:1의 지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할 때 가장 많이 참조하는 지도는 10만:1 도로지도다. 또한 등산지도에는 지도 위의 평면 거리보다 실제로 가는 거리, 그중에서도 실제로 걸리는 거리가 적혀 있으며, 지하철이나 버스의 노선도는 방향과 거리의 정확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도표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에 다양한 지도가 존재하는 것은 지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고, 어떤 형식의 지도든 구체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 역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시대에도 지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지도가 공존하였다. 따라서 근대식 측량지도 때문에 나타난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에 대한 강박관념만 버리면 조선에서 제작된 다양한 지도의 역사를 좀 더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1년 현재 134종의 한국 고지도가 소장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중요한 한국 고지도 소장처 중 한 곳이다. 본 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고지도 소장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자와 일반 이용자들의 고지도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미리 알리고자 한다.

본 글에서 사용하는 ‘한국 고지도’라는 용어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1910년 이전의 지도 둘째, 일본과 중국에서 제작되었지만 그 대상이 우리나라인 지도 셋째, 외국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작 지도의 원본을 영인한 지도를 가리킨다. 박물관 계통의 고지도 소장 기관에서는 문화재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인본을 소장 고지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세 번째의 지도를 한국 고지도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고지도의 목록과 개별 자료의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기보다는 조선의 지도 제작사에 입각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지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한다. 서지학적 분류가 한국 고지도의 이해와 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서(古書)와 현격하게 다른 고지도의 자료적 특징 때문에 일반적인 분류 체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꽤 많다. 이를 고려하여 본 글에서는 서지학적 분류 체계보다는 조선의 지도 제작사의 관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고지도 소장 현황을 소개하여 이용자의 고지도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리고 개별 지도의 설명보다는 최초의 원본이 제작된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동일 계통의 지도가 어떻게 소장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지면의 제약상 본 글에서 언급한 고지도의 이미지를 수록하지 않아 읽는데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계통을 정리해 놓은 표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에서 원본의 이미지 제공 여부를 표시해 놓았으니 원하는 지도를 검색하여 이미지를 찾아보면서 읽으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2. 조선전기 지도 계통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의 ‘조선왕조실록’에서 ‘지도(地圖)·여도(輿圖)·여지도(輿地圖)’ 등 지도와 관련된 용어로 검색해 보면 조선후기보다 조선전기에 훨씬 많은 양의 기사가 나온다. 이는 제작된 지도의 총량이 조선후기보다 조선전기에 더 많았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관찬지도(官撰地圖)가 많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작된 관찬지도는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도 흘러나가 모사(模寫)되거나 목판으로 변형·제작되어 많이 이용되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까지도 계속 모사·이용되었다. 다만 조선전기에 제작된 지도 중 일부 계통의 모사본 또는 목판본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이회의 ‘팔도지도’(1402)와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1463) 계통

한반도의 이미지를 그린 지도의 모습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것은 1402년(태종 2)에 완성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¹⁾의 후대 모사본 4

(1) 1장짜리 지도의 경우 〈〉표시로, 지도책이나 지도첩의 경우 《》표시로 통일하였다.

종으로 모두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 이 지도에서 사용된 조선 부분은 같은 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회(李薈, 생몰년 미상)의 ‘팔도지도(八道地圖)’⁽²⁾를 저본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지도 계통은 보통 소형의 낱장 지도로 모사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이 계통으로 소형 목판본의 조선전도인 <동국지도(東國地圖)>(古朝61-63)가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여지도(輿地圖)》(한古朝61-3) 6책과 《대한지도(大韓地圖)》 6책 등 최초본이 1720년대 안팎에 편찬된 그림식 고을지도책 계통 속에 소형 조선전도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압록강-두만강의 유로가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그려져 있다. 이회의 ‘팔도지도’ 이후 국가의 전력을 기울여 제작한 조선에 관한 지도는 세조의 명을 받아 1463년(세조)에 정척(鄭陟, 1390-1475)·양성지(梁誠之, 1415-1482)가 완성한 ‘동국지도(東國地圖)’ 계통이다. 현재 전해지는 이 지도 계통의 모사본 중 가장 큰 것은 남북 약 1.5m 크기의 중형으로서 이회의 ‘팔도지도’ 계통에 비해 섬의 정보를 비롯하여 내용이 훨씬 자세해진다. 이는 세종 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1432)나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 등의 지리지 편찬 과정에서 확보된 새로운 위치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지도를 제작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세종 때 개척된 압록강-두만강 유역을 비롯하여 북부 지방의 모습이 실제와 비교하여 상당히 부정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1 이회의 ‘팔도지도’와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 계통 일본 모사본⁽³⁾

번호	이름	청구기호	제작연도	판본	장수	지도 크기	이미지
1	東國地圖	古朝61-63	1700년대	목판	1	52.0×27.5	○
2	朝鮮國細見全圖	古朝61-66	1874	인쇄	1	98.2×47.2	×
3	朝鮮國細見全圖	古朝61-71	1878	인쇄	1	100.0×71.0	○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이후부터 1600년대까지 새로운 거리나 위치 정보를 확보·활용하여 조선의 전도나 도별도에서 획기적인 지도의 제작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전해지는 모사본 중에도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를 뛰어넘으면서 1600년대 이전에 제작되었음이 확인된 정확한 지도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나 조사 결과에 입각해 볼 때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1600년대까지 표준 지도의 역할을 하면서 많이 모사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700년대 이후 훨씬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가 제작되어 유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통의 지도는 1800년대 말까지

(2) 이회가 그렸다는 ‘팔도지도(八道地圖)’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조선의 팔도를 그린 지도’라는 일반명사로 사용되었으며, 앞으로 ‘로’ 처리한 지도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로서 사용된 경우이다.

(3) 제작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도에 수록된 지명 변화의 상한선을 적어 놓았으며,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에서 서비스되는 원본 이미지의 제공 유무를 의미한다.

도 모사되어 사용되던 것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많이 전해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조선에서 제작되거나 모사된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계통이 소장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에서 1874년에 제작된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고조(古朝)61-66)와 1878년에 제작된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고조(古朝)61-66)는 울릉도와 제주도 등 일부의 정보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계통을 모사한 것이다.

표-2 1785년 일본의 하야시시헤이 제작 조선전도 계통

번호	이름	청구기호	제작연도	판본	책수 장수	지도 크기	이미지	참고사항
1	朝鮮八道之圖	古朝61-61	미상	필사	1장	78.7×53.4	○	
2	朝鮮古圖	古朝61-64	미상	필사	1장	73.0×51.5	○	
3	朝鮮國全圖	古朝61-70	1894	동판	1책	50.2×36.5	○	
4	朝鮮全圖	古朝61-72	1894	인쇄	4장	128.6×95.2	×	
5	朝鮮世表并全圖	古朝61-76	1806	인쇄	2장	25.4×16.9	○	
6	朝鮮之圖	古朝61-88	미상	필사	1장	71.0×48.5	○	
7	總會圖	古朝61-89	미상	필사	1장	77.0×53.2	×	동북아지도

이 이전에 일본에서 유행한 조선전도의 모습은 주로 1785년에 하야시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조선전도의 모사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계통의 조선전도는 표 2의 1번에서 6번까지로 6종이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도는 7번 1종이 있다.⁽⁴⁾ 조선에서 제작한 어느 계통을 모본으로 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압록강-두만강 유로나 해안선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조선전기 계통, 그중에서도 이희의 ‘팔도지도’ 계통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에서는 이미 1740년대에 정상기에 의해 상당히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가 제작되어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야시시헤이류의 부정확한 지도가 일본에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지도가 일본으로 거의 유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 성공한 1867년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시기에도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가 모사되어 제작·사용되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에서 조선의 지도 제작에 정상기의 지도가 참고 되는 것은 188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부터이다.

(4) 하야시시헤이가 1785년에 제작하여 1786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삼국통람도설: 병급부도(三國通覽圖說: 并及附圖)』(古6-60-19)는 일본 지도로 분류되어 있어 한국 고지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의 동람도 계통

표-3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

번호	이름	청구기호	상한 연도	판본	지도 장수	책 크기	이미지	참고사항
1	地圖	古朝61-4	1603-	필사	19	31.0×21.3	○	중국역사지도(10) +전도+8도, 파도무늬
2	天下之圖	古朝61-5	1789-	필사	13	33.5×20.0	○	
3	朝鮮地圖	古朝61-6	1800-	필사	8	30.1×18.7	○	8도
4	輿地圖	古朝61-8	1800-	필사	12	37.4×30.0	○	천하도 결본
5	八道分道	古朝61-10	1600-	목판	8	35.3×22.0	○	8도, 파도무늬
6	輿地攷覽圖譜	古朝61-18	1719-	목판	13	23.0×10.5	○	
7	八道地圖	古朝61-20	1640-	필사	8	13.7×12.0	○	8도, 파도무늬
8	普率章地圖	古朝61-37	1683-	필사	13	18.8×10.4	○	
9	朝鮮地圖	古朝61-78	1530-	필사	8	28.3×17.0	○	8도, 파도무늬
10	[朝鮮] 地圖	古朝61-85	1841-	목판	8	26.6×14.5	○	8도
11	天下圖	古朝61-86	1800-	필사	13	28.8×17.0	○	
12	東國輿地圖	古2107-363	1849	목판	13	29.7×18.8	×	
13	天下地輿	古262-5	1683-	목판	8	20.0×33.6	○	8도
14	朝鮮地圖及 日本琉球, 中原	古2702-10	1841-	필사	12	34.9×30.0	○	천하도 결본
15	朝鮮八道圖	古2702-37	1789-	영인	13	29.2×41.4	×	天理圖書館(목판)
16	天下摠圖	古2702-38	1789-	필사	11	28.0×17.0	○	천하도 · 조선전도 결본
17	地圖帖	古2702-39	1789-	필사	10	34.0×21.6	○	천하도+중국+8도
18	東國八道大總圖	古2702-40	1800-	목판	13	32.0×38.7	×	
19	東國輿地圖	古2702-41	1800-	목판	13	30.8×18.2	×	도별 통계 있음
20	東國輿地圖	고2702-44	1776-	목판	13	40.2×33.2	×	
21	東國八道大總圖	古2702-45	1800-	목판	12	30.5×18.9	×	천하도 결본
22	八道地圖	古2702-46	1651-	필사	13	31.3×18.8	×	
23	輿地圖	우촌古2802-2	1795-	필사	14	33.1×20.8	○	도성도 1장 추가

1481년(성종 12)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50권이 완성되며, 이후 1486년(성종 17) · 1499년(연산군 5) · 1530년(중종 25) 등 3번에 걸친 수정과 증보를 거쳐 최종본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55권이 완성된다. 이어 바로 다음 해인 1531년(중종 26)에 문자는 활자로, 지도는 목판으로 간행되어 국가 기관과 지방 관아에 배포되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과정에서 많이 유실되어 1611년(광해군 4)에 문자와 지도 모두 목판으로 제작하여 중간한 후 역시 국가 기관과 지방 관아에 배포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민간으로도 흘러나가 1600년대에 이르면 지식인 사이에서 가장 표준적인 지리 지식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여기에는 '동람도(東覽圖)'란 판심이 새겨진 조선전도 1장과 도별도 8장이 수록되어 있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유행과 함께 지식인이 가장 쉽

게 접하는 지도가 되었다. 여기에 크기가 작아 제작하기 쉽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 지도만 따로 분리된 책의 형태로 만들어져 유통되었다. 이런 계통을 학계에서는 조선전도와 도별도 윤곽의 기본 형태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東覽圖’와 동일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이라고 부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는 조선 전체, 도별, 고을별 지지 정보를 이미지로 보충하는 부록의 성격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내용은 고을의 대략적인 위치, 중사(中祀)·소사(小祀)라는 국가의 공식 제사처로 지정된 산·하천·바다 정보 위주로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으로 분리되면서 새로운 정보가 첨가된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많이 사용된 고을의 옛 이름, 서울에서 각 고을까지 걸리는 시간거리, 고을에 파견된 지방관의 등급, 도별 군사 편제와 관련하여 도를 2개로 나눈 좌우(左右)·남북(南北)·동서(東西)의 고을 소속 여부, 군사기지인 진보(鎭堡)와 산성, 중앙과 지방의 정보 전달 역할을 맡고 있는 찰방역, 기타 도별 전담량과 호구 수 등의 정보가 첨가된다. 이들 내용은 모두 통치·군사 관련 정보로서 중앙집권국가이자 과거제 등이 발달한 관료주의 국가인 조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제작되어 사용된 지도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계통인 만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고지도 총 134종 중 무려 17.2%에 해당하는 23종이 동람도 계통 지도이다. (표 3 참조) 이 중 목판본이 9종이며, 일본의 천리도서관(天理圖書館)에서 영인해 온 《조선팔도도(朝鮮八道圖)》(古2702-37)도 원본은 목판본이다. 또한 목판본의 종류 역시 6종 이상으로 조사되어 조선시대 가장 많이 유행했던 지도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의 가장 초창기 형식의 특징은 첫째, 도별도 8장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둘째, 파도무늬가 들어가 있으며 셋째, 군사기지인 진보(鎭堡)와 서울-지방 사이의 정보 전달 역할을 맡고 있는 찰방역(察訪驛) 등이 지도 위가 아니라 여백 주기에 수록되어 있다. 지도 위에 들어가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기호가 세분되어 있지 않으며, 고을의 사방 경계와 서울까지의 거리가 고을마다 기록된 지리계수(地理界數)의 통계가 지도 뒷면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후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은 변화를 거듭하여 동람도를 기초로 그린 8도+조선전도, 상상과 실제의 모습을 결합하여 그린 독특한 세계지도인 원형천하도, 중국도+일본국도+유구국도를 합해 총 13장의 지도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여기에 제작자의 필요에 따라 간단한 역사, 전체적인 지형, 중요 통계 등의 지지(地誌)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목판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목판본을 기초로 필사 모사본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지도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추가되는 지지의 양이나 종류가 더 다양해진다.

2.3 세계지도

조선전기에 제작된 가장 유명한 세계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로서 1402년(태종 2)에 김사형(金士衡, 1332-1407)·이무(李茂, ?-1409)·이회 등이 중국에서 제작된 이택민(李澤民)의 〈성교광피도(聲教廣被圖)〉와 청준(淸濬)의 〈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추가하여 새로 편집한 지도이다. 인도·아라비아·아프리카·유럽까지 그려져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여 동서교류에 신기원을 이룩한 원나라 때의 지도학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 후대의 모사본 4종이 전해지고 있다. 1500년대에 들어서면 인도·아라비아·아프리카·유럽이 사라지면서 명나라 중심의 천하관이 반영된 세계지도가 제작되는데, 인촌기념관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가 대표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조선전기의 세계지도 계통은 소장되어 있지 않다.

3. 1600년-1710년대의 지도 계통

조선후기의 시작으로 보는 1600년부터 1710년대를 하나의 시기로 구분한 이유는 1720년대부터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활발한 지도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친 지도들이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도 많은 지도가 제작되었지만 후대의 지도 제작이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1600년대 말부터 활발하게 제작된 군사지도 계통은 후대에 꽤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계통만 자세히 설명하고, 나머지 지도에 대해서는 개별 지도⁵⁾의 형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진행한다.

숙종(재위: 1674-1720) 때부터 강화된 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은 만주를 포함한 중국 북부 지역과 조선의 북부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여 그린 군사지도의 제작을 활발하게 만든다. 이 계통으로 가장 잘 알려진 지도가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 청나라에 갔다가 구해온 〈요계관방도(遼薊關防圖)〉와 〈산동해방지도(山東海防地圖)〉에 조선의 북부 지역의 지도를 합해 1706년(숙종 32)에 그린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이다. 현재 원본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데, 1712년(숙종 38) 청과의 국경 조정과정에서 세워진

(5) 군사지도를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방지도(關防地圖)란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관방’이란 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단점이 있어 본 글에서는 동일한 뜻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군사지도로 바꾸어 설명한다.

백두산정계비 사건과 함께 만주와 조선의 북부 지역을 그린 군사지도의 제작을 활발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표-4 1700년대 전반기의 군사지도 계통

구분	이름	청구기호	추정 시기	판본	장수	지도 크기	이미지	참고사항
육지	寧古塔圖	古2702-5	미상	필사	1장	89.3×104.6	○	
	西北疆界圖	古朝61-19	1712-	필사	1장	117.7×79.5	×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古朝61-77	1712-	필사	1장	160.0×191.0	○	보물 제1537-1호
바다	嶺南湖南沿海形便圖	古朝61-29	미상	필사	1장	59.4×800.0	○	경상도-전라도 19절 40면
	固城沿海圖	古朝61-56	미상	필사	1장	97.7×117.5	○	김해-남해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그린 군사지도로 보물 제1537-1호인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古朝61-77), 〈서북강계도(西北疆界圖)〉(古朝61-20), 〈영고탑도(寧古塔圖)〉(古2702-5) 3종이 소장되어 있다. 최초 원본의 정확한 제작 시기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가 세워진 1712년 이후로부터 멀지 않은 1700년대 전반기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지도는 1700년대 이후 지도에서 다루어야 할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다른 지도책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지도(輿地圖)》(한古朝61-3) 6책과 《대한지도(大韓地圖)》 6책 등 최초본이 1720년대에 편찬된 그림식 고을지도책 계통의 1책 앞부분에 ‘요계관방지도’의 내용이 상당한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한 군사지도⁶⁾도 제작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이런 계통으로 《영남호남연해형편도(嶺南湖南沿海形便圖)》(古朝61-29)와 《고성연해도(固城沿海圖)》(古朝61-58)가 소장되어 있다. 바다에 대한 군사지도에서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은 별로 고려하지 않으며, 바닷길과 중요한 군사기지나 지형 등을 강조해서 그린다. 《영남호남연해형편도》의 경우 19절 40면의 병풍식으로 되어 있는 가로 8m의 초대형 지도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해안에 있는 모든 수군기지와 해로가 담겨있다.

이 시기의 독특한 지도책으로 《지나조선고지도(支那朝鮮古地圖)》(古朝61-58)가 있는데, 최초 원본의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수록된 지명의 변화를 통해 볼 때 1700년보다 늦지는 않는다. 총 131장이나 되는 방대한 역사지도책으로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어 일본과 안남(베트남)이 일부 있고, 조선의 역사 부분도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상당한 분

(6) 학계에서는 이런 경우를 해방지도(海防地圖)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량을 차지한다. 이밖에 순수하게 중국의 역사 지지와 지도만 수록한 54장 분량의 《역대지리지장도(歷代地理指掌圖)》(古朝61-65), 중국의 역사지도와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의 조선전도와 도별도로 이루어진 《지도(地圖)》(古朝61-4)가 있다.

《지나조선고지도》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위치 정보 대다수를 이미지로 옮긴 대축척 지도가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잘못 수록된 내용도 그대로 이미지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축척 지도라 자세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리지는 못했다. 지리지의 정보만으로 지도를 제작할 때의 정확성 수준을 잘 보여주는 지도책이며, 1998년에 동일 계통의 지도책인 《동여비고(東輿備考)》가 영남대학교출판부에서 영인·간행되었다.

정상기의 지도 제작 이전에도 상당한 수준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지도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지도책이 《여지편람(輿地便覽)》(古朝61-30)과 《해동총도(海東總圖)》(古朝61-42)이다. 앞의 것은 도별지도 8장과 중국지도 1장으로, 뒤의 것은 전도 1장과 도별지도 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지도와 전도는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을 따르고 있지만 도별지도는 훨씬 자세하고 정확성 역시 상당히 개선되었다. 다만 정상기의 지도 계통에 비하면 아직도 정확성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5 1600~1700년대 전반에 제작된 기타 지도

번호	이름	청구기호	제작연도	판본	책수	지도 크기	이미지	참고사항
1	地圖	古朝61-4	1603-	필사	1책	26.5×17.5	○	중국+조선
2	天下地圖	古朝61-11	1683-	필사	1장	129.0×156.5	×	세계지도
3	輿地勝覽	古朝61-30	1712-	필사	1책	51.0×27.2	○	
4	海東總圖	古朝61-42	1719-	필사	1책	42.2×32.5	×	
5	支那朝鮮古地圖	古朝61-58	1626-	필사	1책	41.6×56.0	×	중국+일본+안남+조선
6	歷代地理指掌圖	古朝61-65	미상	필사	1책	55.0×44.5	○	중국
7	牧場地圖	古朝80-32	1678	필사	1첩	44.8×30.0	○	

이 시기의 세계지도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지도는 대형의 <천하지도(天下地圖)>(古朝61-11)가 있는데, 지도 위에는 ‘천하대총일람지도(天下大總一覽之圖)’라는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그려졌던 인도·아라비아·아프리카·유럽이 1500년대의 세계지도에서 사라지며 축소되는데, 1600년대에 오면 <천하지도>처럼 중국·조선·유구·일본·안남으로 더욱 축소된 세계지도가 제작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과정에서 황폐해진 목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 1678년에 제작한 <목장지도(牧場地圖)>(古朝80-32)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시기가 오래되었고, 현재 2종만 전해지는 희귀본이며, 색상과 그림의 수준이 높아 보물 제1595-1호

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마정(馬政)과 말의 종류 등을 이해하는데 가장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4. 1700년대 이후의 그림식 지도 계통

4.1 그림식 고을지도책 계통

정확한 지도 계통이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이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중요한 정보를 특별히 강조 또는 과장해서 표현할 수 없는 점, 정보가 밀집된 지역을 아주 작게 표시할 수밖에 없어 수록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는 점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가 바로 그림식 지도 계통⁽⁷⁾으로 풍수의 유행을 보여주는 산과 산줄기를 강조하고, 정보가 많은 고을의 중심지 등을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자세하게 그리는 공통점이 있다.

표-6 그림식 고을지도책 계통

번호	이름	청구기호	제작연도	판본	책수	책 크기	이미지	참고사항
1	輿地圖	古朝61-3	1737-	필사	6책	36.4×34.5	×	
2	各邑地圖	古朝61-14	1750-	필사	1책	29.2×19.0	○	1리 포함
3	大韓地圖	古朝61-27	1737-	필사	6책	24.3×17.5	×	
4	東國地圖	古朝61-40	미상	필사	1책	45.0×27.5	×	
5	北關地圖	古朝61-50	1750-	필사	1책	33.5×21.3	○	
6	咸鏡南北道都邑全圖	古朝61-81	1822-	필사	1책	35.5×36.5	○	
7	八道輿地圖	古2702-14	1737-	필사	5책	38.2×33.7	○	
8	朝鮮全羅道各邑地圖	古2702-35	미상	영인	1책	29.3×38.0	×	天理圖書館本(필사)

그림식 지도 계통은 조선시대 내내 많이 그려졌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1700년대 이후의 지도들이다. 그중에서도 조선후기의 정확한 지도 제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1720년대에 최초의 원본이 편찬된 그림식 고을지도책 계통이다. 주로 6책으로 묶인 이 지도책 계통에서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330개 안팎의 고을지도이기 때문에 그림식 고을지도책⁽⁸⁾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만주를 포함한 중국 북부 지역의 군사지도인 ‘요계관

(7) ‘그림식’을 학계에서는 보통 ‘회화식(繪畵式)’이라고 표현하는데, 본 글에서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식’으로 통일한다.

(8) ‘고을’을 학계에서는 주로 ‘군현(郡縣)’이라 표현하는데, 본 글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우리말을 우선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방도(遼薊關防圖)도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군사적으로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진보(鎭堡) 지도가 일부 들어가 있다. 전체의 분량에서 볼 때 아주 적지만 조선후기에 가장 유행한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의 원형천하도-중국도-일본도-유구국도, 그리고 조선전기 이희의 ‘팔도지도’ 계통의 조선전도, 1700년 이전에 꽤 정확해진 도별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1720년대의 그림식 고을지도책 계통에 수록된 지도의 종류는 당시 조선에서 필요로 했던 지리 정보의 대부분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의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도 흘러나가 상당히 많이 모사되어 사용되었다. 그 결과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내용 대부분이 거의 동일하면서 필사 수준이 다양한 지도책이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전해지고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완질본 4종을 소장하고 있어 이 계통의 최대 소장처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여지도(輿地圖)》(古朝61-4) 6책과 《대한지도(大韓地圖)》(古朝61-27) 6책의 완질본 2종과 1책 결본의 《팔도여지도(八道輿地圖)》(古2702-14) 5책 등 3종이나 소장되어 있다. 1720년대의 그림식 고을지도책 계통은 조선후기에 제작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그림식 지도 중 전국의 모든 고을이 수록되어 있으면서 국가의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흘러나가 유행한 거의 유일한 그림식 지도책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삼기에서 김정호까지 이어지는 정확한 지도의 제작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위치 정보 중의 하나로 활용된 자료였다.

1720년대의 그림식 고을지도책처럼 모든 고을이 수록되어 있지도 않고 많이 전해지지도 않지만 국가 기관과 민간의 지도 제작에 꽤 영향을 미친 그림식 고을지도책이 1750년경에 제작된 1리 눈금선 고을지도책 계통⁹⁾이다. 눈금선은 거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지만 비전문가들에 의해 제작되면서 정확한 지도의 성격보다는 그림식 지도의 성격이 더 강한 편이다. 아직 경기도·강원도·평안도의 것은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1리의 눈금선이 그려진 대형의 최초 원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최초의 원본에서 1리의 눈금선을 없애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지도의 크기도 획기적으로 줄여 책으로 만든 모사본이 몇몇 기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도 《각읍지도(各邑地圖)》(古朝61-14) 1책에 일부 담겨 있다. 이 지도책에는 경상도 71개 고을과 전라도 53개 고을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33개 고을의 지도가 1리 눈금선 고을지도책 계통이고, 나머지는 1720년대의 그림식 고을지도책 계통이다.

앞에서 언급한 2개의 그림식 지도책 계통과 내용적으로 다르면서 일부 지역의 그림식 고을 지도가 묶여 있는 지도책도 국립중앙도서관에 3종 소장되어 있다. 《동국지도(東國地圖)》

(9) ‘눈금선’을 학계에서는 주로 ‘방안(方眼)’이라고 부르며, 간혹 ‘경위선(經緯線)’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본 글에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눈금선’으로 통일한다. / ‘1리 눈금선 고을지도책’을 학계에서는 ‘비변사인 1리 방안지도’나 ‘비변사지도’라고 부르는데, 본 글에서는 사용처나 제작처보다는 지도책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리 눈금선 고을지도책’이라 부른다.

(古朝61-40)는 전라도의 16개 고을이 수록되어 있는 그림식 지도책인데, 정읍과 무주에 특이하게도 20리의 눈금선이 그어져 있다. 《북관지도(北關地圖)》(古朝61-50)는 함경도의 고을지도 24장, 함경도 전도 1장, 함경북도 지도 2장, 만주 지역인 오랏영고탐 지도 1장이 수록된 그림식 지도책이다. 《함경남북도도읍전도(咸鏡南北道都邑全圖)》(古朝61-81)는 고을지도 29장, ‘동람도식’ 계통의 함경도전도 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의 천리도서관본(天理圖書館本)을 영인해온 《조선전라도각읍지도(朝鮮全羅道各邑地圖)》(古2702-35)는 전라도 32개 고을이 수록된 그림식 지도책이다.

4.2 기타 그림식 지도

고을 규모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를 그려 낱장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 그림식 지도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확한 지도 제작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없어 결과론적 측면에서 볼 때 그림식 지도 계통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지도 중 낱장의 그림식 지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표 7처럼 총 28종이다.

조선에서 낱장의 그림식 지도로 가장 많이 제작된 것은 가장 수요가 많았던 서울의 지도인 ‘도성도(都城圖)’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751년(영조 27) 『어제수성운음(御製守城綸音)』에 수록하기 위해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도성을 지키는 세 군문의 구역을 중심으로 그려 목판으로 제작한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地圖)가 《한양도(漢陽圖)》(古61-43)란 이름으로, 1765년(영조 41)에 도성 주변의 기맥(氣脈)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의 벌채와 무덤의 조성을 금지시키는 범위를 그린 목판본 《사산금표도(四山禁標圖)》의 일제강점기 영인본이 소장되어 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이 그려진 낱장 지도는 청나라와의 대규모 전쟁 때 피난하여 장기전을 벌이기 위한 임시수도로 정해진 강화도와 남한산성 등의 지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강화도의 지도만 3장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에 1884년에 제작된 것은 목판본이다. 조선의 건국자인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함흥·전주의 지도, 지방도시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곳 중의 하나였던 평양의 지도 등이 많이 제작되었는데, 병풍의 형식으로 그림의 기능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평양의 지도만 2종 소장되어 있는데, 《기성도(箕城圖)》는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의 영인본이고 《소금릉도(小金陵圖)》는 화려한 병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의 경우도 낱장의 그림식 지도로 제작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꽤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평안도 최북단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던 강계 지도 2종, 철웅성이란 이름을 얻을 정도로 장기전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났던 평안도 영변의 지도 3종, 임진왜란의 과정에서 신설되어 현재의 통영시에 자리 잡은 삼도수군통제사영인 통영의 지도 2

중, 1719년 황해도도의 수영이 신설된 경기도 용진의 지도 1종,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후 두만강 상류와 백두산 부근의 자세한 모습을 그린 함경도 장파(長坡)의 지도 1종 등이 소장되어 있다.

표-7 기타 그림식 지도

번호	대상지역	이름	청구기호	제작연도	판본	책수	지도 크기	이미지
1	갑산[함경]	甲山地圖	古朝61-51	미상	필사	1장	74.8×69.0	○
2	강계[평안]	江界地理圖	古朝61-49	미상	필사	1책	108.4×79.1	○
3		江界地圖	古朝61-52	미상	필사	1장	141.5×113.5	○
4	강화[경기]	江華地圖	古2702-1	1884	목판	1장	117.0×89.0	○
5		江都地圖	古2702-13	미상	필사	1책	74.0×56.6	○
6		江華地圖	古2702-17	미상	필사	1책	119.0×76.5	○
7	금강산[강원]	金剛山四大寺刹全圖	古2702-15	1899	목판	1책	119.0×104.4	○
8	다수	安邊郡·延豊郡·慶興郡·瑞川郡地圖	古2702-11	미상	필사	4장	크기 다양	○
9	다수	永興府十三社之圖 [永興·富寧·加里浦鎭]	古2702-12	미상	필사	3장	크기 다양	×
10	다수	古地圖 [任實·淳昌]	古2702-2	1872-	필사	2장	크기 다양	○
11	다수	古地圖 [鬱陵島·淸州·義州·密陽]	古2702-8	미상	필사	4장	크기 다양	○
12	도성	漢陽圖 [都城三軍門分界地圖]	古朝61-43	1751	목판	1장	36.8×4.5	○
13		四山禁標圖 [원본: 1765]	古朝61-60	1910-	영인	1장	106.0×63.0	○
14	동래[경상]	東萊釜山古地圖	古朝61-41	미상	필사	1축	130.0×81.0	○
15	무산[함경]	北關長坡地圖	古朝61-59	1712-	필사	1책	106.0×109.5	○
16	선천[평안]	宣左圖形	古2702-3	미상	필사	1책	58.0×72.2	○
17	영변[평안]	鐵盆八地圖	古2702-19	미상	필사	1장	111.4×135.3	○
18		鐵盆城全圖	古2702-20	미상	필사	1장	78.8×119.2	×
19		寧邊輿圖	古朝61-23	미상	필사	1장	85.0×54.0	○
20	온성[함경]	穩城府地圖	古朝61-13	미상	필사	1장	117.3×60.6	○
21	웅진[황해]	瓮津本營行營地圖	古朝61-55	미상	필사	1장	65.0×90.0	○
22	정주[평안]	新安北圖	古朝61-68	미상	필사	1장	115.2×92.5	○
23	통영[경상]	統營邑內地圖	古朝61-53	미상	필사	1장	108.3×65.2	○
24		統營地圖	古朝61-57	미상	필사	1장	145.0×126.0	×
25	평양[평안]	小金陵圖	古朝61-24	미상	필사	1장	73.5×122.5	×
26		箕城圖 [원본: 일본동양문고]	古2702-34	미상	영인	1책	40.1×36.5	×
27	화도진[경기]	花島鎭圖	古朝61-79	1879-	필사	2장	123.8×110.9	○
28	회령[함경]	會寧地圖	古朝61-54	미상	필사	1장	64.5×65.0	○

5. 1700년대 이후의 정확한 조선지도 계통

5.1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

현대의 우리나라 지도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조선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린 첫 번째 지도는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東國地圖)’였다. 정상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720년대에 편찬된 그림식 고을지도책의 정보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아 1740년대에 ‘동국지도’를 완성하였다. 남북을 모두 이으면 약 2.5m에 이르는 대형 지도였는데, 1861년(철종 12)에 제작되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로 집대성되는 정확한 대축척 지도 제작의 출발점 역할을 하였다.

정상기는 단지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도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을 제외하면 조선후기에 가장 많이 모사되어 사용되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을 모두 이으면 실제로 이용되기에 너무 큰 약 2.5m나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을 조선의 광역행정단위의 숫자와 동일한 남북 1m 안팎의 8장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둘째, 이용자들이 지도 위의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는 백리척(百里尺)이란 축척을 표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형이 험하거나 굴곡진 길이 많은 곳에서는 백리척의 거리를 120~130리로 이해하라는 배려의 문구를 발문에 적어놓았다.

셋째, 모사하여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도별로 고을의 색을 달리하여 구별할 것, 땅길·바닷길·도경계선의 색을 달리하여 헛갈리지 않게 할 것, 감영과 일반고을의 구분 및 성의 유무 표시, 봉수·산성·역·진보의 기호 구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넷째, 모두 이어서 모사하여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를 배려하여 8장을 합해 그릴 때 조심해야 할 점을 미리 지적해 주었다.

이용에 대한 정상기의 이러한 배려는 170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 다음으로 가장 많이 모사되어 이용되게 만든 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1800년대에 들어서면 남북 약 2.5m의 정상기식 조선전도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남북 1m 안팎의 크기로 축소하여 목판으로 제작·간행한 지도가 유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목판의 종류가 세 가지나 되어 상당한 히트상품이었다고 할 수 있는 〈해좌전도(海左全圖)〉이며, 이외에도 목판본의 『도리도표(道里圖標)』 속에 포함된 조선전도와 낱장의 〈동여총도(東輿總圖)〉 등이 있다.

표-8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

번호	이름	청구기호	제작연도	판본	책수	지도 크기	이미지	참고사항
1	朝鮮八域圖	古朝61-7	1863-	필사	1책	243.0×138.7	×	전도
2	東國地圖	古朝61-12	1758-	필사	1책	75.0×60.5	○	분도
3	東輿總圖	古朝61-16	1843-	목판	1장	98.0×56.9	○	전도(축소본)
4	八道地圖	古朝61-17	1800-	필사	1책	105.4×65.0	○	분도, 도리표 있음
5	海左全圖	古朝61-22	1869-	필사	1장	157.2×95.8	○	목판본 해좌전도 필사
6	輿地圖	古朝61-25	1758- 1800-	필사	1책	62.0×102.5	○	분도 완질본, 전도+분도(결본)
7	東國八域圖	古朝61-26	1767-	필사	8책	74.0×60.0	○	분도
8	慶尙南北道地圖	古朝61-28	1767-	필사	6장	175.5×44.7	○	경상도 부분 6장
9	高句麗國圖	古朝61-32	미상	필사	1장	74.4×145.3	×	고구려 역사지도
10	海東輿地圖	古朝61-35	1800	필사	1책	98.7×57.0	×	전도+분도
11	海東全圖	古朝61-46	1800-	필사	1책	31.2×43.0	○	분도(9장)+한양전도 (김정호식)+일본전도
12	我東輿地圖	古朝61-48	1800-	필사	1책	98.5×55.5	○	전도+분도
13	鰐域地圖	古朝61-69	1877-	목판	1책	29.0×38.0	○	전도+분도, 도성도+한성부:김정호식
14	海左全圖	古朝61-74	1857-	목판	1장	100.7×58.0	○	전도
15	大東地圖	古朝61-9	1800-	필사	1책	88.0×68.0	○	전도+분도, 일본+중국+ 천하도: 동람도식
16	東國地圖	古2702-7	1684-	필사	1책	78.0×49.8	○	전도
17	八路地圖	古2702-9	1800-	필사	1책	크기 다양	×	분도+서북강계도
18	左海輿圖	古2702-16	1776	필사	1책	105.4×59.3	○	분도+전도
19	朝鮮全圖	古2702-25	1890-	영인	1책	50.0×37.7	×	전도+분도, 한글지명, 원본은 영국도서관
20	朝鮮地圖	古2702-26	1890-	영인	2책	51.7×29.8	×	전도+분도, 한글지명, 원본은 영국도서관
21	大韓全地圖	古2702-28	1897-	영인	1장	120.7×68.5	×	정상기식+측량, 원본은 영국도서관, 한자한글지명
22	江原道[地圖]	古2702-42	1776-	필사	1장	58.0×27.6	×	고2702-43과 한 세트임
23	平安道[地圖]	古2702-43	1776-	필사	1장	58.0×95.0	×	고2702-42와 한 세트임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이 1700년대 중반 이후 유행한 현상을 잘 보여 주기라도 하듯 표 8에 정리된 것처럼 전체 134종의 17.2%인 23종이나 소장되어 있다. 이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기가 원래 제작한 크기의 '동국지도' 분도(8장) 계통은 축소본 전도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2·4·6·7·10·12·15·16·17번 등 9종이나 된다.

둘째,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의 분도를 합해 제작한 전도(全圖)로 1번의 <조선팔역도(朝鮮

八域圖)》1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용하기 불편한 크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3~4종만 발견되고 있는 희귀본이다.

셋째,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이 유행하여 이용되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축소본 조선전도의 목판본으로 3번의 <동여총도(東輿總圖)>와 14번의 <해좌전도>가 소장되어 있다.

넷째, 1900년 안팎에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13·19·20·21번이며, 특히 뒤의 3개는 한자의 소리 그대로를 적은 한글이 적혀 있어 외국인 선교사들이 주로 이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고구려의 역사지도를 제작할 때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9번 지도, 1m 안팎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이용하기 더 편리한 소형으로 축소한 분도가 수록된 11번의 지도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5.2 신경준 제작 20리 눈금선의 대축척 지도 계통

정상기의 ‘동국지도’ 제작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켜 새로운 지도 제작자가 속속 등장한다. 정철조(鄭喆祚, 1730-1781)가 1769년경에 정상기의 지도를 기초로 하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720년대의 그림식 고을지도책 계통, 여기에 1750년경의 1리 눈금선 고을지도책 정보를 이용하여 2번에 걸쳐 대형 지도를 제작한다. 하지만 너무 자세하여 이용에 불편했기 때문에 많이 모사되어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현재 3~4종 정도만 발견되고 있다. 정철조의 동생인 정후조(鄭厚祚, 1758-1793)는 형의 지도를 기초로 고을의 경계선까지 그은 지도를 제작했는데, 역시 너무 자세하여 이용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현재 2종 정도만 발견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정철조와 정후조가 제작한 지도 계통이 소장되어 있지 않다.

1770년(영조 46) 영조의 명을 받은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은 정상기·정철조의 지도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과 민간에 소장된 지도와 지지 자료를 종합하여 전국 고을지도책, 도별지도첩, 전도 족자를 완성한다. 모든 고을의 지도에 4.1cm의 20리 눈금선을 그어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려 노력하였으며, 모든 고을의 지도를 이어놓으면 남북 약 6m에 가까운 초대형 지도가 된다. 현재 이 계통의 고을지도책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도서관, 장서각 등에 전해지고 있으며, 도별지도는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 8장 중 4장이, 경상도의 개인에게 1장이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이 계통의 후대 모사본으로 《팔도지도(八道地圖)》(古朝61-21) 8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색감의 질이 높지는 않지만 원본을 충실하게 모사한 완질본이다. 현재 이 계통의 완질본으로는 4종 정도만 조사되고 있어 희귀본이라 볼 수 있다. 《동국지도(東國地圖)》(승계古朝2702-22)는 경상도 71개 고을만 수록되어 있는 결본이지만 색감의 질이 높고 20

리 눈금선에 번호가 붙어 있는 등 최초본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표지에 ‘三’이라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어 완질본의 일부만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9 신경준의 20리 눈금선 지도 계통

번호	이름	청구기호	제작연대	판본	책수	책 크기	이미지
1	輿載撮要	古朝60-20	1895	필사	10책	37.2×24.8	×
2	八道地圖	古朝61-21	1822-	필사	8책	25.8×21.7	○
3	海東輿地圖	古2107-36	1800-	필사	3책	34.1×22.2	○
4	東國地圖	승계古2702-22	1770-	필사	1책	53.0×35.5	×

《여재촬요(輿載撮要)》(古朝60-20)는 오형묵(吳弘默, 1834-?)이 1894년(고종 31)에 저술한 세계와 조선에 관한 지리지인데, 그 안에 전도, 도별도, 도성도, 고을지도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전도와 도별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을, 도성도는 김정호의 지도 계통을 따랐지만 모든 고을지도는 신경준의 20리 눈금선 지도 계통을 눈금선만 없앤 채 모사해 넣었다. 신경준이 제작한 20리 눈금선의 고을지도책은 원래 지리지 속에 부도로서 삽입하려고 했던 것이 독립되어 묶여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전체를 동일한 축척으로 그리기 위해 모든 고을에 4.1cm의 동일한 눈금선 간격을 적용하고 한 면에는 한 고을을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도의 부피가 많아지고 큰 고을의 경우 접어서 넣는 불편함이 있었다. 둘째, 원래 지리지의 부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도에는 고을의 지지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776년에서 1787년 사이에 20리 눈금선의 간격을 고을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책의 부피를 줄이고, 고을의 각종 통계에 대한 지지 정보를 한 권으로 묶은 새로운 형식의 고을지도책이 간행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古2107-36) 3책이 바로 이 계통으로 김정호의 첫 번째 작품인 《청구도》의 제작에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용되었다. 최초의 원본은 아니지만 지도학사적 가치가 아주 높아 보물 제159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에 완질본이 아닌 결본이 각각 1부씩만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희귀본이다.

표-10 김정호의 연표

연도	활동 사항
1804(추정)	출생
1820~1833	추정 :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의 《조선도》 26책이나 초쿠바대학교도서관 소장 《동여도》 17첩 제작 『동여편고(東輿便攷)』 2책 편찬 시작
1834	《청구도(靑邱圖)》 2책 편찬 최한기의 부탁으로 《지구전후도(地球前後圖)》 판각
1834~1845	『동여편고』 2책 편찬 완료 『동여도지(東輿圖志)』 20책 편찬 서울지도인 목판본 《수선전도(首善全圖)》 간행 《청구도》 2책 1차 개정판 편찬
1846~1849	《청구도》 2책 2차 개정판 편찬 《청구도》 2책 3차 개정판 편찬 세계지도인 목판본 《여지전도(輿地全圖)》 제작
1850~1856	대영도서관 소장 『동여도지』 3책 편찬 최성화와 공동으로 『여도비지(輿圖備志)』 20책 편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필사본 《대동여지도》 14첩 편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대동여지도》 18첩 편찬
1856~1859	필사본 23첩 《동여도(東輿圖)》 편찬
1861 1861	목판본 22첩 《대동여지도》 간행 『동여도지』 20책 서문 완성
1861~1866(추정)	『대동지지(大東地志)』 15책의 편찬 시작과 일부 미완성 목판본 《대동여지도》 22첩 개정판 간행(1864) 목판본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간행

5.3 김정호의 지도 계통

평생을 지도의 제작과 지리지의 편찬에 매진했던 김정호(金正浩, 추정: 1804-1866)는 정상기로부터 시작된 정확한 지도 제작의 전통을 집대성하여 목판본 22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란 걸작을 만들어냈다. 22첩을 모두 이어놓으면 남북 약 6.6m의 초대형 대축척 지도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고 자세하며 정확한 지도를 어떻게 제작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판본 22첩의 《대동여지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그가 평생 동안 만들어낸 지도와 지리지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표 10은 현재까지 밝혀진 김정호의 활동 사항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인데, 최초로 만든 지도와 지리지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정판 내지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나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당시 이용되던 관찬·사찬의 대다수 지도와 지리지에 대한 수

집과 정리·분석,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꼼꼼한 비교와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그가 제작한 3차 개정판의 《청구도》까지 주요 지명·산줄기·물줄기·해안선 등의 정보는 신경준이 제작한 20리 눈금선 고을지도책의 새로운 개정판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동여지도》 3책 계통과 동일하다.

표-11 김정호의 지도 계통

번호	이름	청구기호	제작연도	판본	책수	크기	이미지
1	朝鮮圖 ⁽¹⁰⁾	古2702-33	1800-	영인	26책	21.8×16.8	×
2	恒星圖；地球圖 [地球前後圖]	古262-2	1834	목판	12장	38.5×19.7	○
3	首善全圖	古朝61-47	1840-	목판	1책	101.0×66.0	○
4	朝鮮地方 ⁽¹¹⁾	古2702-36	1843-1853	영인	14책	25.2×35.4	×
5	靑邱圖	古朝61-80	1846-1849	필사	2책	35.0×23.1	○
6	大東輿地圖	古朝61-1	1853-1856	필사	18첩	25.5×41.0	○
7	大東輿地全圖	古朝61-2	1861	목판	22첩	30.0×20.0	○
8	大東輿地圖 [제주도]	古朝61-90	1861	목판	1장	30.0×40.0	○
9	大東輿地全圖	古朝61-15	1861-1866	목판	1장	115.2×70.0	○
10	大東輿地圖 ⁽¹²⁾	古2702-27	1890-1910	영인	22장	48.4 x 44.2	×

앞으로도 김정호의 작품이 계속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표 10의 연표는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김정호의 작품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거의 밝혀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토 정보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 참조하며 볼 수 있는 지도와 지리지의 동시 편찬이었고, 나아가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구체적 측면에서 볼 때 그의 고민은 정확한 내용과 함께 항상 이용의 편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 그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에도 그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모사·이용되었다.

제작연대별로 정리한 표 11처럼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김정호의 위상에 걸맞게 그의 작품 또는 그 계통이 10종이나 소장되어 있다. 이중 6번의 필사본 18첩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국립중앙도서관에만 소장된 유일본으로 친필본일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청구도’ 계통에서 ‘대동여지도’ 계통으로 바뀔 때의 김정호 고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의 역할을 한다. 5번의 《청구도》는 ‘청구도’의 3차 개정판 계통으로 질적 수준이 아주 높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10) 원본은 일본의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에 있다.

(11) 원본은 일본의 천리도서관(天理圖書館)에 있다.

(12) 원본은 영국도서관에 있다.

보물 제1594-1호로 지정되어 있다. 4번의 《조선지방(朝鮮地方)》은 형식과 내용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필사본 14첩의 《대동여지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지명의 측면에서 볼 때 약간 앞선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자료다.

7번의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판본 22첩의 《대동여지도》인데, 소장자가 표지에 ‘대동여지전도’라고 필사하였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10번의 《대동여지도》는 영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본의 영인본인데, 목판본 22첩의 《대동여지도》를 필사한 것으로 수준은 아주 조악한 편이다. 알파벳 문자가 앞쪽에 표기되어 있어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구도》에는 있다가 목판본 22첩의 《대동여지도》에서 사라졌던 우산도와 주기가 첨가되어 있다.

5.4 기타

표-12 정확한 계통의 기타 지도

번호	이름	청구기호	제작시기	판본	책수	크기	이미지
1	寧邊府全圖 [평안북도]	古2702-18	1776-	필사	1장	69.8×75.4	○
2	西關總覽之圖 [평안도]	古2702-4	1703-	필사	1책	195.0×127.0	○
3	景福宮圖	古2702-6	1867-	필사	1장	81.2×54.0	○
4	大韓新地志附地圖 ⁽¹³⁾ [전도+13도]	古朝61-84	1907	석판	1책	39.2×25.0	○

정상기에서 시작되어 김정호로 집대성된 계통이 아니면서도 상당히 정확한 지도가 표 12의 1·2번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번의 이름은 ‘영변부전도’이지만 폐사군을 제외한 평안북도 전체를 그린 지도이고, 2번은 평안도 전체를 그린 지도이다. 1890년대부터는 근대식 측량에 의한 지도 제작의 성과가 조선의 지도에도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1907년에 간행된 4번의 《대한신지지부지도(大韓新地志附地圖)》는 현대의 지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이밖에 3번은 경복궁의 평면도인데, 산줄기를 통해 움직인다고 여겨진 지기(地氣)가 교태전까지 이어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13) 간도를 함경북도에 그렸다.

6. 1700년대 이후의 세계지도와 기타 지도

6.1 세계지도

조선에서는 1700년대 이후에도 세계지도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낱장으로 그려진 경우 대부분 중국-조선-일본-안남(베트남) 정도의 범위를 그린 것이 일반적인데,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이 계통이 소장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과 ‘1720년대 제작 그림식 고을지도책 계통’ 등에도 상상과 실재를 기초를 둔 원형천하도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이 계통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표-13 1860년의 《곤여전도(坤輿全圖)》 계통

번호	이름	청구기호	제작연도	판본	장수	크기	이미지
1	坤輿全圖	古朝61-44	1860	목판	6장	172.3×56.9	×
2	坤圖	古262-1	1860	목판	2장	140.0×45.0	×
3	全世界圖	古262-3	1860	목판	2장	140.0×45.0	×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서구식 세계지도로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부탁에 의해 김정호가 판각한 ‘지구전후도’가 천문도와 함께 표 11의 2번이 《항성도(恒星圖) ; 지구도(地球圖)》(古262-2)란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1856년 중국의 광둥에서 목판으로 제작·간행된 《곤여전도(坤輿全圖)》를 들여와 1860년(철종 11)에 목판으로 중간(重刊)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완질본은 아니지만 표 13처럼 3종이 소장되어 있다. 다만 2번과 3번에 다른 청구기호가 부여되어 있지만 원래는 동일한 묶음이었던 것이 입수·분류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것이다.

6.2 중국지도 및 일본 제작 조선지도

청나라에서는 유럽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1708년부터 상당수의 지점에 대한 삼각측량을 시작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1717년에 대축척의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완성하였으며, 용도에 따라 여러 지도의 형태로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조선에서도 사신 일행으로 갔다가 이들 계통을 입수한 후 다시 필사하여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이와 같은 계통이 표 14처럼 5종 소장되어 있다.

표 14의 2번 《천하도(天下圖)》는 《황여전람도》를 축소한 중국의 성(省)과 부(府) 지도 27장과 아메리카가 나오는 세계지도 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번의 《삼성황하전도(三省黃河全圖)》는 황하를 끼고 있는 세 개 성(省)의 지도이고, 6번의 《소지도(小地圖)》는 중국의 성(省) 단위 지도로서 휴대용 소형 지도책이다. 4번의 《각국도(各國圖)》는 서양의 세계지도를 재편

집한 세계지도, 정확성을 추구한 중국-북경-일본의 지도와 중국 각 성(省)의 지도, ‘동람도식’의 유구 지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32장으로 이루어진 1번의 《역대여지도》는 중국의 역사지도인데, 그 이전과 달리 《황여전람도》의 성과를 반영한 소형 중국지도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표-14 1700년대 이후 제작된 중국지도

번호	이름	청구기호	제작연도	책수	책 크기	지도 크기	이미지
1	歷代輿地圖	古朝61-45	미상	필사 1책	36.5×23.5	36.5×46.0	○
2	天下圖	古朝61-67	미상	필사 1책	29.5×17.5	58.8×67.5	○
3	三省黃河全圖	古2702-21	미상	석판 1책	33.2×30.2	27.1×28.5	○
4	各國圖	古2802-1	1822-	필사 1책	33.8×22.3	57.3×54.7	○
5	中國古地圖	古2812-1	미상	필사 1장		142.5×82.3	×
6	小地圖	古2812-3	미상	필사 7책	12.1×7.4	12.1×7.4	○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이미 제시한 표 1과 표 2의 것 이외에도 4종의 일본 제작 조선지도가 표 15처럼 소장되어 있다. 1번의 《조선전도(朝鮮全圖)》는 1875년에 佐田白第·岸田吟香·松田敦朝 등이 합동으로 교정을 보아 출판한 것인데, 어느 지도를 참조해서 그렸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확성 수준이 아주 낮다. 이는 표 1과 표 2의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조선후기의 지도 제작 성과가 일본에 전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3·4번의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을 모본으로 하면서 서양의 측량성과를 반영한 조선전도로, 첫째, 1882년경이 되면서 조선후기의 지도 제작 성과가 일본에 전해졌음을 알려주며 둘째, 조선에 대한 측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894년까지도 정상기식과 근대식이 혼합된 지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5 개항기 일본 제작 조선지도

번호	이름	편저자	청구기호	제작연도	판본	책수	크기	이미지
1	朝鮮全圖	佐田白第·岸田吟香·松田敦朝	古朝61-83	1875	동판	1책	50.0×45.0	×
2	朝鮮國全圖	時事新報社 編	古朝61-87	1882	동판	1장	72.5×48.0	×
3	朝鮮輿地全圖	若林篤三郎 編	古朝61-75	1882	동판	1장	68.0×46.5	○
4	朝鮮全圖	東京地學協會 編	古朝61-62	1894	동판	1장	81.4×54.6	○

7. 맺음말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지도를 지도 제작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전기에 제작된 지도의 원본은 소장되어 있지 않지만 지도 제작사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전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 계통의 상당수가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재적, 지도학사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된 지도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古朝61-77), 《목장지도(牧場地圖)》(古朝80-32),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古2107-36) 3책, 《청구도(靑邱圖)》(古朝61-80) 2책 등 4종이나 되며, 필사본 18첩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古朝61-1)는 국립중앙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는 유일본이기도 하다. 끝으로 이 글이 우리나라 최대의 고지도 소장처 중 하나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 고지도에 대한 연구자와 일반인의 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갈무리한다.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본 독도영유권

심정보 (Shim, Jeong-Bo)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Ktxgut@naver.com

02

1. 머리말

한일 간의 독도영유권 문제는 정치적·외교적 마찰을 초래하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으로부터 새로운 고지도가 발굴되었다는 무분별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는 정부가 작성한 공문서, 지리서, 지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당시 영토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양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문헌과 지도가 다수 제작되었다. 그러나 국내외의 수많은 문헌과 지도 가운데, 독도영유권에 대한 결정적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근대 이전의 지도 제작은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지도에 기재된 내용은 문헌의 내용보다 시기적으로 늦다.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은 지리서에 일차적으로 반영되고, 그 후 지도 제작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에 나타난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도와 관련된 당시의 문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작성한 문헌과 고지도는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증거력이 탁월하다. 개인의 견해가 아닌, 국가의 입장이 반영되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법적 힘’을 갖기 때문이다. 영유권 문제에서 지도가 증거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도는 공인된 것이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이는 결국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1905년 러일전쟁 이전, 일본의 문헌과 고지도 가운데, 특히

일본 정부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독도영유권을 고찰하고,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 무주지선점론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2. 에도(江戸) 시대의 독도 관련 문헌과 지도

2.1 고문헌에 기술된 독도

일본에서 독도가 기록된 최초의 고문헌은 『은주시청합기』(1667)이다(그림 1). 에도(江戸)시대 초기에 저술된 이 문헌은 오키 섬을 기술한 현존 최고의 지지(地誌)이다. 원본의 소재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본이 여기저기 남아 있다. 문헌에 저자명이 없기 때문에 저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1941년의 『松江市史』에 의하면, 마쓰에번(松江藩)의 번사(藩士)였던 사이토 간스케(齊藤勘介, 豊宣・豊仙)가 오키의 군다이(郡代)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를 유력한 저자로 보고 있다. 그는 약 2개월에 걸쳐 오키 섬을 순찰했을 때, 그 지역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채록했던 것이다.



그림 1. 은주시청합기(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서문에서 오키 섬을 실제 답사했을 때에 토지의 노인, 오래되고 유서 깊은 사찰로부터 묻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고 했듯이 지세, 인구, 명승, 유적, 신사불각, 예의 등을 기행문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당시 오키 섬의 지리적 현황을 상세하게 기록했고, 지명과 거리 관계를 자세히 기재했기 때문에 현재와 대비할 때 크게 참고가 된다. 『은주시청합기』는 권4, 지도 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1에는 서문과 「국대기(國代記)」에 대한 내용이다. 국대기에는 오키 섬의 위치에 대한 개요가 기재되어 있고, 미나모토노 요시치카(源義親)가 오키 섬을 차지한 이후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에도 시대에 제작된 『은주시청합기 권1』의 「국대기」에는 오키 이외에 독도, 울릉도의 위치 관계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키 섬은 북해(동해) 가운데 있다. 생각건대 일본 고유의 말로 바다 가운데를 오키라고 하므로 이와 같이 이름 붙인 것일까? 그 남동에 있는 땅을 도젠(島前)이라고 한다. 치부리군(知夫郡)과 야마군(海部郡)이 여기에 속한다. 그 동쪽에 있는 땅을 도고(島後)라고 한다. 스키군(周吉郡)과 오치군(穩地郡)이 여기에 속한다. 그 관청은 스키군 남안의 사이고 토요사키(西郷豊崎)이다. 오키 섬에서 남쪽, 시마네현의 미호노세키(美保関)까지는 35리. (오키 섬에서 보아) 동남에 있는 돗토리현의 아카사키우라(赤碕浦)까지는 40리. 남서에 있는 시마네현의 유노쓰(温泉津)까지는 58리. 북에서 동에 이르는 사이에는 기준이 되는 땅이 없다. 북서 사이에는 2일 1야를 가면 독도가 있다. 여기에서 하루 일정의 곳에 울릉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소타케시마(磯竹島)라고 한다. 대나무, 물고기, 바다사자가 많다. 생각건대 신서(神書)에 기술되어 있는 이소타케의 신일까? 이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은 무인도이다. 여기에서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은 정확히 이즈모(出雲)로부터 오키 섬을 원망(遠望)하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 북서의 땅은 이 주(섬)를 경계로 한다.

위와 같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한 섬들을 둘러싸고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내용은 특히 밑줄의 “일본 북서의 땅은 이 주(섬)를 경계로 한다.”는 부분이다. 일본 북서의 경계를 가리키는 ‘이 주(섬)’가 오키 섬인가, 아니면 독도인가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에 해석이 다르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최초로 『은주시청합기』를 언급한 것은 1954년 2월 10일자 외교각서이다. 과거 일본인들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항해에 이용해 왔으며 어업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이 문헌을 제시했던 것이다. 즉 일본 측은 밑줄의 ‘이 주(섬)’를 오키 섬이 아닌 독도로 해석하여 일본의 서북 한계를 독도로 규정지었던 것이다. 그 후 한일 양국의 학자들 사이에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의 학자들도 ‘이 주(섬)’는 독도가 아닌, 오키 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池内敏, 2001; 大西俊輝, 2007). ‘이 주(섬)’가 독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문장의 ‘원망(遠望)’이라는 용어, 그리고

이 문헌의 내용 기술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원망이라는 말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는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독도에서 오키 섬까지는 157.5km의 거리이다.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에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오키 섬에서는 아무리 날씨가 맑더라도 독도를 볼 수 없다. 하물며 일본 시마네현의 이즈모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렵고, 오키 섬까지는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 북서의 땅으로 ‘이 주(섬)’에 대한 해석은 오키 섬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 문헌은 오키의 지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서 독도를 제외시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주시청합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권1은 서문과 국대기(國代記), 권2는 스키군(周吉郡), 권3은 오치군(穩地郡), 권4는 치부리군(知夫郡)과 아마군(海部郡)·사찰일람·몬가쿠(文覺)에 대한 인물평 등이 실려 있다. 본문에서 필자의 사견은 한문으로 되어 있고, 결코 과장하지 않고 겸허한 필치이다. 권3의 오치군은 일본의 행정구역상 독도가 포함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러나 최북단에 대한 기술은 있지만, 독도에 대한 언급은 볼 수 없다. 이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도 시대의 『은주시청합기』는 오키의 지지에 대한 내용이며, 개인적으로 조사하여 발간한 것이 아니다. 각 지방의 막부 직할지를 다스리던 군다이(郡代)라는 관직의 관리와 그 일행들이 함께 오키 지역을 실제 답사하여 만든 것이다. 만약 그들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했다면, 이 문헌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일본의 최하위 지자체가 독도를 일본과 무관한 땅으로 인식한 것은 중앙 정부에도 영향을 미쳐 메이지(明治)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이후 제작된 지도에도 독도는 일본령과 무관하게 다루어졌다. 무엇보다 최초로 독도를 일본의 고문헌에서 언급했지만, 일본의 영역 밖의 섬으로 기술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2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일본의 외무성 홈페이지에 탑재된 팸플릿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의 표지와 본문에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실려 있다. 10가지 포인트 가운데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에서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1846년에 모사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 지도의 제작자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미토번(水戸藩)의 유학자로 『대일본사』 지리지의 편찬과 관련된 인물이다. 그는 20여 년에 걸쳐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고 섭렵하여 1775년에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완성했다. 지도에 일본 열도의 윤곽은 양호하고, 일본에서 최초로 경위선을 기입하는 등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토지 측량을 하지 않고, 지지적·지리적 정보를 집적하여 제작한 편집도이다. 그 결과 이 지도에 대한 평가는 낮지만, 목판에 의해 여러 종류의 지도가 간행되어 에도시대 서민의 지지적·지리적 지식의 보급과 국가의식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오키 섬의 북서쪽에 함께 그려져 있다. 또한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 두 섬 옆에는 “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그림 2). 이 글귀는 “여기에서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은 정확히 이즈모(出雲)로부터 오키 섬을 원망(遠望)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앞에서 언급한 『은주시청합기』 권1의 국대기에 나오는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그는 지도를 제작함에 있어서 『은주시청합기』 내용을 신뢰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지도로 나타내고, 글귀도 그대로 적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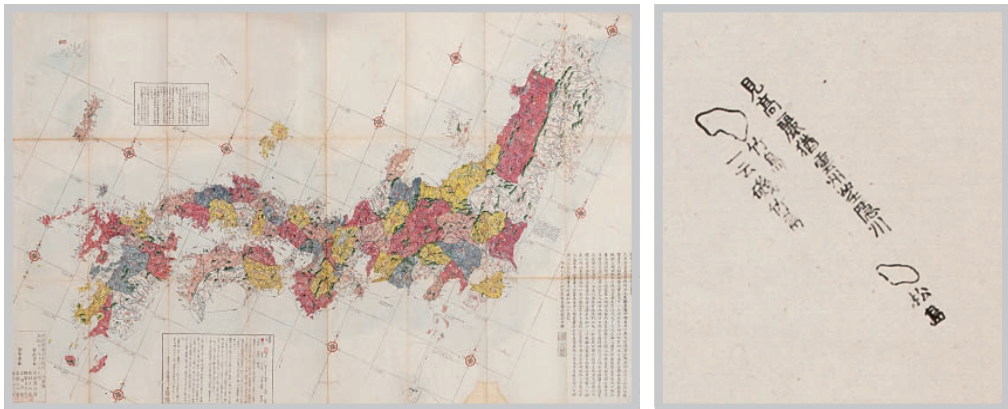


그림 2.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좌)와 독도(松島) 부분(우)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경·위도선 자체가 울릉도와 독도 부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또한 울릉도, 독도와 함께 한반도 남단 지도 부분에도 같은 공식을 적용시켜 경·위도선을 그리지 않았다(호사카 유지,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은 이 지도를 사례로 제시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과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하고, 또한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에도(江戸) 시대의 일본고지도 가운데 독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지도는 1785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삼국접양지도」이다. 이 지도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우

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다. 에도 시대의 지리서, 경세서에 해당하는『삼국통람도설』에 첨부된 5장의 지도 가운데 하나로 지도의 정확성은 결여되어 있지만, 쇄국 하에서 이웃 나라의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지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죽도(竹嶋)라고 표기한 섬과 그 옆에 작은 섬이 그려져 있다. 이 섬들은 모두 조선 본토와 동일하게 황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그 옆에는 ‘조선의 것(朝鮮ノ持也)’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그림 3). 이들 섬 가운데 죽도(竹嶋)는 울릉도에 해당하지만, 그 동쪽의 작은 섬이 독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일 간의 주장이 다르다. 즉 한국은 울릉도 옆의 작은 섬을 독도로 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독도가 아니며 그것은 울릉도의 북동 2km에 위치한 죽도(땃섬)라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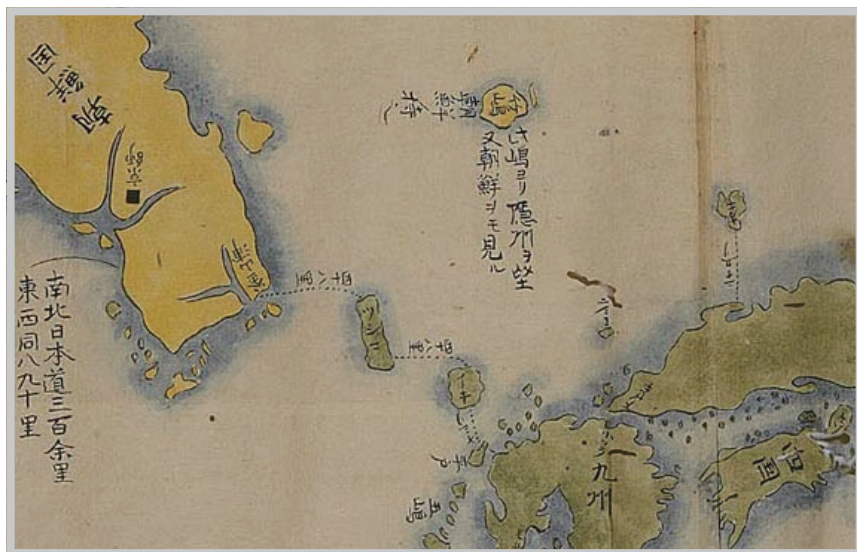


그림 3. 삼국점양지도의 독도 부분

이와 관련하여 호사가 유지(2006)는 하야시 시헤이가 지도를 작성할 때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모범으로 했으며, 하야시 시헤이의 지도에 기재된 울릉도 바로 우측의 작은 섬은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지도에 기재된 마쓰시마(松島, 독도)이며, 하야시 시헤이는 이 두 섬을 나가쿠보 세키스이와 동일하게 조선의 영토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하야시 시헤이가 지도를 제작함에 있어서 현재 울릉도 북동에 있는 죽도(땃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하야시 시헤이가 지도를 작성할 때,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下條正男, 2005). 따라서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점양지도」에 나타난 울릉도 옆의 작은 섬은 독도임이 분명하다.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는 그 법적 성격상 관찬도서가 아닌 민간도서로 첨부된 지도로서 공식기록, 문서에 첨부·부속된 예시지도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단독지도의 성격에 가깝다. 이 지도는 독도가 의문의 여지없이 조선 영토임을 증명하는 증거이나, 비공인지도라는 점에서 그 증명력은 제한될 수 있다(박현진, 2007).

비록 이 지도는 관찬이 아니지만, 영유권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 호사가 유지(2006)에 의하면, 이 지도는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독일의 클라프로트는 1832년에 『삼국통람도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출판했다. 에도 막부는 여기에 실린 프랑스어판 「삼국접양지도」를 1854년 미국과 오가사와라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식 지도로 사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영유권을 인정받았다. 결국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는 사찬지도에 해당하지만, 지도의 증거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메이지(明治) 시대의 독도 관련 문헌과 지도

3.1 국가 문서에 기록된 독도

(1) 외무성의 문서

일본은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을 단행하여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양적 국민국가 체제를 지닌 근대국가로 변모시켰다. 그 범위는 중앙관제, 법제, 궁정, 신분제, 지방행정, 금융, 유통, 산업, 경제, 교육, 외교, 종교정책 등 다양하다. 일본의 신정부는 봉건사회의 쇄국체제에서 개국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선과의 국교 및 정한(征韓)을 위해 국정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지시로 1869년 12월 비밀리에 외무성의 사다 하쿠보 등 관리 3명을 조선에 파견하여 사정을 염탐하도록 했다.

외무성으로부터 지시받은 조사 사항은 총 13개 항목이며, 그 가운데 마지막 항목이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사항이다. 에도 시대에 일본인이 도향한 적이 있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 후 1870년에 제출된 복명서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이며, 여기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사정’이라는 조사사항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그림 4). 이것은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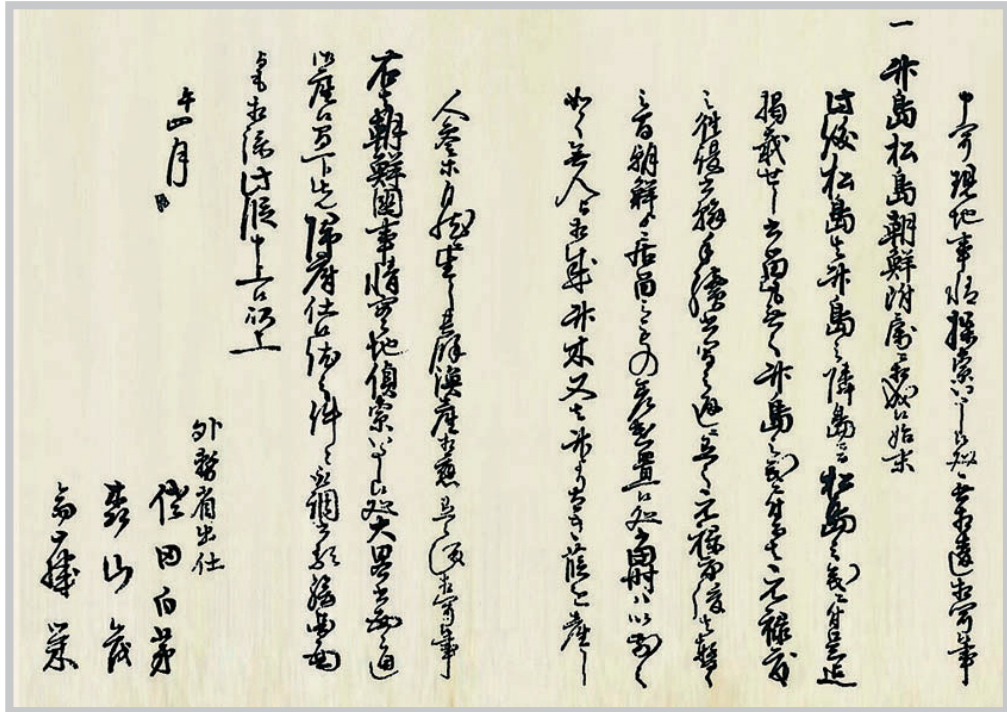


그림 4.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사정

이 건에 대해서 독도는 울릉도의 인접 섬으로 독도 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기재된 서류도 없습니다. 울릉도 건에 대해서는 원록(元祿) 무렵 이후 잠시 조선에서 거류(居留)를 위해 사람을 보낸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이전처럼 사람이 없습니다. 대나무 또는 대나무보다 굵은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도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그 밖에 물고기도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 영토임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 외무성 관리들은 조사 사항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사정’에 대해서 특이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인접 섬으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일본 측의 문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당시 메이지 정부는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 섬의 부속도서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본령과 무관하다는 인식이었다.

(2) 태정관의 문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행정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서구에서 도입된 지도와 지지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편찬 및 지도제작을 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지적 편찬과 관련하여 『공문록』과 『태정류전』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무관한 섬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것은 이른바 태정관 지령으로 1987년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에 의해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내무성에 질의했고, 내무성은 최고 국정 기관인 태정관에 품의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태정관 지령의 발단은 1876년 내무성 지리료(地理寮)의 일본 전역의 지적편찬 사업과 관련있다. 다지리 겐신(田尻賢信) 등 내무성 지리료의 직원이 시마네현을 순회했을 때, 과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울릉도에 도해한 사실과 왕래했던 항로 등을 듣고 10월 5일자로 시마네현 지적 편제계에 울릉도에 대한 기록과 고지도 등을 조사하여 알려주도록 요청했다. 이 문서에 울릉도는 보이지만, 독도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의 참사 사카이 지로(境二郎)는 10월 16일, 내무성의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에게 「일본해 내 울릉도 외일도 지적편찬방사」라는 품의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적 편입과 관련하여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지령을 바란다고 했다. 또한 여기에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는 의미에서 ‘외일도(外一島)’가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시마네현으로부터 품의서를 받은 내무성은 독자적으로 5개월 동안 원록(元祿) 연간의 「竹島一件」에 관한 기록 등을 조사하여 이 문제는 17세기에 끝난 문제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판도의 취함과 버림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내무성의 내무소보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는 3월 17일 태정관의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아래와 같은 품의서를 제출하여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해 내 울릉도 외일도 지적편찬 방사

울릉도 소속 관할의 건에 대해 시마네현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조회가 있어 조사한 바, 해당 섬의 건은 1692년(원록5)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별지 서류에 진술한 대로 1696년(원록9) 정월 제1호 구 정부의 평의(評議)한 취지나, 제2호 역관에 대한 서장, 제3호 해당국(조선)에서의 서신, 제4호 본방(일본)의 회답 및 구상서 등에 있듯이 1699년(원록12)에 이르러 서로 서한의 왕복이 끝나 본방과 관계가 없다고 들었는데, 판도의 취함과 버림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해 확인하기 위해 이것을 품의하나이다.

우대신에게 제출된 품의서는 태정관에 의해 심사되었고, 태정관 조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무성과 동일한 입장의 태정관 지령이 작성되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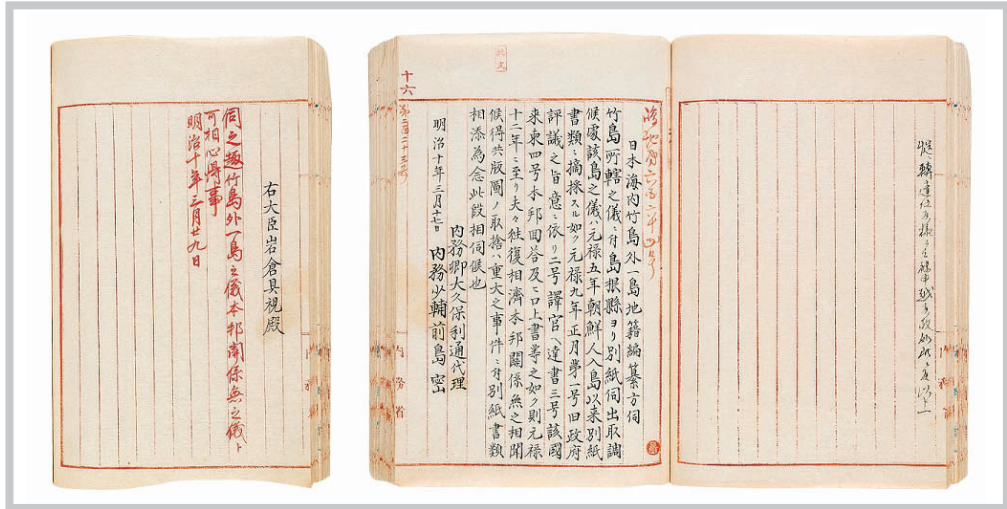


그림 5. 태정관 지령

별지에 내무성이 제출한 조회서 일본해 내 울릉도 외일도 지적 편찬의 건, 이것은 1692년(원록 5)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구 정부(에도 막부)가 당해국(조선)과 교섭한 결과, 최종적으로 본방과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다는 의견에 관해 조회서의 취지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지령이 내리도록 이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령 안

조회서의 건, 울릉도 외일도의 건은 본방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의 이러한 결정은 3월 29일자로 내무성에 전달되었지만, 내용이 중대한 만큼 관계 서류와 함께 『태정류전 제2편』에는 「일본해 내 울릉도 외일도를 판도외로 정한다」는 명칭으로 그 과정이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외일도’가 독도라는 것은 뒤에서 언급하듯이 공문서에 첨부된 「기죽도약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내무성은 이러한 결정을 4월 9일 시마네현에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지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와 같이 메이지 시대 국정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이 이전과 같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로 보아 일본 영토와는 무관하다고 공식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당시 일본 정부의 각

부서에서 발간한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시마네현 또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3.2 국가 제작의 지도와 독도

메이지 시대에 들어 근대적인 측량으로 다수의 지도가 제작되었다. 특히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따라 동북아의 일·러·중·한 관련 관찬 및 사찬 지도의 발간은 급속히 증가했다. 이들 지도 가운데 영유권과 관련하여 지도의 증거력이 있는 것은 국가가 발간한 관찬지도라 할 수 있다. 앞에서 고찰했듯이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 외무성과 태정관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와 무관하다는 자국 내에서의 영유권 결정은 그 후 일본 정부가 제작한 지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컨대 육군참모국의 「조선전도」(1875)와 「아세아동부여지도」(1875), 해군수로국의 「조선동해안도」(1876), 태정관의 「기죽도약도」(1877), 육군참모국의 「대일본전도」(1877), 내무성 지리국의 「대일본부현관할도」(1879), 「대일본국전도」(1880), 육지측량부의 「1/20만 오키지도」(1889)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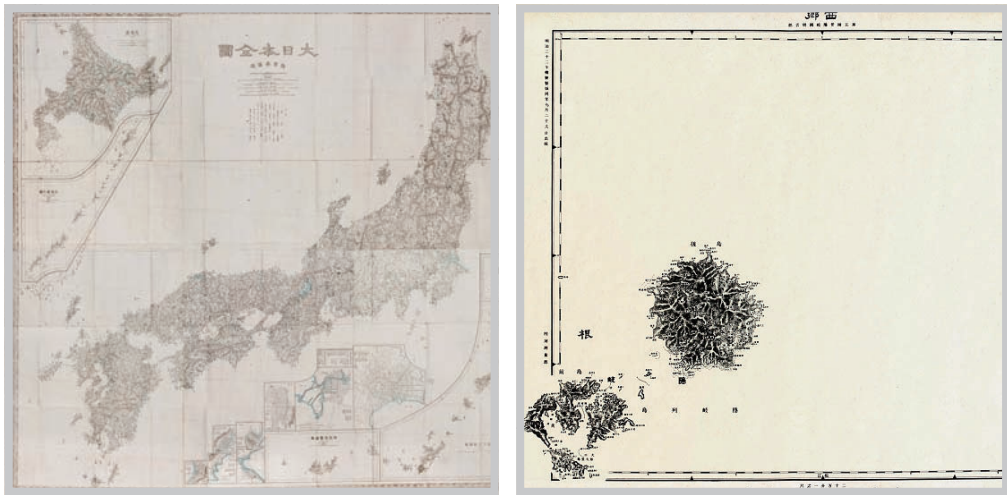


그림 6. 대일본전도(좌)와 1/20만 오키지도(우)

이들 지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열도와 채색을 달리 하거나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전도, 시마네현전도, 오키전도에서 제외한 것 등이 있다. 그림 6은 육군참모국이 1877년에 제작한 「대일본전도」로 일본 열도 전체를 자세히 나타냈지만, 독도는 지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육지측량부가 1899년에 제작한 「1/20만 오키지도」도 그러하다. 현재 일본의 국토지리원이 제작한 「1/20만 오키지도」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지도에는 독도가 제외되어 있다. 독도가 일본의 지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영토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영유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지도는 그것을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메이지시대 일본 정부가 제작한 지도 가운데,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지도는 일본 정부의 공문서에 수록된 「기죽도약도」라 할 수 있다. 1877년 일본의 태정관이 결정한 『태정류전(太政類典)』 제2편의 관련 문서인 『공문록』에 「기죽도약도」라는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그동안 이 지도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2005년 일본의 가나자와(金沢) 교회의 우루시자키 히데유키(漆崎英之) 목사가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굴하여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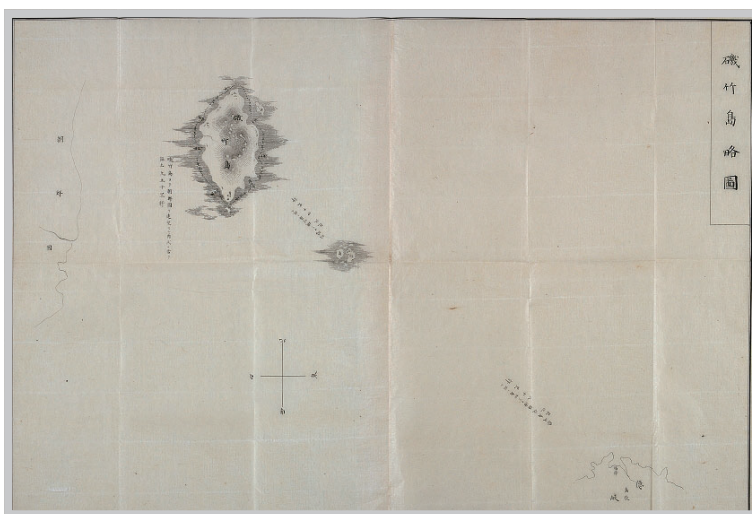


그림 7. 기죽도약도

이 지도에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울릉도와 독도의 형상, 지명, 위치, 거리 등이 제시되어 있다. 울릉도(磯竹島) 동남쪽에 동과 서에 나란히 2개의 주요 섬과 10여 개의 작은 섬이 그려져 있다. 동쪽의 섬에는 ‘松’, 서쪽의 섬에는 ‘島’라는 한자가 쓰여 있다. 이들 2개의 섬과 주변의 작은 섬 전체의 명칭이 당시 일본에서 호칭했던 ‘마쓰시마(松島)’, 즉 현재의 독도인 것은 명백하다.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주변과의 거리 관계에 대해서도 독도에서 울릉도까지 40해리(74km), 그리고 오키 섬에서 독도까지 80해리(148km)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 간의 87.4km, 오키 섬과 독도는 157.5km로 이들을 당시의 거리 관계와 비교하면 거의 일치한다.

박현진(2007)에 따르면, 「기죽도약도」는 독도를 중심으로 그 위치, 거리를 비교적 정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한 공식 문건의 본문에 부속, 편입된 인증지도로서 그 본문과 동등한 증거능력을 가지는 직접·1차적 증거이며 결정

적 증거로 평가된다. 또한 영유권 분쟁 국제소송 절차에서 공인, 비공인 지도제작자가 가진 정보의 정확성과 표시의 중립성(특히 자국이 간행한 지도에서 일정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이 가지는 증거 가치에 비추어(팔마스 중재사건), 「기죽도약도」는 특별한 증거력과 증명력을 가진다.

4. 맺음말

본고는 1905년 러일전쟁 이전, 일본의 에도 막부와 메이지 정부의 문헌과 지도를 중심으로 독도영유권을 고찰한 것이다. 일본은 이들 자료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지만,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귀중한 자료임이 틀림없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전까지 독도를 일본과 무관한 섬으로 인식하여 각종 문헌과 지도에서 독도를 제외시켰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1667년에 발간된 『은주시청합기』에 독도가 최초로 나타난다. 이 책은 오키 섬의 지지(地誌)와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위치의 설명 부분에서 일본의 북서쪽 경계를 오키 섬으로 보았다. 따라서 오키의 지지에 대한 기술에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 시기에 제작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와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점양지도」에도 반영되어 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하거나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는 시마네현, 외무성, 내무성, 그리고 태정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조사가 재차 이루어졌다. 당시 국정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울릉도 외일도(독도)의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그러한 결정은 이후 지리서 편찬과 일본지도 제작에 영향을 미쳐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거나 일본 본토와 채색을 다르게 하였다.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작성한 공문서와 여기에 첨부된 지도가 1차적인 결정적 증거 자료가 된다. 에도 막부와 메이지 정부의 기록물 가운데, 「기죽도약도」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하기 이전에 제작된 지도로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다. 향후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정부에 의해 작성된 기록물과 지도를 발굴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현진, 2007 “독도 영유권과 지도·해도의 증거능력·증명력”, 국제법학회논총 52(1), 89-128.
- 신각수, 1981 “영토분쟁에 있어서 지도의 증거력-국제판례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49, 109-135.
- 이상태, 2009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의 영유권”, 한국지도학회지 9(2), 33-5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독도사전, 푸른길.
- 호사카 유지, 2005 “일본의 지도와 기록을 통해 본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비판”, 북방사론총 7, 75-105.
- 호사카 유지, 2006 “林子平圖와 獨島”, 일어일문학연구 58(2), 219-237.
- 大西俊輝, 2007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 池内敏, 2001 “前近代竹島の歴史学的研究序説”, 靑丘学叢論集 25, 169-184.
- 下條正男, 2005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

풍수적 재현으로서 고지도

권선정 (Kwon, Seonjeong)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의전담교수
sjkwon85@dreamwiz.com

03

1. ‘지도 보기’와 ‘지도 읽기’

인간은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 또는 현상들의 특성을 말이나 글, 그림, 사진, 음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표현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통 ‘재현(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지표 상의 다양한 자연·인문 현상을 2차원 평면 위에 표현한 지도도 바로 재현의 산물이자 또 다른 재현의 대상이 된다.

재현의 과정에는 크게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이 전제되는데, 모사적 재현양식(mimetic representation)과 해석적 재현양식(interpretive representation)이 그것이다. 모사적 재현은 말 그대로 재현되는 대상을 거울에 비추듯이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는 대전제이다. 그럴 경우 재현된 결과와 대상 사이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반해 재현의 과정에 작동하는 수많은 변수나 재현되는 대상과 결과물 사이의 고정적이지 않은 비결정적 관계 등에 주목하는 해석적 재현은 모사적 재현양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재현양식의 대전제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재현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재현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럴 때 재현되는 내용은 다름 아닌 재현되는 현상의 특성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령 본고에서 다루는 지도의 경우 재현되는 내용은 지표 상의 다양한 자연·인문 현상의 종류, 위치, 분포, 방위, 고도 등이다. 실제 지표 상 여러 현상들의 특성을 지도 기호나 문자, 축척, 색깔 등을 이용해 표현하는 것이다.

재현의 과정에서 담아지는 현상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감각이나 도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형적 특성 즉 ‘형태(form)’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형태적 특성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상징적 의미 등을 포괄하는 ‘의미(meaning)’ 차원의 특성이다. 현상을 구성하는 형태라는 것이 음식물을 담은 용기라고 한다면, 의미는 그 안에 담고자 하는 또는 담겨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물이 되는 것이다. 결국 현상이라는 것은 형태와 의미라는 두 가지 특성 영역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표 상 여러 현상들을 재현한 지도는 그것의 형태적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의미 차원의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접근대상이 된다.

이러한 현상의 특성과 관련하여 ‘지도 보기’와 ‘지도 읽기’가 갈라진다. 지도 보기는 지도가 그것에 담기는 실재하는 현상들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믿음 하에 현상의 위치·거리·방위 등 주로 형태적 특성에 관심 갖는 것이다. 즉, 지도 보기는 모사적 재현양식의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럴 때 현상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지도는 얼마만큼 현상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느냐(정확성), 또 누가 보더라도 동일하게 현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느냐(객관성, 사실성) 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도 이 정도의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평가의 표본으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혹은 정산기의 동국지도 계통 지도를 교과서나 한국의 지도사 서술에서 주목해 왔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만큼 현재의 지도를 평가하는 정확성·객관성·사실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지도 보기의 입장에서 우리의 고지도를 평가해 왔던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만 보자면 시간적으로 현재의 정확한 지도에 대비되는 ‘과거의 지도’요 공간적으로도 정확한 지도 제작 전통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온 서구(유럽) 이외의 문화권에서 형성된 지리학적 재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옛 지도를 어떻게 위치 지을 수 있을까? 단순히 정확성이 떨어지는 다시 말해 정확한 지도 제작을 위한 기술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나온 결과물 정도로 평가하고 말 것인가?

이 지점에서 잠시 앞서 말한 재현의 과정에 담겨지는 현상의 특성 즉, 형태와 의미라는 것이 어떻게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현상을 구성하는 형태와 의미 간의 관계는 ‘자의적’이라고 한다(‘현상의 자의성’)⁽¹⁾. 자의적이라 하면 두 특성 영역 간의 관계가 고정적·결정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면서 인위적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관계 맺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의미를 담아주는 형태도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1) 장레식

(1) 보통 현상이 지니는 ‘형태와 의미 간의 관계’는 그것을 기호학과 관련지어 이해할 때 그 특징이 드러난다. 기호학에서 말하는 기호(記號)는 기표(記標, 형태)와 기의(記意, 의미)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간의 관계는 자의적일 뿐이다. 즉, 동전의 양면처럼 기호를 구성하는 기표와 기의 간에는 어떤 고정된 자연적·필연적·결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임의적 관계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기호의 자의성’은 기호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언어학을 중심으로 기호학을 발전시키려 했던 19세기 말의 스위스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제시한 언어이론의 제1원칙이다.

장에서 애도나 조의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의상 색깔 즉 형태적 특성은 검은색이 될 수도 있고 흰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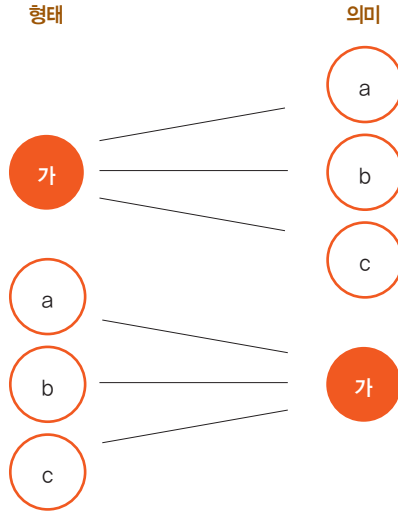


그림 1. 현상의 자의성

현상의 자의성을 전제로 지도라는 지리적 재현물을 접근하게 되면, 그것의 평가는 단순히 형태 상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현실을 담아내고 있느냐의 문제로만 귀착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도에 담고자 하는 의미 또는 지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지도 재현물의 형태적 특성과 의미 영역을 관계 맺어주는 토대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요구한다. 이렇듯 지도의 형태적 특성 외에 의미 차원의 특성, 그리고 그러한 두 특성 영역을 관계 짓는 문화적 토대 등을 관심 갖는 접근 방식을 ‘지도 읽기’ 또는 ‘지도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 읽기의 전제가 되는 현상의 자의성은 해석적 재현양식에서 관심 갖는 형태와 의미의 비결정성, 재현의 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변수나 문화적 약속체계 등을 주목케 하는 인식의 출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풍수 코드와 지도 재현

2.1 고지도 재현과 문화적 코드

그렇다면 그동안 정확성 · 객관성 · 사실성 위주의 평가 잣대로 볼 때 그다지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던 우리의 옛 지도에 대해 해석적 접근 즉 지도 읽기를 시도하고자 할 때 무엇을 먼저 관심 가져야 하는가? 앞서 지도는 실재하는 다양한 공간 현상을 2차원 평면 위에 재현한 그림이라고 하였다. 실재 공간 현상을 지도라는 그림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현상의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곧 지도의 형태와 의미 특성을 관계 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도에 표현되는 특성 중 우리가 일차적으로 관심 갖는 특성은 실재 현상과 관련된 형태적 측면이 주가 된다. 그렇지만 현상의 자의성을 전제할 때 그러한 형태와 관련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의미 특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지도의 형태와 의미 특성을 관계 짓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형태와 의미 특성이라는 것이 서로 공중을 날아다니다 어느 순간 저희들 스스로 결합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지도의 경우 지도 제작을 명하면서 지침을 내리거나 화원처럼 실제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작업을 수행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지도 제작과 관련된 사람 개개인의 개별적 정보 수집 능력이나 기존 정보의 검토 및 실증 과정, 개인적 열정, 지침의 명확성 등은 지도 제작을 위한 중요한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도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조건들은 주로 지도의 형태적 특성 즉 지도에 표현되는 지역의 생김새나 여러 현상들의 위치, 방위, 거리 등 지도의 정확성 차원에서 평가되는 내용들을 결정하는 주요 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지도의 형태적 특성에 다양한 의미 영역이 관련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의미 차원의 특성이 형태적 특성처럼 우리의 감각이나 도구를 통해 볼 수 있거나 측정 가능하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 더욱이 지도 제작자가 특정 방법을 통해 지도의 형태와 의미 차원을 관계 지었더라도 지도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소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동일한 형태적 특성을 경험하였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지도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영향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문화적 약속체계(cultural signifying system)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의 약속체계에 대한 인식은 의사소통체계에서의 언어나 몸짓, 거리의 교통신호등 등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말이나 글로 표현되는 언어의 형태 요소에 관련된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언어 생산자(화자)와 소비자(청자) 간에 공유되는 규약체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거리의 신호등에서 확인하는 빨강색, 파랑색, 주황색의 의미를 운전자나 보행자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체계, 교통법규 등 일련의 약속체계를 공유해야만 한다.



그림 2. 의사소통체계에서의 고지도와 문화적 코드

이와 마찬가지로 지도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체계에서 지도제작자와 사용자가 지도를 통해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약속체계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특정 시대, 특정 지역, 특정 사회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공유되는 그러한 공통의 약속체계를 소위 문화적 코드(cultural code)라고 한다면, 고지도의 제작이나 사용에 있어서 작동하고 있던 문화적 코드는 무엇이었는지의 관심이 지도 읽기에 있어서 주요한 관건이 된다.(그림 2) 현재적 입장에서 고지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 정확성, 객관성, 사실성 등 현재의 지도 평가 잣대만을 중심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공유되고 있는 코드와 고지도가 제작되고 사용되던 당시 공유되고 있던 코드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2.2 문화적 코드로서 풍수

그렇다면 고지도와 같은 지리적 재현물의 구성(생산, 소비)에 작용했던 당시의 문화적 코드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선 지도라는 재현 형식에 반영되는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보자. 그것은 지표 상의 다양한 자연·인문 현상과 관련된 특성들이다. 그럴 때 동일한 재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재현된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반도 산맥도를 보면 그동안 현대 지리교육을 배워 온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태백산맥·소백산맥·차령산맥 식의 지명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갈비뼈 같은 산맥도이다.(그림 3)⁽²⁾ 그에 반해 전통적 산맥도에서는 백두산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의 산세가 1대간·1정간·13정맥으로 구분되어 서로 끊어짐 없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그림 4)

(2) 이러한 산맥 명칭과 산맥도는 1903년 일본의 지질학자 고토분지로(小幡文次郎)가 발표한 『조선산악론: 원제목은 An Organic Sketch of Korea』에 기초하여 일본인 지리학자 야쓰쇼에이(矢津昌永)가 집필한 『한국지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림 3. 아쓰쇼에이의 『한국지리』 산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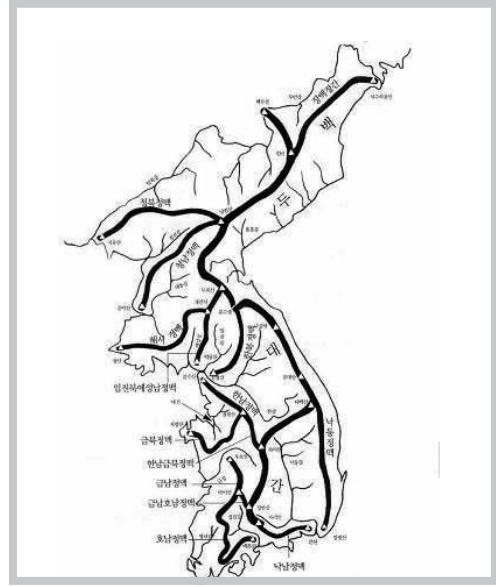


그림 4. 전통 산맥도(조선광문회본, 1913년)

이렇듯 지도의 제작이나 사용에는 지표 상의 여러 현상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지 등과 관련된 지리적 인식체계 또는 공간인식체계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그동안 전통적 공간(또는 환경)인식체계이자 지리적 인식체계로 이해되어 온 풍수를 상정하고자 한다. 이는 풍수라는 지리적 인식체계가 지도 재현이나 지도 읽기에 있어서 형태적 특성과 의미 영역을 관계 짓는 주요한 문화적 코드였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풍수의 이상적인 공간 구성 개념도와 실제 지역을 재현한 고지도를 비교해 보면 풍수가 문화적 코드로 어떻게 공유되고 있었는지 더욱 잘 드러난다. <그림 5>는 흔히 명당(明堂)이라고 불리는 풍수상 중심 국면을 형성하는 여러 조건들을 도식적으로 개념화 한 것이고, <그림 6>은 현재 충남 부여군의 석성면과 성동면 일대를 담고 있는 1872년 「석성현지도」이다. 일견 형태적으로 보기에도 석성현의 읍치를 둘러싸고 있는 풍수 사신사(四神砂: 청룡·백호·주작·현무)⁽³⁾가 거의 <그림 5>의 개념도와 일치될 정도로 잘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도의 위쪽 주산(현무 玄武)과 그 맞은편에 자리 잡은 주작(朱雀)으로서 안산(案山)

(3) 풍수에서는 명당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자연조건을 총칭하여 '사'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후좌우 사방을 지켜주는 수호신 개념과 관련된 청룡·백호·주작·현무이다. 청룡은 명당 뒤의 주산 맥세에서 나와 앞쪽을 향하여 명당의 왼쪽을 감싸 안는 산세를 말하고, 백호는 명당의 오른쪽을 감싸면서 청룡 쪽으로 명당의 앞을 지나가는 산세를 말한다. 그리고 명당의 전면에 있는 안산과 조산은 주작이 되고, 명당 뒤에 두어 마디 떨어져 솟아있는 주산과 주산으로부터 명당까지 이어지는 내룡(來龍)의 맥세 중 우뚝 솟은 현무정(玄武頂)은 사신사 중 가장 중요한 현무가 된다.

과 조산(朝山), 그리고 좌우의 내외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등이 그것이다. 물론 석성현 지역의 실제 산수조건은 『석성현지도』에 담아지고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명당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실제 지역이 지도상에서 이렇듯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풍수가 고지도 구성의 주요한 문화적 코드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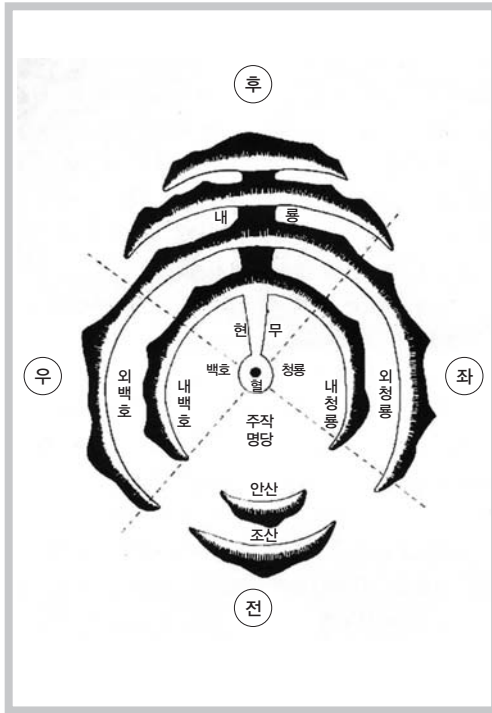


그림 5. 풍수의 공간 구성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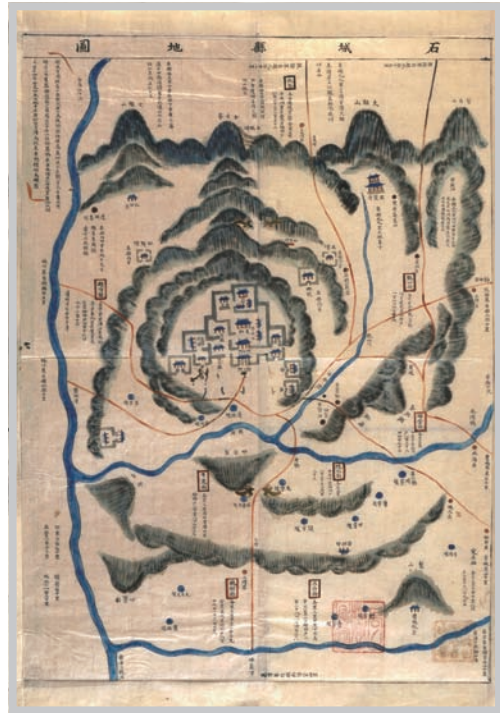


그림 6. 1872년 석성현지도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처럼 풍수를 코드로 하는 지도 재현의 예는 『해동지도』·『팔도여지도』·『여지도서의 침부지도』 등 여러 종류의 군·현 단위 지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가 조금 넘을까 하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에서까지 이러한 풍수적 재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풍수가 고지도 구성의 의미 있는 토대로서 현재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시기까지 공유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3 한국의 전통지리, 공간 코드로서 풍수

이와 같이 풍수가 고지도와 같은 지도 재현에 있어서 작용했던 주요한 문화적 코드였다는 사실은 지도를 사용하는 입장에서조차 공히 풍수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적 입장에서 고지도의 의미를 충분히 읽어내기 위해서는 풍수라는 전통적인 지리적 인식체계 즉 공간 코드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만 작금의 풍수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기껏해야 뭇자리나 집 자리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식의 발복풍수 위주로 풍수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선언적·파상적 수준에서 풍수가 지도나 지리지, 지명과 같은 다양한 지리적 구성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풍수라는 옷을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이성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이원론 등으로 대변되는 서구 근대의 인식론적 토대로 무장한 우리에게 는 풍수가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면서 신비한 영역으로까지 다가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현재 우리가 풍수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어떤 위상을 가졌던 것인지 공식적인 문헌 기록 그리고 그 안에서의 풍수의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관리를 뽑기 위해 공적으로 시험을 치루기 시작한 고려시대의 과거 내용 중 풍수 관련 부분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 이전에는 과거법이 없었고 고려 태조가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로 인재를 뽑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광종이 쌍기의 의견을 채용하여 과거로 인재를 뽑게 하였으며 … 〈중간 생략〉 … 과거에는 제술, 명경 두 과가 있었고 의복, 지리, 율학, 서학, 산학, 삼례, 삼전, 하론 등의 잡과가 있었는데 각기 그 전문 과목에 대해 시험치고 출신을 주었다. (『고려사』, 지 제 27, 선거 1)

지리과(地理科)의 방식은 첩경⁽⁴⁾ 방법으로 2일 내에 실시하되 첫날에는 『신집지리경』에 10조를, 다음 날에는 『류씨서』에 10조를 첩경 시험 쳐 이를 동안의 것이 모두 6조 이상씩 통하여야 한다. 『지리결경』 8권, 『경위령』 2권 합하여 10권을 읽히는데 문리와 글 뜻을 잘 안 것이 여섯 궤가 되어야 하며 문리 잘 안 것이 네 궤가 되어야 한다. 『지경경』 4권, 『구시결』 4권, 『태장경』 1권, 『가결』 1권을 합하여 10권을 읽는데 문리와 글 뜻을 잘 안 것이 여섯 궤가 되어야 하며 문리 잘 안 것이 네 궤가 되어야 한다. 또 『소씨서』 10권을 읽는데 그 안에서 문리 잘 안 것이 한 궤가 되어야 한다. (『고려사』, 지 제 27, 과목 1)

위의 내용을 통해 지리과가 고려 전기부터 시작된 과거의 잡과에 속하는 공식적인 분야였다는 점, 그리고 그 시험 보는 방식은 어떻게 어떤 과목들을 시험 봐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혹자는 내용 중에 ‘지리’ 또는 ‘지리과’에 대한 것만 있지 풍수에 대한 것은 없지 않느냐

(4) 첩경(帖經)은 경서 책의 특정 면을 다 덮고 중간의 한 줄만 내놓아 그 중에서 몇 글자를 뽑아 쓴 종이첩(帖)을 수험생에게 주어 그 글자 앞뒤의 글을 암송시키는 시험 방법이다.

고 반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리와 풍수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통해 풍수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의 내용에서부터 고려시대 수많은 후대 왕들의 천도 시도나 사원 건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리 관련 내용은 다름 아닌 풍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 가령 <훈요>의 2항에서 ‘사원이 들어선 자리는 도선(道諫)⁽⁶⁾이 산수의 순역을 보아 추천한 것이니 그 외에 함부로 사원을 세우면 지덕을 손상시켜 나라의 운수가 오래가지 못한다(諸寺院 皆道諫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諫云 吾所占定外妄加創造則損薄地德 祚業不永)’라고 하여 사원의 입지 선정에 ‘지덕(地德)’을 운위한 것이나, 8항에서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錦江) 밖은 산형지세가 모두 거스르는 형세로 달리고 있으니 사람의 인심도 또한 그럴 것이다(車峴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並趨背逆 人心亦然)’라고 하여 인심의 결정 요인으로 산형지세를 보는 인간-자연환경 간의 관계 설정 등은 곧 풍수가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사원을 비롯한 궁궐, 촌락, 도시, 묘지 등의 입지 선정이나 인간-환경 간의 관계 설정 등은 다름 아닌 지리적 사고의 주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지리적인 관심사에 풍수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은 곧 ‘풍수=지리’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볼 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지리전문가는 다름 아닌 풍수전문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러한 지리전문가(풍수전문가)를 선발하는 국가의 공식시험인 지리과 과거의 시험과목 내용이 무엇이었을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시험 과목으로 채택된 서책들은 동시대 중국에서 편찬된 풍수서가 거의 들어있지 않음을 볼 때 오히려 한국 고유의 풍수서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고려시대 지리과 시험 과목으로 제시된 서책의 내용은 둘째 치고 서책 자체도 확인할 방도가 없긴 하지만 말이다. 조선시대로 접어들면 앞서 제기한 ‘풍수=지리’라는 논지를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근거들을 더욱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조선시대 지리과 과거시험과 관련된 내용에 주목해 보자. 국가의 기본 법령을 정리해 놓은 『경국대전』(1485년)과 『속대전』(1746년)의 지리 관련 내용 중 음양과(陰陽科)에 속하게 된 지리 분야의 과시 과목으로 『청오경(靑鳥經)』, 『금낭경(錦囊經)』, 『호순신(胡舜申)』, 『명산론(明山論)』, 『동림조담(洞林照膽)』, 『지리문정(地理門庭)』,

(5) 이에 대해서는 「이병도, 1980, 고려시대의 연구: 특히 도참사상의 발전을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를 참고 바람.

(6) 선각국사 도선(827-898)은 한국 풍수의 비조로 이야기되는 통일신라 하대의 선승이다. 고려 왕조에서는 도선 입적 후에도 그에게 계속해서 시호를 추증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시호의 추증 과정을 보면 신라 효공왕 때 내려진 도선선사(道諫禪師)에서 고려 현종이 대선사(大禪師)의 시호를 추증하였고, 다시 숙종이 왕사(王師)를, 인종 대에 이르러서는 선각국사(先覺國師)로 추증되는 것이다. 결국 도선은 고려 왕실과의 특별한 관계 맺음을 통해 고려 건국의 정당화부터 차후 고려의 풍수 체계모니 형성을 위한 주요인물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만큼 고려 왕조는 도선을 그리고 도선의 풍수를 필요로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 왕조에서의 도선의 위상은 그 후 묘청에 의해 도선 → 강정화 → 묘청 → 백수한 등의 전승체계까지 세워 도선을 한국 풍수의 비조로 생각하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한다.

『감룡(撼龍)』, 『착맥부(捉脈賦)』, 『의룡(擬龍)』 등이 있다.⁽⁷⁾ 이들 지리서 대부분은 중국의 서책들인데 현재 시점에서 소위 풍수 경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말하자면 지리전문가⁽⁸⁾가 되기 위해 필요로 되었던 지식이 다름 아닌 풍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는 구체적으로 지리학과 풍수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조선 전기의 몇몇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풍수학생(風水學生) 최양선이 상서하였다. “지리(地理)로 고찰한다면 국도 장의동 문과 관광방 동쪽 고갯길은 바로 경복궁의 좌우 팔입니다. 빌건대 길을 열지 말아서 지맥(地脈)을 온전하게 하소서.”(『태종실록』, 13년 6월 병인)

지리에 대한 서적이란 세상에 전하는 것이 희귀하고, 다만 서운관에 소장하고 있는 지리전서 몇 종과 대전 1부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지리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옛 법에 어두우면서 함부로 이해를 말하는 것은 모든 서적을 널리 상고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풍수학(風水學)이 그 관직은 있으나 아무런 실상이 없으니 실로 가탄할 일입니다. 만약 지리대전, 지리전서, 지리신서, 부령경, 천일경, 지주립 등의 여러 서적을 세상에 간행하고, 문서들로 하여금 이를 연구 해명하여 새로 진작해 일으킨다면, 풍수법이 세상에 밝게 되어 요사스런 말들이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세종실록』, 13년 1월 정축)

지리의 공부는 서운관에서 맡아 하는 것인데, 이제 집현전의 유신들에게 명하여 풍수학을 강명하게 하시어서 … (『세종실록』, 15년 7월 정축)

땅을 선택하는 데에는 모름지기 네 가지 짐승을 보는 것이운데, 이제 용(靑龍)과 범(白虎)이 갈라지기 시작한 곳이 현무의 자리이온바 …, 청룡은 …, 백호는 …, 주작은 … <중간생략> … 이것은 지리학의 크게 꺼리는 것이니(『세종실록』, 15년 7월 경진)

풍수학의 지리서를 습득하는 자들이 혹은 나이가 50, 60을 지났으며, 또 문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매우 많아서 … (『세종실록』, 24년 9월 신미)

(7) 취재(取才)에는 『경국대전』에 『청오경』·『금낭경』·『착맥부』·『지남(指南)』·『변방(辨妄)』·『의룡』·『감룡』·『명산론』·『곤감가(坤鑑歌)』·『호순신』·『지리문정』·『장중가(掌中歌)』·『지현론(至玄論)』·『낙도가(樂道歌)』·『입시가(入試歌)』·『심룡기(尋龍記)』·『이순풍(李淳風)』·『극택통서(剡澤通書)』·『동림조담』 등이 있으며, 『속대전』에는 『명산론』·『곤감가』·『장중가』·『지현론』·『낙도가』·『입시가』·『심룡기』·『이순풍』·『삼진통재(三辰通載)』·『대정수(大定數)』·『육임(六任)』·『오행정기(五行精記)』·『자미수(紫微數)』·『응천가(應天歌)』·『현홍자평(玄興子平)』·『난대묘선(蘭台妙選)』·『성명총괄(星命總括)』 등이 제시되어 있다.

(8) 조선시대 지리전문가는 풍수학인(風水學人), 풍수학생(風水學生), 풍수학관(風水學官) 또는 직위에 따라 지리학교수, 풍수학교수, 지리학훈도 등으로 불렸다.

이렇듯 지리학은 곧 풍수였고 풍수학은 곧 지리, 지리학이었던 것이다. 한 때 지리학은 천문학과 구분되는 음양학(陰陽學)으로 불리기도 했는데⁽⁹⁾ 다시 풍수학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다.⁽¹⁰⁾ 그랬다가 세조 때 다시 지리학으로 이름을 고치게 되는 것이다.⁽¹¹⁾

이러한 상황은 이후 조선말까지 지속되다가 서양 문물의 도입과 더불어 서양의 근·현대 지리학(Geography)이 소개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전통 지리학인 풍수는 그 이름조차 Geography에 내주게 된다. 소위 서양 근·현대 지리학이 정상(normal) 위상을 가지게 되면서, 동시에 곧 풍수였던 전통 지리학은 타자화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지리학이라 할 때 그것은 전통 지리학이 아닌 서양의 근·현대 지리학을 지칭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풍수는 거의 천년 이상 동안 한국의 전통지리로서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그동안 정치권력이나 지식엘리트 위주로 공유돼 오던 것이 일상적 수준으로까지 널리 퍼지게 된다. 현재 일상적 수준의 풍수에서부터 고도의 지식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풍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지도나 지명, 지리지 등과 같은 근대 이전의 지리적 구성물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풍수는 의미 있는 문화적 필터(cultural filter)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지리적 인식체계, 공간인식체계, 환경인식체계, 문화적 코드, 공간 코드, 문화적 여과장치 등 여러 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듯이 풍수는 현재의 것과 구분되는 특징적인 지리, 지리학이기 때문이다.

3. 풍수적 재현으로서 고지도 읽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수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지리적 관심사에 대해 오랫동안 공유되어 온 문화적 코드 즉 한국의 전통지리이다. 현대의 지리학이 그런 것처럼 전통 지리인 풍수도 우선 지표 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관계 짓는지와 관련된 인식론적 토대, 관심 갖는 현상의 언어적 표현인 개념, 현상들의 관계를 개념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 설명하는 이론, 그리고 그러한 제반 지리적 현상의 재현 및 해석 등 여러 구

(9) 태종 6년(1406)에는 십학을 설치하면서 천문, 지리 영역을 합쳐 음양풍수학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태종실록』, 6년 11월 신미)

(10) “육전에 천문·지리·성명·복과를 총합하여 음양학이라 하였사온데, 이제 지리를 배우는 것을 음양학이라 하고 역상·일월·성신을 맡은 자를 천문학이라 하여, 음양과 천문이 갈려서 둘이 되었사오니 매우 이치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지리를 배우는 자를 예전대로 풍수학(風水學)이라 하게 하소서.” 『세종실록』, 20년 10월 계유)

(11) “풍수학(風水學)은 지리학(地理學)으로 이름을 고쳐서 교수, 훈도 각각 하나씩을 두었다.” 『세조실록』, 12년 1월 무오)

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장에서 고지도를 풍수적 재현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풍수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풍수가 고지도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읽어보려는 해석적 시도이다.

3.1 흐름 · 순환의 생태중심적 환경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에 담아지는 현상은 지표 상의 다양한 자연 · 인문 현상이다. 지도 제작을 위한 축척이나 기호 등을 통해 실제 세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개념화한 것이냐에 따라 여러 형태의 지도로 구분되어 나타날 뿐이다. 그런데 군 · 현 단위 지도이든 전국지도이든 한국의 옛 지도들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선의 형태로 끊어짐 없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는 산줄기와 물줄기이다.(그림 7, 8) 이러한 내용은 전국적 수준에서 산줄기와 물줄기의 흐름을 정리한 『산경』이나 『수경』 같은 지리 문헌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본디 지표 상의 산이나 물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서로 이어져 있기에 그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여타의 인문적 요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뚜렷하게 산과 물의 이어짐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지도의 특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명이나 도로, 고도, 등고선 등 다양한 지도 기호나 언어적 요소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현재의 지형도를 떠올려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지형도나 영상지도를 통해 산이나 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고지도에서 가장 주된 요소로 등장하는 산과 물은 풍수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그것의 지도적 재현에서 산줄기나 물줄기가 모두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도 재현은 산이나 물을 바라보는 풍수의 관점 즉 산이나 물로 대변되는 자연 환경에 대한 풍수적 인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풍수에서의 산, 물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개념이라는 것은 단지 현상을 지칭하는 언어적 표현 이상으로 현상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7. 『동국팔역도』의 함경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8. 『해동여지도』의 금산·용담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먼저 산과 관련된 개념으로 ‘용(龍)’ 또는 ‘맥(脈)’이라는 것이 있는데,⁽¹²⁾ ‘용’이 산의 외형적 모양새와 관련해 용의 천변만화하는 다양성을 표현한 것이라면, ‘맥’은 천형만상의 용에 상응하는 그 무엇(보통 지기, 생기라고 함)이 있음을 전제로 산을 표현한 개념이다. 달리말해 용이 인간의 일차적 경험대상이 되는 산의 외형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맥은 살아 있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또한 맥이라는 표현은 ‘맥이 손상되었다’, ‘맥이 뛰지 않는다’, ‘맥이 부실하다’ 등등 살아있는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어떤 기운이 끊이지 않고 ‘운행’하고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기운이 끊이지 않고 운행을 계속할 때 ‘맥이 된다’, ‘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 순환의 통로가 어느 곳 하나 끊이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심장이 펌프질하고, 인체의 모든 부분에 혈류가 공급되고, 다시 돌아오고 할 때 인체가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풍수의 용맥 개념은 인간 삶과 직결된 산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자 했던 생태적 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과 음양론적 관계에 있는 물과 관련된 개념으로 ‘득파(得破)’라는 것이 있다.

(12) 이러한 ‘용’과 ‘맥’의 개념이 합쳐진 것이 ‘용맥(龍脈)’이다.

‘득파’는 ‘득’과 ‘파’가 합쳐진 개념이다. 먼저 ‘득’은 명당 또는 혈처⁽¹³⁾에서 볼 때 ‘처음으로 보이는 물건’ 또는 그 ‘물건이 보이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파’는 득을 통해 들어온 물건이 인간 삶터를 유장히 적신 후에 ‘빠져나가는 쪽’ 또는 그 ‘빠져 나가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를 ‘불견(不見, 보이지 않음)’이라고 하는데 비해 ‘득’을 ‘견(見, 보임)’이라고도 한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을 작동시킬 주요한 요소로서 투입되는 것(input)이 득이요, 시스템을 돌린 후 나오는 찌꺼기나 결과물(output)이 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득파 개념에 반영되어 있는 풍수적 물의 의미는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현상들을 유기체로 보고, 그것이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유동(흐름)’하고 ‘순환’해야만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나 촌락과 같은 인간 삶터에서 왜 득과 파로 대변되는 물의 흐름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삶터라는 물리적 공간조차 하나의 생명체로 유지되기 위해선 들어옴과 나감의 순환구조가 끊임없이 유지됨을 요하는 것이다. 결국 풍수에서의 물의 의미는 물(水) 자체의 실용적 필요성 외에 그것이 갖는 끊임없는 유동(흐름)과 순환, 그리고 이를 통한 온전한 생명의 유지라는 생태적 순환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산과 물을 생명체로 유지시키는 흐름과 순환의 생태적 인식은 지도 재현에서 산줄기와 물줄기를 끊어짐 없이 이어지도록 그리고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탁월하게 표현하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옛 지도는 현재의 인간중심주의와 구분되는 생태중심적 세계관의 전통 버전인 풍수의 재현물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다.

3.2 존재의 근원

고지도 중 특히 군·현 단위 지도를 보다 보면 가끔 의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보통 지도의 상단에는 북쪽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쪽 이외의 방위가 배치되어 있는 다수의 지도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북쪽을 중요시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도 상 위쪽에는 북쪽이 배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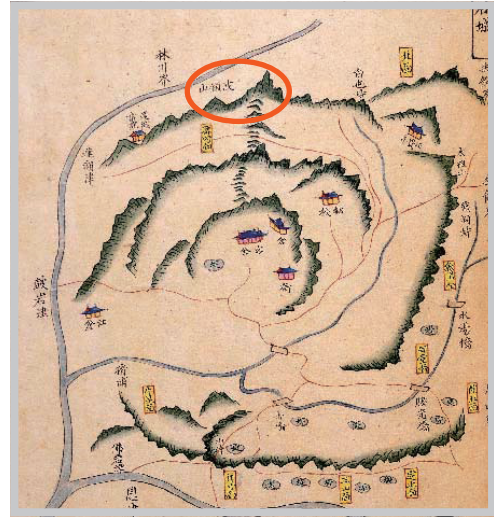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9>에서 보듯 고지도 상에서는 북쪽만이 아닌 동쪽·서쪽 어느 방위든지 지도의 위쪽에 배치되고 있다. 이렇듯 지도 위쪽에 다양한 방위가 배치되는 것은 군·현 지역의 행정 중심지인 읍치의 주산(主山)이 북쪽만이 아닌 다른 방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는 현 충청남도 지역에 속하는 조선시대

(13) 인간 삶과 관련된 다양한 규모의 장소를 풍수에서는 명당(明堂), 혈장(穴場), 혈(穴) 등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이들 표현은 밭자리, 집터, 촌락, 도시, 수도 할 것 없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군·현 중 주산이 읍치의 북쪽이 아닌 동쪽(회덕현의 계족산, 천안군의 태조봉)과 서쪽(석성현의 파진산, 한산군의 건지산)에 위치하고 있는 『해동여지도』의 일부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이런 예는 전국 수백 개 군·현 단위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해동여지도』뿐만 아니라 『해동지도』·『광여도』·『여지도서 첨부지도』·『비변사방안지도』·『1872년 지방지도』 등 수많은 고지도에서도 이런 예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회덕(계족산)



석성(파진산)



천안(태조봉)



한산(건지산)

그림 9. 주산을 지도 상단(북쪽)에 배치시킨 『해동여지도』의 각 군·현 지도(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본래 풍수상 주산 개념은 산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이해했던 풍수적 인식의 반영으로 조선 전기 국도나 왕릉, 중앙 권력층이나 지식엘리트들 사이에서 주로 언급되던 것이 조선 후기에 이르면 군·현 단위 수준에까지 널리 유행하게 된다. 조선후기 지리지인 『여지도서』에서부터 주맥(主脈) 또는 주산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¹⁴⁾

풍수에서는 용맥(산)의 계보를 조산(祖山) → 종산(宗山) → 주산(主山)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¹⁵⁾ 최종 단계에 위치한 주산은 고을의 행정중심지인 읍치를 비롯하여 마을·국도, 심지어 묘지 등 다양한 입지를 결정하는 중심 맥세로 역할한다. 즉 백두산으로부터 시작된 용맥 흐름은 ‘조산 → 종산 → 주산 → 인간 삶터’의 흐름을 통해 끊어짐 없이 전국의 산천, 인간 삶터, 인간을 하나의 몸처럼 묶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산은 근원인 조산으로부터 종산을 거쳐 주산으로 이어져 구현되는 근원의 상징물이자, 산의 흐름으로 대변되는 ‘자연’과 명당 국면으로 대변되는 ‘인간’ 영역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이해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주산은 용맥의 근원지인 조산·종산의 최종 도착점이자 인간의 장소로 유입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근원의 구현체로서 주산에 의해 품어지는 읍치나 마을·묘지·국도 등 인간 삶과 관련된 다양한 입지는 근원으로부터 그 존재의 근거를 부여 받은 특별한 장소 즉 명당 국면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근원의 상징물이자 자연-인간 간 매개체로서 조선 후기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주산의 의미가 수많은 군·현 단위 지도들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인식은 군·현 단위의 주산뿐만 아니라 보다 큰 권역의 종산, 심지어 전국 규모의 조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전국적 규모에서 볼 때 백두산은 한반도 모든 산의 근원 즉 시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를 가장 잘 재현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가 정확성의 표본으로 제시되어 온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라고 할 수 있다.(그림 10, 11) 「대동여지도」에서 백두산은 한반도 내 다른 산들의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뚜렷하게 마치 한반도 전체를 덮는 우산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14) 이에 대해서는 「권선정, 2010, “조선시대 읍치의 주산과 진산,” 문화역사지리 22(2): 50-72」 참조.

(15) 한반도 모든 산의 시조산인 백두산으로부터 각 고을 주산까지의 흐름을 인간 계보처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 「산경표」이다.



그림 10. 「동여총도」의 백두산(출처: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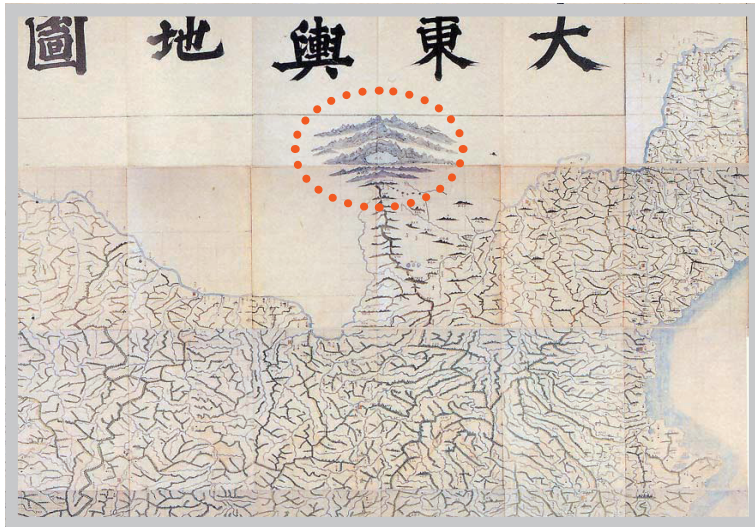


그림 11. 「대동여지도」의 백두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보통 존재의 근원이나 장소의 시원, 성스러운 상징물 등이 위치하고 있는 방위를 지도의 위쪽에 배치시키거나 다른 요소와 구별되도록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심성에 관계된다고 한다. 그럴 때 <그림 9>의 사례처럼 북쪽 이외의 방위까지도 지도 위쪽에 배치한 것이나 한반도 모든 산의 시원인 백두산을 특징적으로 표현한 것 등은 존재의 근원으로서 주산·조산에 대한 인식 곧 풍수가 얼마만큼 일상적, 보편적 수준에서 공유되고 있었는지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또 다른 고지도 읽기를 위해

지도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 상의 제 현상을 2차원 평면 위에 표현한 그림이다. 미술 공간에 같은 풍경을 보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제각각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지도도 그것이 제작되고 사용되는 시대, 사회,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도를 의미의 복합체로 보고 마치 시나 소설을 읽듯이 그 의미를 해석해 나가야 하는 ‘지도 읽기’의 대상으로 한국의 옛 지도를 접근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동안 정확성 · 객관성 · 사실성 위주로 지도를 평가했던 ‘지도 보기’의 입장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지도 제작이나 사용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들의 개인적 차원의 열정, 정보의 수집이나 기존 정보의 검토 및 실증 정도, 지도 제작 지침의 명확성 등에 따라 지도 재현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개별적 차원을 넘어 특정 시대나 지역,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던 문화적 코드의 영향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벗어나기 힘들다. 필자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였는데, 한국의 옛 지도가 많이 생산되고 통용되던 당시 문화적으로 공유되고 있던 풍수라는 공간 코드를 상징한 이유이다. 물론 풍수만이 지도 제작이나 사용에 있어서 공유되었던 문화적 코드였다는 말이 아니다. 풍수 이외에도 자민족 중심주의(유럽중심주의, 중화주의 등),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미학적 심성구조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작금의 시점에서 정확성을 주요한 잣대로 하여 고지도를 평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작업 외에 풍수나 여타의 문화적 코드, 구조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고지도 연구가 수행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가령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고지도의 경우 상당한 여백의 미가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마치 동양화의 여백처럼. 단순히 지도에 기록된 정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지도 재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다른 의도는 없었을까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풍수상 명당 국면의 구성을 위해 명당 주변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과장, 왜곡시키기까지 하는 지도 재현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의 정치적 효과를 읽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적 여과장치를 통해 한국의 옛 지도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읽어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식민지 시기 지도 분석 경성부 시가도(1911)를 중심으로

김종근 (Kim, Jong-geun)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원
jgkim76@hanmail.net

04



그림 1. 경성부 시가도

1. 서론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여러 자료 가운데 지도 자료는 별다른 주목을 받아오지 못하였다. 그나마 지도 자료가 도서관 내에서 관심을 받은 경우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서 조선시대 고지도들을 중심으로 지도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대동여지도와 관련한 전시회 개최는 지도의 가치가 재평가 되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행사이다.

물론 지도 자료는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일반적인 문헌자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과거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고 풍성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이다. 특히 일상사와 관련된 지역의 공간정보를 그 어떤 자료 보다 자세히 알려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도서관에서 소장중인 지도류에 대한 치밀한 분석 및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학계전반에서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를 위주로 21세기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분석 및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학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지도 자료 분석 및 재평가는 고지도 연구의 절정기이라 일컬어질 만큼 짧은 시간 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에 반해 일제 강점기 이후 만들어진 근대 지도류는 아직 전국적인 소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근대 지도류가 대부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정부 및 학계로부터 의식·무의식적으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6.25 사변을 겪고, 이후 가난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시기는 잊혀야만 하는 극복의 대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50여 년의 걸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고, 민족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에 따른 자신감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 암울한 시기였던 일제시대에 대한 차별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즉 우리 스스로 과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역량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시작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입장을 지닌 학자들의 등장과 20세기 말 민족주의 중심의 한국학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한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한 기존의 민족주의 사학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이와 아울러 일제시기를 단순한 '수탈론'적으로 분석한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었다. 이에 당시 통계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 탈민족주의 정서를 바탕으로 일제시기를 분석하여 현재의 발전의 시발점을 일제시기로 비정한 일단의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들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다. 즉 한반도에서는 일제시기부터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 같

은 일련의 주장은 기존의 일제시기 연구에 큰 충격을 주었고, 민족주의 계열의 학자들에게 기존의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일부 미화시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점 때문에 민족주의 학자들과 또 다른 일련의 학자군들로부터 비판을 신랄하게 받고 있다. 이들은 바로 ‘식민지 근대성’론자들인데, 일본 제국주의 치하 식민지 조선에서 있었던 일련의 변화 양상을 단순한 근대화가 아닌 ‘식민지적 근대화’로 규정하고, 이러한 식민지적 근대화가 가진 특성 즉 ‘식민지 근대성’ 분석에 초점을 맞춘 이들이다. 이들에 의한 일련의 연구 결과, 식민지 시기 한반도에서는 근대화의 움직임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민족·계층·성적 차별 및 부조리가 비정상적으로 극대화된 시기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거대한 정치 담론 분석이나 탈맥락화된 각종 통계 자료 분석 방식에서 탈피하여, 당시 각종 신문, 잡지 자료 및 구술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식민지하 현실에 대해 보다 밀착하여 분석하는 일상사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 당시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면모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20세기 말 이후 일어난 식민지 시기에 대한 폭발적인 연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료의 발굴 및 사료에 대한 디지털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일반인들조차 일제시기 신문 및 잡지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특히 신문자료의 경우 대중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할 정도로까지 자료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¹⁾

하지만 지도 자료의 경우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1:50,000 지형도만 한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원문 검색이 가능해진 상황이다.⁽²⁾ 이와 같은 학계의 일련의 양상을 감안한다면 일제시기 각종 사료에 대한 학계 및 대중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제시기 지도 자료는 접근성이 다른 문서 자료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다.⁽³⁾ 필자는 조선시대 고지도 자료의 디지털화와 아울러 식민지 시기 주요 지도 자료에 대해서도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자 및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필요성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지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23매의 식민지 시기 한반도 관련 지도 가운데, 식민도시 경성(京城)에 대한 지도는 7매 가량 존재하며, 여타 지역에 비해 그 숫자가 가장 많다. 이는 서울에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가장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던 도시였던 만큼 식민 정부의 관심이 가장 큰 곳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여러 경성 지도 가운데 1911년

(1) 네이버에서는 현재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의 기사 검색 및 원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http://newslibrary.naver.com/>)

(2) 종로도서관(<http://jongnolib.koreanhistory.or.kr/dirservice/main.do>)

(3)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근대시기 특히 일제시기 지도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및 검색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 의해 작성된 ‘경성부 시가도(京城府市街圖)’를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지도에는 한일 합방 직후 서울 중심부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현존하지 않는 지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이 지도에 기록된 지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며, 특히 학계에서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아 온 일본식 지명을 식민지적 특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제 강점기 초반 서울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식민지 시기 지도 자료의 중요성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성부 시가도’에 기록된 다양한 지명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경성부 시가도’는 지금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발간한 지도이다. 메이지 43년 즉 1910년에 요시카와(吉川五三郎)가 측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지도는 축척이 1:5,000인 대축척지도이며, 이 때문에 당시 서울 주요부의 상세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지도는 삼각측량법을 이용한 근대적인 지도이며, 아울러 근대적인 지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인 축척, 방위, 그리고 범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도이다. 특히 당시 서울을 그린 다른 지도들에서 산지를 표현할 때 주로 우모법(羽毛法)을 사용한 것과 달리, 등고선 기법으로 산지를 표현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지도 표현 방법과 동일한 방식이다. 지도 제작에는 일정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합방 당시에 이 지도가 이미 생산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한일 강제 병합 이전 시기, 특히 통감부 시기에 일제가 이미 근대적인 기법으로 서울을 세밀하게 측량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근대적 측량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이었다.⁽⁴⁾

이 지도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서울 도성 내 지역과 용산과 이어지는 남대문 밖 일대이다. 흥미로운 점은 ‘경성부 시가도’와 더불어 존재하는 ‘경성시가지도(京城市街地圖)’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지도에 용산 및 마포 일대가 그려진 지도가 존재하는 점이다. 이 두 지도는 마치 하나의 짝을 이루어 당시 서울의 도성부와 용산, 마포 지역을 묘사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지도의 제작은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서울을 도성 내 지역과 용산 그리고 마포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그리고 실제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 개편할 당시 경성부 즉 지금의 서울은 그 경계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1/8로 축소되는데, 서울 도성 내 지역과

(4) 남영우, 2011, 『일제의 한반도 측량 침략사』, 법문사.

용산지역, 그리고 마포지역만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총독부의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왜 도성 일원과 용산지역만 포함되었을까? 이는 일제의 통치 기관의 분포와 일본인 거류민의 분포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제의 주요 통치기관인 총독부와 군사령부가 각각 도성 내와 용산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울러 식민지 개혁의 첨병이었던 일본인 민간인들이 주로 이 두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성부 시가도’에는 등고선 기법을 통해 당시 서울의 자연 환경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 도로, 철도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그려 당시의 인문환경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근대화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시구개정사업(市區改定事業)’이란 도시개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이전의 모습을 복원함에 있어 본 지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경성부 시가도’는 일제 강점에 의한 식민지 근대적 도시 개조 이전에 있었던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2.1 자연지명

이제 ‘경성부 시가도’상에 기재된 지명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자. 지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측지부서가 아닌 지금의 경찰에 해당하는 경무총감부가 이 지도를 제작한 까닭에 자연지명은 이 지도 상에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이 지도 상에 나타나는 지명은 필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총 970여 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 자연지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 표에서처럼 11개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전체 지명 가운데 1%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청계천을 비롯한 하천 및 개울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그나마 주요 교통로에 해당하는 고개의 경우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1 자연지명

범주	개수	주요 지명
산	4	남산, 필운대, 인왕산, 어남산
고개	6	황토현, 이현, 인현, 종현, 전석현, 송현
연못	1	연지(蓮池)
총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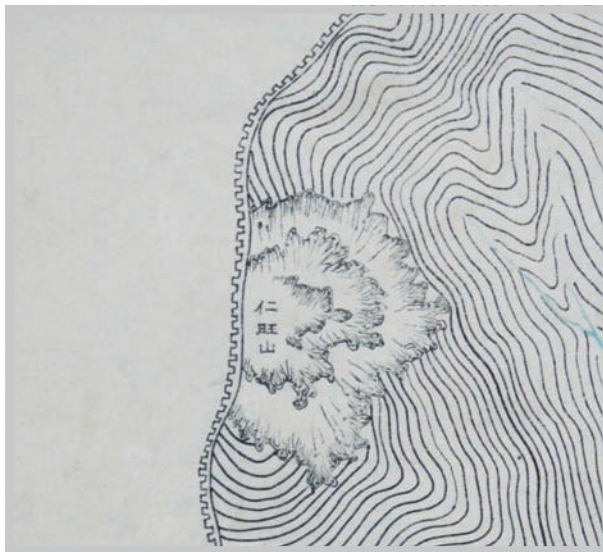


그림 2. 산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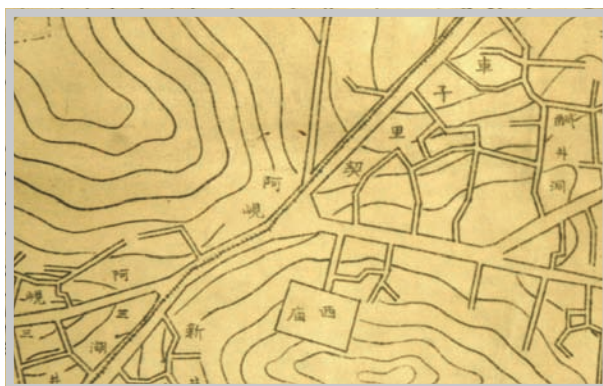


그림 3. 고개 지명



그림 4. 연못 지명

이처럼 자연지명이 극소수인 까닭은 이 지도를 제작한 곳이 당시 식민도시 경성의 치안을 담당하던 경무총감부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식민도시의 일상을 통제하던 경무총감부에게는 자연지형은 중요한 보호, 관찰 및 감시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2.2 인문지명

자연지명과 달리 인문지명은 이 지도의 대부분의 지명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970개의 지명 가운데 959개의 지명이 인문지명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지명의 99%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인문지명이 많은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도가 경무총감부에서 제작한 지도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문지명이 이 지도에 기록된 지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인문지명에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지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지도에 삽입된 인문지명은 크게 행정구역 명칭 지명(표 2), 식민통치관련 지명(표 3), 조선왕조 및 대한제국 관련 지명(표 4), 공공시설 관련 지명(표 5), 외교 시설·주요 인사·민간 단체 관련 지명(표 6), 그리고 회사 관련 지명(표 7) 등이 있다.

(1). 행정구역 명칭 지명

우선 행정구역 명칭 지명의 경우 606개가 존재하며 이는 전체 970개 지명 가운데 62%에 해당한다. 즉 이 지도 상에 기록된 지명 중 거의 2/3가 행정단위 지명, 마을 지명, 그리고 일본식 마을 지명에 해당한다.

표-2 행정구역 명칭 지명

세부범주	개수	주요 예제 지명
행정단위 지명	11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북부, 용산면, 한지면, 연희면, 동대문 분서, 동현 분서, 수문동 분서 등
마을지명	525	경구동, 냉동, 독갑동, 마분정동, 복주산계, 공덕리, 만리현, 염곡 등
일본식 마을지명	70	아마토 마찌(大和町), 히노데 마찌(日出町), 아사히 마찌(旭町), 오나리 마찌(御城町), 와이조다이(倭城臺), 하세가와 마찌(長谷川町) 등
총	606	

행정단위 지명의 경우 합방 직후 개편된 경성부의 행정구역 시스템, 즉 5부 8면제에 해당하는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5부 8면제는 서울 성곽 내부에 해당하는 중심부를 5부 즉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로 나누고 외곽지역을 8개 면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행정구역 시스템으로써 1911년 4월 1일 자로 시행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지도가 측량은 1910년에 된 것이

나, 실제 인세는 최소 1911년 4월 1일 이후에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5부제 이외에 동대문 분서, 동현 분서, 그리고 수문동 분서라는 지명이 존재하는 점이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므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5부 8면제 시스템에서 5부 아래에 존재하던 35방의 존재가 이 지도 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한성부 시기부터 존재하던 행정구역 단위 방(坊)은 경무총감부의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서울의 행정구역 체제가 상당히 복잡하였던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

행정구역 명칭 가운데 마을지명은 가장 많은 수인 526개이다. 순우리말로 ○○골에 해당하는 동(洞)이 붙은 지명이 508개이며, 이외 ○○계(契), ○○리(里), ○○곡(谷), ○○촌(村), ○○현(峴)⁽⁵⁾ 등의 지명도 마을 지명이다. 행정구역 명칭 지명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경우는 바로 일본식 마을 지명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전 세계 어느 식민지에서나 지배자 국가 및 민족을 상징하는 지명이 부여되었는데,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지명의 이식현상은 예외가 아니었고, 식민지 시기 서울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본식 지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본 지도 상에는 총 70개의 일본식 지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에서 자세하게 분석하도록 하겠다.

(2) 식민통치 관련 지명

주지하다시피 서울은 일제 강점 기간 동안 식민지 수위도시 즉 총독부와 주요 식민통치기관이 위치한 곳이었다. 따라서 식민 통치와 관련된 각종 기관들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그 상황을 ‘경성부 시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식민통치 관련 지명에는 통치기관, 군사 관련 시설, 경찰관련 시설, 감옥 관련 시설, 병원, 위생 관련 시설, 문화 관련 시설, 관사, 관저, 기타 시설 등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통치기관을 의미하는 지명으로는 대표적으로 총독부(總督府)를 들 수 있다. 1996년에 철거 완료된 조선총독부 청사는 1926년에 완공되어 그 이후로 사용된 청사이며, 경복궁 부지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기 전까지 총독부는 남산 산록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지도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총독부는 군사 관련 시설과 경찰 관련 시설 중에서 핵심시설인 헌병대 사령부와 경무총감부와 함께 남산 산록부에 위치하고 있었다.(그림 5)

(5) 고개를 의미하는 ○○현(峴)의 경우 고개임과 동시에 고개 인근의 마을 이름이 되기도 하므로 고개 이름만으로 쓰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마을 지명으로 분류하였다.

표-3 식민 통치 관련 지명

세부범주	개수	주요 예제 지명
통치기관	23	총독부, 경성부청, 경기도청, 재판소, 관세국, 중추원, 표훈원, 구락원, 경성축후소, 한국은행, 경성우편국, 농상공부, 토지조사국, 탁지부, 통신국, 경성식림묘원 등
군사 관련 시설	8	조선보병영, 육군연병장, 경성제일헌병대, 경성제이헌병분대, 군사령부 부속청사, 병기창고, 헌병대 사령부
경찰 관련 시설	8	경무총감부, 경무총감부청사, 경찰관연습소,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 동헌경찰분서, 서대문경찰분서
감옥 관련 시설	5	경성감옥서, 청파감옥서, 경성감옥서 분감, 유치감, 수인(囚人)묘지
병원	4	총독부병원, 청파피병원, 경성피병원, 신정병원
위생 관련 시설	6	진개집적장(쓰레기장), 경성도수장(도살장), 나카노신지(中之新地, 유곽), 내무부위생국위생작업실, 한성위생회
문화 관련 시설	3	박물관, 음악대, 미술품제작소
관사	21	관사, 철도국관사, 학무국관사, 재판소관사, 한국은행사택, 탁지부관사, 통신국관사 등
관저	6	총독저, 정무총감저, 군사령관저, 탁지부장관저, 학무국장관저
기타 시설	4	경성일보사, 광물분석장, 발전소, 보세창고



그림 5. 핵심 통치 기관 밀집 지구인 남산 산록부 -

총독관저를 중심으로 좌우에 총독부와 헌병대 사령부, 그리고 경무총감부가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한 통치 시설들이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감옥 관련 시설과 위생 관련 시설, 그리고 일부 병원은 도심에서 비교적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시설들은 대체로 반식민지화가 시작된 통감부 시기에 도입된 것인데, 도심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에 입지하게 된 것은 사회적 위생관념의 도입과 관련되는 현상이었다. 즉 ‘정상적’인 사람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외곽에 위치시켜 ‘정상적’인 사람과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였던 이 위생관념은 근대 서구에서 나타난 개념이었고, 서구의 근대적인 위생개념을 도입한 일제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 그 원리에 맞추어 시설들을 입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6. 위생관념의 공간화 -

감옥과 위생 관련 시설이 도심부에서 비교적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식민통치 관련 지명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항목으로는 관사와 관저를 들 수 있다. 본국에서 파견된 식민지 관료 및 관원들은 식민정부가 마련한 관저 및 관사에서 생활하였는데, 특히 관사의 경우 집단 주거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식민 통치 기관에서 근무한 이들이 대부분 일본인이었다는 점은 서울의 곳곳에 위치하고 있던 관사의 존재에서 다시

금 확인할 수 있다. 이외 경성일보사나 광물분석장 등도 식민 통치와 관련되는 지명들이다. 경성일보는 대표적인 총독부 기관지로서 일제가 패망하여 이 땅에서 물러날 때까지 조선총독부의 나팔수 역할을 한 기관이다. 광물분석장은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는 광물을 분석한 곳으로 지하자원 침탈과 관련되는 기관이다.

(3) 조선왕조 및 대한제국 관련 지명

비록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에 의해 서울은 이름이 경성(京城)으로 바뀌고, 대한제국의 수도에서 한낱 식민지 조선의 수위도시로 변하게 되었지만, 서울에는 조선왕조 및 대한제국과 관련된 시설물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을 식민지화와 함께 몰아낸 것이 아니라, 식민지 통치상 안정을 위해 ‘이 왕가’로 격하시켜 계속 존속시켰다. 따라서 대한제국 관련 시설물이나 지명은 대부분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경성부 시가도’에는 다수의 조선왕조 및 대한제국 관련 지명이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4 조선왕조 및 대한제국 관련 지명

범주	개수	주요 지명
궁	22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 육상궁, 대빈궁, 선화궁, 경우궁, 경선궁, 운현궁, 도정궁, 안왕궁 등
묘	8	대묘, 사직, 서묘, 남묘, 북묘, 대보단 등
문	19	남대문, 흥인문, 서대문, 창의문, 혜화문, 광희문, 광화문, 대한문, 흥화문, 돈화문, 흥화문 등
관공서	12	성균관, 전생서, 장흥고, 내수사, 봉상시, 장생전 등
정자	3	천연정, 대관정 등
기타시설	15	원구단, 장충단, 장충비, 독립문, 종루, 동십자각 등

조선왕조 및 대한제국 관련 시설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궁(宮)이었다. 여러 궁 가운데 5대 궁 즉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중 창경궁을 제외한 4개의 대규모 궁궐은 모두 지도 상에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창경궁의 경우 지도 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통감부 시기인 1909년에 이미 창경궁의 전각이 헐리고 그 자리에 식물원과 동물원 그리고 일본식 정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11년에는 창경궁이 공식적으로 창경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지도 상에는 비원(秘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미 공원화가 완료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그림 7)



그림 7. 공원화된 창경궁 -

북쪽에는 식물원, 남쪽에는 동물원, 그리고 가운데에는 박물관을 위치시켜 창경궁을 완벽하게 공원으로 탈바꿈을 한 양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5대궁 이외 궁으로는 조선시대에 왕을 낳은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7궁이 존재한다.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를 모신 육상궁(毓祥宮), 인조의 생부인 추존왕 원종의 생모인 인빈 김씨를 모신 저경궁(儲慶宮), 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를 모신 대빈궁(大嬪宮), 진종의 생모 정빈 이씨를 모신 연호궁(延祐宮),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를 모신 선희궁(宣禧宮)과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를 모신 경우궁(景祐宮), 그리고 영친왕 이은의 생모 순비 엄씨를 모신 덕안궁(德安宮) 등이 있다. 이 지도 상에는 7궁 가운데 육상궁과 대빈궁, 선희궁, 그리고 경우궁만 존재하는데, 저경궁과 연호궁, 경우궁의 경우 육상궁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표현되지 않았고, 덕안궁의 경우 1911년 순비 엄씨가 사망한 이후에 조성된 것이므로 표현되지 않았다. 순비 엄씨가 살던 곳은 당시 경선궁이었다. 이외 흥선대원군의 집이었던 운현궁, 덕흥대원군의 집이었던 도정궁, 순조 형의 사당이었던 완왕궁 등이 지도 상에 나타난다.

묘(廟)의 경우도 조선왕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는데, 이 지도 상에도 총 8개가 나

타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묘에는 조선왕조 왕가의 조상을 모신 종묘(宗廟, 지도 상에는 大廟로 표기됨)와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社稷)이 있다. 이외 관왕묘(關王廟)는 서묘, 동묘, 남묘, 북묘 가운데 지도 범위 밖에 존재한 동묘를 제외하고 모두 이 지도 상에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에 감사하는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든 대보단(大報壇)도 이 지도에서 존재가 확인된다.

문(門)의 경우 서울 성곽의 4대문인 가운데 남대문, 흥인문(동대문), 서대문만이 기록되어 있고, 북대문인 숙정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4소문으로는 북소문인 창의문, 동소문인 혜화문, 남소문인 광희문이 기록되어 있고, 서소문의 경우 문을 뜻하는 표시만 되어 있을 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밖의 문들은 궁궐의 대문(大門)들인데, 경복궁의 대문인 광화문, 덕수궁의 대문인 대한문, 경희궁의 대문인 흥화문, 창덕궁의 대문인 돈화문, 창경궁의 대문인 홍화문 등이 지도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각종 행정관청의 경우도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成均館), 국가 제사에 사용할 소, 양, 염소, 돼지 등을 기르던 전생서(典牲署),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인 돛자리·유둔(油苴)·지물(紙物) 등을 관리하던 장흥고(長興庫), 왕실의 쌀·베·잡화 및 노비 등의 재산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내수사(內需司), 국가의 제사 및 시호를 의론하여 정하는 일을 관장하던 봉상시(奉常寺), 공신의 도상(圖像)과 관재(棺材)인 동원비기(東園秘器: 궁궐에 쓰던 棺槨)를 보관하던 장생전(長生殿) 등이 지도 상에 표시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식민지화와 함께 모두 그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다른 공간으로 전용되기 이전이었고, 사용공간이 넓었던 관계로 지도 상에 표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의 정자(亭子)도 지도 상에 표시되고 있는데, 무악재를 오가던 관원들을 맞이하고 전송하던 연회장이었던 천연정(天然亭), 대한제국에서 서양인들을 접대하기 위한 연회장이었던 대관정(大觀亭) 등이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기타 시설물에도 다양한 시설물이 있는데,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한 원구단(圓丘壇), 임오군란·을미사변 때 순직한 충신 및 열사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장충단과 장충비,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갑오개혁 이후 자주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세운 독립문(獨立門) 등이 있다. 이외 현재의 보신각에 해당하는 종루(鐘樓), 경복궁의 동쪽 망루인 동십자각(東十字閣) 등이 지도 상에 표시되어 있다.

(4) 공공시설 관련 지명

1876년 강화도 개항 이후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기 이전 약 45년의 기간 동안 서울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도도한 근대화의 물결을 맞이하였다. 근대화는 형이상학적인 사상(思想)에서부터 물질문명(物質文明)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 근대화로 인해 서울 공간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공원이나 학교, 각종 종교 시설,

영화관, 시장, 병원, 역, 도로, 호텔 등 다양한 근대식 혹은 서구식 시설물이 전통 도시 서울에 도입되었다.

서울 최초의 근대적 공원인 파고다 공원은 1897년(광무 1)에 영국인 고문 J.M.브라운이 설계하여 공원으로 꾸며졌다. 공터로 존재하던 이곳에 공원을 설치한 것은 서구 근대적인 도시계획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산공원은 원래 왜성대 공원이란 이름으로 1897년에 일본인들에 의해 조성된 곳이며, 벚나무 600그루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양공원 또한 1910년에 남산에 문을 연 공원으로 일본 거류민단의 주도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공원은 일본인 거류지 인근에 조성된 공원들로서 일본인들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공원인 비원, 식물원, 동물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바뀌면서 조성된 공원이다.

표-5 공공시설 관련 지명

세부범주	개수	주요 예제 지명
공원	7	파고다공원, 남산공원, 한양공원, 비원, 식물원, 동물원 등
학교	48	보성학교, 이화여학교, 배화여학교, 양정의숙, 숙명여학교, 중앙학교, 휘문의숙, 총독부중학교, 히노데(日之出) 소학교, 의학교 등
종교시설	21	각황사, 정토사, 호국사, 시천교당, 정동예배당, 아소교회당, 불란서교회당 등
영화관, 극장, 가부키 공연장	6	단성사, 원각사, 가무기좌(歌舞伎座), 어성좌(御成座), 수좌(壽座), 경성좌(京城座)
시장	2	광장회사 시장, 남대문 시장
병원	3	한성병원 등
역	2	서대문 정차장, 남대문 정차장
도로	2	신작로
호텔	1	손탁호텔
다리	36	수표교, 주교, 오교, 십자교, 경교 등

근대적 교육기관인 학교(學校) 또한 다수 나타나는데 1906년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학교, 1886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Mary F. Scranton) 부인이 한 여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1887년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이화학당(梨花學堂)’이란 이름을 내린 것으로 시작된 이화여학교, 1898년 미국 남감리교 여선교사 조세핀 필 캠벨(Josephine Eaton Peel Campbell)이 창설한 학교인 배화여학교, 1905년 2월 엄주익(嚴柱益)이 창설한 양정의숙, 1906년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로부터 용동궁지(龍洞宮趾, 구 교사 대지)와 경비를 보조받아 설립한 숙명여학교, 1908년 기호(畿湖)흥학회가 창립한 기호학교와 1910년 유길준(兪吉濬)이 조직한 흥사단(興士團)에서 경영하던 사립 융희(隆熙)학교와 통합되어 만들어진 중앙학교, 1904년 9월 하정 민영휘 선생이 ‘광성의숙’을 창립하여 개교하였으며 1906년 5월 고종 황제의 칙명으로 개칭된 휘문의숙 등이 지도에 나타난다. 이러한 민족계열 학교 이외에 식

민정부가 개설한 학교들도 지도 상에 표기되어 있으며, 총독부중학교, 히노데(日之出) 소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종교 시설도 이 지도에서 다수 나타나는데 우선 불교의 경우 조선 인조 이후 300년 가까이 승려들이 4대문 안쪽으로 출입이 불가능하였다가 대한제국이 점차 일본의 영향 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4대문 내로의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한용운, 이회광 등의 노력으로 1910년 현재의 수송동 일원에 각황사(覺皇寺)를 짓게 되어 이곳에 종무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인들도 각기 불교 사원을 짓게 되었는데, 정토사(淨土寺)와 호국사(護國寺)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학의 한 계파인 시천교의 경우도 교당을 서울 시내에 가지고 있었는데, 시천교당이 그에 해당한다. 이용구가 창립한 이 종파는 손병희 계열의 천도교와 달리 한일 강제 병합에 적극 찬성한 친일 단체였다. 한편, 기독교의 경우도 여러 곳에 교회당이 존재하였는데, 1887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Appenzeller, H. G.)가 만든 뒤 증축한 정동교회가 정동예배당(貞洞禮拜堂)이라는 이름으로 지도 상에 표기되어 있고, 혜화동의 야소교회당(耶蘇教會堂)도 기독교 교회당이다. 천주교의 경우는 1898년 프랑스인 코스트(Coste) 신부가 설계하고, 파리선교회의 재정지원을 얻어 건립한 지금의 명동성당이 불란서 교회당(佛蘭西教會堂)으로 표시되어 있다.

영화는 여러 가지 근대 문물 가운데에서도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이를 상영하는 영화관은 문화적인 근대화를 몸소 체험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한일 강제 병합 당시 서울에는 다수의 영화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단성사, 원각사, 가무기좌(歌舞伎座), 어성좌(御成座), 수좌(壽座), 경성좌(京城座)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극장은 활동사진뿐만 아니라 전통연희와 일본신파극, 공연도 함께 할 수 있던 복합극장이었다. 단성사나 원각사에서서는 한국인들의 연극이, 가무기좌(歌舞伎座), 어성좌(御成座), 수좌(壽座), 경성좌(京城座) 등에서는 일본 신파극이나 가부키와 같은 일본 고전연극이 공연되었다.

시장은 과거 전통시기부터 존재하던 것이나 개화기 이후 근대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05년 배오개(梨峴)에 만들어진 광장시장 주식회사는 포목상으로 거부를 이룬 종로상인 박승직(朴承稷)·장두현(張斗鉉)·최인성(崔仁成)·김한규(金漢奎) 등이 설립하였다. 남대문 시장의 경우는 송병준이 1911년에 조선농업 주식회사를 열면서 근대적인 시장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의료 또한 근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고, 병원(病院)은 ‘근대화의 시혜’를 입어 생명을 구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서구 제국세력과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이러한 근대적 의료를 자신들의 세력확장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일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직접 병원까지 설립하였다. 그 병원이 바로 한성병원(漢城病院)이다.



그림 8. 서대문 정차장 -

경인선과 경부선의 원래 종착역은 현재 서울역이 아닌 서소문과 서대문 사이의 서대문 정차장이었다.

근대식 철도의 등장 또한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였는데, 1900년에 완공된 경인선과 1905년에 완공된 경부선, 1906년에 완공된 경의선 등으로 서울은 한반도 내에서 철도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경성부 시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철도와 관련된 지명은 서대문 정차장(西大門停車場)과 남대문 정차장(南大門停車場)이다. 현재는 경인선과 경부선이 남대문 정차장 자리에 해당하는 서울역까지 연장되어 있지만, 1910년대 초반 하더라도 종착역은 서소문과 서대문 사이의 서대문 정차장이었다.

근대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철도와 더불어 자동차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자동차는 이미 1910년대 초반 미국에서 대량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도로가 필요하였고, 일제 강점 전후로 이러한 근대식 도로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도로를 당시 신작로(新作路)라 불렀고, ‘경성부 시가도’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된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당시 도심부의 주요 도로들이 확장 및 포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들 도로에는 신작로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새로 뚫린 길에만 신작로라는 표시를 하였다. 아마도 지면상 표기하기 어려운 점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대적이기보다는 서구적인 문물로 이해될 수 있는 호텔도 이 지도 상에 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탁호텔이다. 서구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정동에 위치한 이 호텔은 1902년 세워진 서울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다. 고종이 덕수궁 옆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 근처의 정동 29번지 소재 왕실 소유의 가옥 및 토지 1,184평을 하사하고, 25개의 객실을 갖춘 2층짜리 호텔을 지어 손탁에게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손탁호텔이라고 부른

다. 당시 이 호텔은 ‘손탁양저’ 또는 ‘손탁빈관’, ‘한성빈관’이라고도 불렸다. 호텔의 1층에는 서울 최초의 커피숍이 있었는데, 서울에 사는 서양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영국수상 처칠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 호텔에 묵었고, ‘툼 소녀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인도 이 호텔에 묵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도 이 호텔에 투숙하여 조선의 대신들을 호텔로 초청하여 만났다.⁽⁶⁾

위에서 언급한 여러 시설들과 달리 서울 시내의 다리는 과거 전통시대부터 내려온 것이다. 총 36개가 ‘경성부 시가도’에서 확인되며, 대표적인 다리들로는 수표교, 주교, 오교, 십자교, 경교 등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다리들이 전통시대부터 내려온 것이기는 하나 식민지적 근대 시기에 들어서서도 그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제 또한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꼼꼼하게 지도 상에 그 이름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림 9. 청계천의 다리들

(6) 서울 근대공간 디지털 콘텐츠 (<http://modernseoul.culturecontent.com>)

(5) 외교시설, 주요인사, 민간 단체 관련 지명

1910년대 초반 당시 서울에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주요 시설물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 및 단체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기도 하였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경무총감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요 인사와 단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시설물들은 중요한 관심대상이었고, 이 때문에 ‘경성부 시가도’에도 상세히 이들이 기록되어 있다.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서울에 있던 공사관들 중 일부는 철수하였으나,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은 대부분 총영사관으로 바뀌 업무를 보고 있었다.

각국 외교 시설뿐만 아니라 한일 강제 병합에 큰 역할을 한 한국인들도 경무총감부의 주요 관심 대상에 포함되고 있었다. 지도 상에 표시된 주요 친일 인사들을 살펴보면 우선 을사조약 가운데 이완용을 비롯한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등 4명이 눈에 띈다. 이들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 모두 조선 귀족으로 작위를 수여했다. 이외에 지도에 표시된 친일 인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한일 강제 병합에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한 이들이었으며,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작위를 받은 이들이다. 다만, 의친왕 이강의 경우는 왕족 신분인 관계로 공작을 수여하였으나, 이후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작위가 박탈되었다.

표-6 외교 시설, 주요 인사, 민간단체 관련 지명

범주	세부범주	개수	주요 예제 지명
외교시설	영사관	9	불국총영사관, 독일총영사관, 영국총영사관, 미국총영사관, 청국총영사관, 노국총영사관 등
주요 인사 지명	조선 귀족 및 친일인사	23	이완용저, 박제순저, 이지용저, 이근택저, 이강공전하저, 박영효저, 이용식저, 민병석저, 민영휘저, 윤덕영저, 윤택영저, 완순군, 민병석저, 조민희저, 이기용저, 김연식저, 이재곤저, 이재극저, 이순익저, 이근택저 등
민간기구	민간단체	6	흥사단, 서북학회, 구일진회본부, 경성거류민단역소, 경성부민회 등

주요 민간단체도 경무총감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지도에까지 그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다. 유길준이 조직한 흥사단(1907-1911),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출신의 인사들이 조직한 애국 계몽 단체인 서북학회 등이 있다.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일진회의 본부는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이 조직이 해체된 이후에도 지도 상에 표시되어 있었다.



그림 10. 이완용 저택과 일진회 본부 -

좌측 상단에 旧李完用邸로 표시된 것이 이완용의 저택이고, 하단부의 旧一進會本部로 표시된 것이 일진회 본부이다. 이완용의 저택은 이곳 이외에도 두 군데 더 나타나는데, 보안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저택을 소유하고 기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진회는 한일 강제 병합 이후 해체되었고, 이곳을 송병준이 세운 조선농업주식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6) 회사 관련 지명

비교적 적은 숫자이나마 각종 회사의 존재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이다. 비록 이름은 주식회사이나 일제가 한반도에 일본인 이민자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1908년에 만든 국책회사이다. 우리 민족을 착취하고 압박하는데 앞장선 이 회사는 구릿개(銅峴) 즉 지금의 을지로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림 11. 구릿개(銅峴)에 위치한 동양척식주식회사 - 인근에 구농상공부, 활동사진관 등이 보인다.

표-7 회사 관련 지명

세부범주	개수	주요 예제 지명
회사	10	동양척식주식회사, 일한와사전기회사, 동아연초주식회사, 보성사, 조선상업은행 등
회사 사택	2	동양척식회사 사택, 동아연초주식회사 사택

일한와사전기회사는 전차, 전기, 가스 사업을 하던 회사로서, 제2대 한국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의 아들이 설립하였고, 1909년 전차의 주인이던 한미전기주식회사를 사들였다. 전기 사업을 추가하여 일한와사전기주식회사가 된 이 회사는 서울 일원의 전기, 전차, 가스 사업을 독점하였다. 위치는 종로의 종루 인근이었다. 동아연초주식회사는 일본인 상인들이 규합하여 만든 담배회사였으며, 그 위치는 배오개(梨峴)에 위치하고 있었다. 보성사는 1910년 천도교에서 세운 인쇄소이며 1919년 3.1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이다. 출판물을 인쇄할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았던 당시에는 인쇄소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었고, 이 때문에 경무총감부가 발행한 지도에 표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상업은행은 대한천일은행을 개편하여 1911년 1월에 새로 만들어진 은행이다. 이 은행은 민족계 은행의 약화와 말살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족계 은행에 대한 일본인 자본·세력의 침투·지배를 강화하고자 한 총독부 정책의 일환으로 성립되었다. 위치는 현재의 남대문로에 위치하였다. 회사의 사택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동아연초주식회사 두 곳의 사택이 지도에서 파악되는데 이 두 회사 모두 일본인들이 다수 근무한 대규모의 회사였던 까닭에 사택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식민도시 경성(京城)의 일본식 지명⁷⁾

앞의 장에서 필자는 ‘경정부 시가도’에 기록된 970여 개의 지명을 범주별로 분류하여 간단히 그 내용을 파악하여 보았다. 본 장에서는 식민지화와 관련하여 가장 상징적인 현상인 일본식 지명에 대해 지명 부여의 전후 과정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식 지명이 서울에 나타나게 된 것은 일본인 거류지가 서울에 만들어진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인이 최초로 서울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885년이고, 그 위치는 남산 남쪽의 일본 공사관 인근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내에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주민이 증가하였고, 특히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한일 합방 등과 같은 정치적 변혁기

(7) 이 장은 필자의 기존 저작물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출고, 2010, 「식민도시 경성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학연구』 38)

이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거류민의 규모가 증가하자 일본인들은 자치기구인 거류민단(居留民團)을 조성하였다. 거류민단은 지방자치정부가 행하던 일을 담당하는 조직이었으며, 거류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후 이 자금을 이용해 각종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⁸⁾

표-8 일본 거류민단이 부여한 지명 (주: 굵은 글씨 지명은 '경성부 시가도'에 기록된 지명)

행정지명	
A. 기념비적 (13개)	아마토 마찌(大和町), 히노데 마찌(日出町), 아사히 마찌(旭町), 아사히바시 토오리(旭橋通), 오나리 마찌(御城町), 와이조다이(倭城臺), 하세가와 마찌(長谷川町), 오오시마 초오(大島町), 오카자키 초오(岡崎町), 타케조에 마찌(竹添町), 후루이치 마찌(古市町), 도우호우 마찌(同胞町), 가이센 마찌(凱旋町),
B. 일본 기원 (56개)	쿄오 마찌(京町), 타니 초오(谷町), 니시키 마찌(錦町), 요시노 마찌(吉野町), 오오이 마찌(大井町), 히가시야나기 마찌(倭柳町), 시노노메 초오(東雲町), 히가시 초오(東町), 야나기 초오(柳町), 미도리 초오(緑町), 우메 마찌(梅町), 우메다 초오(梅田町), 시로쿠 마찌(白駟町), 혼 마찌(本町), 호오라이 마찌(蓬萊町), 하마 초오(濱町), 아마테 초오(山手町), 아마시타 초오(山下町), 산카쿠 초오(三角町), 미사카 토오리(三坂通), 아이아이 초오(相生町), 아케보노 초오(曙町), 코마츠 토오리(小松通), 스이도 초오(水道町), 신바시 토오리(新橋通), 신메이 초오(新明町), 신 마찌(新町), 카부 초오(兜町), 사쿠라다 초오(櫻田町), 사쿠라이 초오(櫻井町), 사쿠라 초오(櫻町), 와카마츠 초오(若松町), 와카쿠사 마찌(藥草町), 사카에 마찌(榮町), 타마이 초오(玉井町), 카와라 마찌(瓦町), 하로로초 초오(羽衣町), 쿠오미야 초오(雲宮町), 모토 마찌(元町), 후타바 초오(二葉町), 나가하시 토오리(長橋通), 타 마찌(田町), 하야가와 초오(早川町), 미나토 마찌(湊町), 타케조초 초오(竹園町), 나카마찌(仲町), 시미즈 마찌(清水町), 아오바 초오(青葉町), 하쓰네 마찌(初音町), 이와이 마찌(祝町), 사이와이 초오(幸町), 모미지 초오(紅葉町), 하나조노 초오(花園町), 이즈미 마찌(和泉町), 하나사키 초오(花咲町)
C. 일본화 (8개)	코토부키 마찌(壽町), 카츠라기 초오(桂木町), 차야 마찌(茶屋町), 모모야마 초오(桃山町), 메이지 초오(明治町), 에이라쿠 초오(永樂町), 코가네 마찌(黃金町), 하야시 마찌(林町)
D. 기타 (인문, 자연 지형 지물 및 과거 한국 식 지명 이용) (37개)	난잔 초오(南山町), 난잔시타 초오(南山下町), 오이마츠 초오(老松町), 히로가와 초오(廣川町), 카와바타 초오(川端町), 시라하마 초오(白濱町), 호우잔 초오(芳山町), 칸코 토오리(漢江通), 요네쿠라 마찌(米倉町), 키타요네쿠라 마찌(北米倉町), 켄슌몬 토오리(建春門通), 코요미몬 토오리(光熙門通), 난다이몬 토오리(南大門通), 사이다이몬 토오리(西大門通), 토오다이몬 토오리(東大門通), 도쿠리츠몬 토오리(獨立門通), 돈카몬마에 토오리(敦化門前通), 돈카몬요코 토오리(敦化門橫通), 야카이시몬 토오리(昭義門通), 코오카몬마에 토오리(光化門前通), 다이칸몬마에 토오리(大漢門前通), 케이와몬 토오리(惠化門通), 킨세이바시 토오리(禁濤橋通), 스이호오바시 토오리(水標橋通), 코오바시 토오리(黃橋通), 후나바시 마찌(舟橋町), 료잔에키코오나이(龍山驛構內), 히가시 시케마찌(東四軒町), 니시시케마찌(西四軒町), 쇼로 토오리(鐘路通), 타이헤이 토오리(太平通) 다이안 초오(大安町), 비와 초오(琵琶町), 카사이 마찌(笠井町), 이초오 마찌(銀杏町), 아오이시 초오(靑石町), 모토지 초오(元寺町)

일본 거류민단은 1901년 기준에 사용하던 대한제국 정부의 행정구역 시스템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행정구역 및 지명을 도입하였다. 우편배달 편의를 표면상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

(8) 졸고, 2003, 「서울 중심부 일본인 시가지 확산 - 개화기에서 일제 강점 전반기까지」 『서울학연구』 20.

적으로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하고 일본식 지명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시키기 위함이었다. 1901년에 일본인 거류민단이 부여한 지명의 개수는 34개였으나 거류민 규모의 확대에 따른 주거지 확산에 따라 1904년과 1907년 그리고 1910년에 추가로 부여되어 최종 114개의 지명이 부여되었다.⁽⁹⁾ 그리고 그 내역은 표 8과 같다.

표에 기재된 지명들 가운데 굵은 글씨로 표시된 지명은 ‘경성부 시가도’에 기록된 지명이고, 이외의 지명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지도 상에 이 지명들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되는데, 첫째, ‘경성부 시가도’의 범위 밖에 위치한 지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용산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주둔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용산에는 다수의 일본식 지명이 부여되고 있었으나 ‘경성부 시가도’에서는 용산지역이 제외되고 있었으므로 지명이 표시되지 않았다. 둘째, 1910년에 추가로 부여된 지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경성부 시가도’는 비록 1911년 상황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1910년에 거류민단이 부여한 지명은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무총감부에서 발행한 지도의 목적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명을 새로 부여한 상황이라 제대로 지명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이미 한국식 지명이 존재하고 있던 곳들이라 기존 지명이 더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12. 남산 산록 일대의 일본식 지명들 -

충독부 인근의 일본인 거류지에 부여된 지명들인 혼마찌(本町), 히노데마찌(日出町), 아사히마찌(旭町), 코토부키마찌(壽町), 난잔쵸오(南山町), 아케보노쵸오(曙町) 등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京城府, 1934, 『京城府史』 권2, 726쪽, 826쪽.

이와 같은 일본 거류민단이 부여한 지명들은 작명과정이나 유래, 의미 등을 감안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즉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지명, 일본 내 사용되던 지명, 기존 한국식 지명을 일본식으로 변형시킨 지명, 그리고 인근의 지형지물의 명칭을 사용한 지명 등이 있다.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지명을 들 수 있으며 총 13개의 지명이 존재한다.(유형 A) 세부적으로 일본 내지 일본 제국을 상징하는 지명, 식민지화와 관련된 인물의 이름, 그리고 거류민단의 존재를 상징하는 명칭 등이 있다. 우선 일본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일본을 의미하는 아마토(大和)라는 이름을 붙인 아마토 마찌(大和町), 일본을 상징하는 ‘해가 뜨는 곳’이란 의미의 지명인 히노데 마찌(日出町)와 아사히 마찌(旭町), 후일 다이쇼 황제가 된 황태자의 방문과 관련된 오나리 마찌(御城町), 과거 임진왜란 시기 일본군 장수들이 진을 친 곳으로 알려진 와이조다이(倭城臺) 등이 있다. 식민지화와 관련된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는 군인이나 관료 등의 이름인데, 구체적으로 러일전쟁 당시 한반도에 진주한 한국 주차군(駐劄軍) 사령관 출신으로 후일 조선총독부 제2대 총독을 지낸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의 이름을 딴 하세가와 마찌(長谷川町), 러일전쟁 후 주둔군 사령관인 오카자키 세이조우(岡崎生三)의 이름을 딴 오카자키 초오(岡崎町), 갑신정변 당시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의 이름을 딴 다케조에 마찌(竹添町), 초대 철도국 관리국장으로 경부선 철도 설계를 맡았던 공학박사 후루이치 코우이(古市公威)의 이름을 딴 후루이치 마찌(古市町) 등이 있다.⁽¹⁰⁾ 무력과 철도는 일본 제국주의 확대의 선봉에 섰던 것들이었고, 따라서 일제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이러한 무력과 철도에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지명으로 표상화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확대를 기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둘째, 본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그대로 옮겨 온 사례가 있다.(유형 B) 전체 114개 지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56개 지명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이미 본국에서 사용하던 익숙한 지명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지명을 부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일본인의 거주를 상징하여 한국인 마을과 구별되는 이미지를 생산해내고, 대내적으로는 본국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도록 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강화하고자 하였다. 도시 내 중심부에 주로 명명된 혼마찌(本町)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한국의 지명을 일본풍으로 바꾼 지명이 있다.(유형 C) 주동(鑄洞)의 주(鑄)자에서 쇠금변을 댄 수(寿)자를 사용한 코토부키 마찌(壽町)로, 계동(桂洞)의 계(桂)자를 이용한 카츠라기 초오(桂木町)로, 다동(茶洞)을 차야 마찌(茶屋町)로, 명동(明洞)을 메이지 초오(明治町)로 변경한 사례나, 영희전(永禧殿)에서 영(永)자를 따와 만든 에이라쿠 초오(永樂町), 동현(銅峴)에서 금(金)자를 딴 코가네 마찌(黄金町), 산림동(山林洞)을 변형한 하야시

(10)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권, 536~540쪽.

마찌(林町) 등의 사례는 기존의 한국식 지명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일본식 지명이다.⁽¹¹⁾ 이들 지명은 비록 기원은 한국에 존재한 지명이나 시설물의 이름 등이지만, 모두 일본식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일본 제국을 상징하는 지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내에 존재하던 산이나 나무, 하천변, 강변 백사장 등의 지형지물과 창고나 문, 그리고 다리 등의 인공 시설물에서 이름을 따온 지명과 한국식 지명을 변형 없이 마찌·쵸오(町)나 토오리(通)를 붙여 사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유형 D) 예를 들자면, 남산 이름을 딴 난잔 쵸오(南山町), 오래된 소나무를 뜻하는 오이마츠 쵸오(老松町), 개천을 뜻하는 히로가와 쵸오(廣川町)와 하천의 하단부를 의미하는 카와바타 쵸오(川端町), 청계천 토사로 조산(造山)한 곳에서 꽃이 피었다하여 붙은 호우잔 쵸오(芳山町), 한강으로 향하는 도로라는 의미에서 붙은 칸코오 토오리(漢江通) 등은 자연 지형에서 유래한 지명들이다. 반대로 선형청창고가 있던 곳의 요네쿠라 마찌(米倉町)와 키타요네쿠라 마찌(北米倉町), 궁문과 성문의 이름을 딴 켄순문 토오리(建春門通), 코오키문 토오리(光熙門通), 난다이문 토오리(南大門通), 사이다이문 토오리(西大門通), 토오다이문 토오리(東大門通), 도쿠리츠문 토오리(獨立門通), 돈카몬마에 토오리(敦化門前通), 돈카몬요코 토오리(敦化門橫通), 아키요시문 토오리(昭義門通), 코오카몬마에 토오리(光化門前通), 다이칸몬마에 토오리(大漢門前通), 케이과몬 토오리(惠化門通), 교량 이름을 딴 킨세이바시 토오리(禁淸橋通), 스이효오바시 토오리(水標橋通), 코오바시 토오리(黃橋通), 후나바시 마찌(舟橋町) 등은 인공 시설물 이름이 지명화된 것이다. 이밖에 일본군 관사와 관련된 히가시시케 마찌(東四軒町), 니시시케 마찌(西四軒町), 도로명에서 유래한 쇼로 토오리(鐘路通)와 타이헤이 토오리(太平通) 등도 이에 해당한다.⁽¹²⁾ 한국식 행정구역명 뒤에 행정구역 단위명인 町만을 붙인 사례는 다이안 쵸오(大安町), 비와 쵸오(琵琶町), 카사이 마찌(笠井町), 이쵸오 마찌(銀杏町), 아오이시 쵸오(靑石町), 모토지 쵸오(元寺町) 등이 있다.

일본인 거류민단이 위와 같이 부여한 지명들은 京城府의 전체 행정 구역 중에서 도심에 해당하는 5부 지역 및 용산면 일대에 집중적으로 부여되어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는 부여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 거류민단의 관할 구역이 이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본식 지명의 부여는 서울에서의 일본인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적극 반영되어 부여되었다. 그리고 1936년에는 서울의 모든 동(洞)명칭이 마찌 혹은 쵸(町)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식 지명의 부여 및 확산은 일제 강점기 동안 한반도 내 주요 도시들에서 다수 일어난 현상이었고, 1945년 일제 패망에 따른 해방으로 일본인들이 물러난 뒤에서야 서울의 지도 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11)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권, 536-540쪽.

(12) 藤村徳一 編, 1927, 『居留民之昔物語』, 朝鮮二昔會, (가와무라 미나토, 2004, 『瀾陽·京城·서울을 걷다』, 다인아트, 69쪽에서 재인용)

4. 결론

이 글에서는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발행한 ‘경성부 시가도’에 기록된 지명을 살펴보았다. 지금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경무총감부에서 제작한 지도인 까닭에 지도 상에 기재된 거의 대부분의 지명은 인문지명이었고, 그중 대부분은 행정지명 및 식민 통치 관련 지명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조선 왕조 및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진 각종 시설물의 위치 또한 이 지도 상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시 각종 공공, 문화시설의 존재와 위치를 지도 상에서 발견 가능하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식민지 경찰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했던 친일 조선 귀족들의 자택이 지도 상에 상세히 기록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다른 어느 지명보다도 경성(京城)이 식민지 도시임을 알 수 있게 해 준 것은 바로 일본식 지명의 존재였다. 일본 제국을 상징하는 각종 지명이 강제 병합 이전부터 일상의 영역으로 발 빠르게 파고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이 단순히 무력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 주는 점일 것이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뼈아픈 역사이지만, 다시금 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덮어버리기 보다는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일제 강점기 일본식 지명의 존재는 잊혀야 할 역사라기보다는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는 역사의 한 단면일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처럼 학계나 일반인들의 주목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의 사료로서의 중요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본다. 비록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지도가 아니라 식민지 통치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한계점은 명확하나 이러한 한계점은 민족주의 계열 학자들에 의해 이미 발굴되고 분석된 자료들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히려 통치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분석이 흔치 않은 이 시점에서 조선총독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간한 지도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연구들이 제공하지 못한 식민도시 경성(京城)과 식민지 조선(朝鮮)의 새롭고 다양한 측면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식민지 시기 다양한 지도들을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화된 자료로 손쉽게 볼 수 있는 날이 빠른 시일에 오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민동미 (Min, Dong Mi)
국립중앙도서관 주제정보과 지도자료실 사서
magic021@korea.kr

일상과 지리를 연결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지도자료실

05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지도·지리정보원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통해 관련 연구자들의 조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지리정보의 종합적인 정보제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 11월 25일 지도자료실을 개설하였다.



그림 1. 지도자료실 개실식

현행지도 및 고지도는 도서관·박물관 등에서 꾸준히 수집·소장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이를 체계적으로 중점 서비스하는 곳이 없어 동해, 독도, 간도 등 영토, 영해 관련 사안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국내외 지도의 자원 공유를 위한 연계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적 요구에 의해 지도자료실 설치계획이 시작되었다.

지도자료실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도서관의 지도자료실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국내 지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아 지도자료실을 준비하였으며, 고지도 목록정보 공유 및 원문DB 연계를 위해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등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주요기관과 국내외 고지도 자원 공유를 위한 연계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고지도 목록정보와 원문DB는 지도자료실 홈페이지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24개 기관의 고지도 목록DB 1,030건과 원문DB 499건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지도자료실은 521.20㎡(열람석 48석)의 규모의 자료실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9만여 건의 지도 관련 자료 중 28,000점의 지도와 지리 관련 도서 8,500여 책 등 36,500여 점이 비치되어 있으며, 자료실의 공간을 낱장지도 이용공간과 지역별 여행안내서 등 지도·지리 관련 일반도서를 이용하는 열람코너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관심분야에 따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 2. 지도자료실 내부



그림 3. 지도자료실 내부

자료실 내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보물급 고지도 『목장지도』와 미의회도서관에서 영인해 온 한국 관련 고지도 등 3,500여 면의 고지도를 디지털이미지로 구축하여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도 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심을 유발하여 이용자층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그림 4. 지도자료 디지털 콘텐츠 시연

지도자료실 개설행사에는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류우익 세계지리학회연합회(IGU) 사무총장, 김정수 국토지리정보원장, 이은철 한국도서관협회장, 권용우 대한지리학회장, 김혜정 경희대 혜정박물관장 등 지리학계와 도서관계, 박물관계에서 참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지도자료실 개실을 축하하였다. 참석하신 외빈과 함께 개실기념 특별전시를 관람하였으며, 특별 전시를 통해 우리도서관 소장 보물지도의 문화재적·자료적 가치를 홍보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그림 5. 개실기념 특별전시 관람

표-1 전시자료목록

번호	자료명	편저자	판종	수량	발행년	크기(cm)	청구기호
1	大東輿地圖추정	김정호	필사본	18첩	1853-1857년	31.1×25.6	古朝61-1
2	大東輿地全圖	김정호	목판본	22첩	1861년	30.4×20.0	古朝61-2
3	大東地志	김정호	필사본	15책	1861-1866년	27.5×14.9	古0235-2
4	牧場地圖	허목	필사본	22장	1678년	44.8×30.0	古朝80-32
5	輿地圖	미상	필사본	6책	1700년대 전반	36.5×33.7	古朝61-3
6	靑邱圖	김정호	필사본	2책	1846년 이후	35.2×23.2	古朝61-80
7	八道地圖	미상 (원본: 신경준)	필사본	8책	1838년 이후	25.8×21.7	古朝61-21
8	海東輿地圖	미상	필사본	3책	1821년 이후	43.0×22.3	古2107-36

※개실기념 특별전시는 도서관연구소에서 주관하였음.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고지도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지도자료실 개실을 기념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고지도의 학술적 가치”라는 주제로 2009년 11월 27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고지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국가지정문화재 고지도 4종을 중심으로 다른 기관에 소장된 고지도와의 학술적 가치를 비교 연구한 것으로 각 주제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목장지도〉

정은주 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장지도』의 제작 경위와 화풍”이라는 주제로 〈목장지도〉와 부산대본 〈정색도〉의 제작 경위와 제작 시기를 지도의 지지(地

誌) 내용과 마정(馬政) 관련 사료연구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목장지도〉와 〈정색도〉⁽¹⁾의 구성과 제작시기에 대해 〈목장지도〉와 〈정색도〉의 제3면부터 제35면 지도 위 지지 내용을 표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목장지도》와 《정색도》 두 자료의 목장 수는 물론 목장에 鎭을 설치하거나 移屬, 廢場된 목장이 모두 62곳으로 일치되는 것을 보여주어 제작시기의 차이가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부산대학교 도서관 《정색도》의 제작 시기를 《정색도》 제5면 仁川府의 紫燕島에 대한 주기 “庚申閏八月 移屬 御營廳”에서 경신년은 1680년(숙종 6)에 해당하는 시기로 1680년을 상한으로, 평안도와 황해도, 백령도 등의 정황을 비교하여 1684년 이전의 목장 상황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며 제작시기를 1684년 이전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7. 〈해동여지도〉, 〈해동여지도〉 경상도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과 『해동여지도』”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장상훈 연구관이 〈해동여지도〉 계열의 방안식 군현지도가 조선 지도학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국 330여 각 군현의 지도를 한 데 모은 군현지도집인 〈해동여지도〉가 1770년 신경준이 제작한 20리 방안식 군현지도 계열에 뒤이어 등장한 새로운 계열의 20리 방안식 군현지도이며, 18세기 후반 방안식 군현지도를 비롯하여 대축척의 도별도와 전도 등이 수요에 따라 함께 제작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의 내용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작업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해동여지도〉이었음을 도판을 통해 비교 확인할 수 있다. 20리 방안식 군현지도가 다른 유형의 지도에 비해 상세하고 정확한 수정작업에 보다 적합한 매체였음을 보

(1) 《목장지도》와 《정색도》는 2008년 문화재청 고지도 일괄 조사에 의해 국가보물(제1595-1·2)로 지정되었다.

여준다. 〈해동여지도〉가 전국 단위의 경선과 위선 조직을 기반으로 작성된 지도이지만, 종래의 군현지도 제작 전통 또한 강고하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군현 단위로 제작되던 군현지도의 전통을 계승한 결과, 인접 군현과의 경계지역 등에서는 개별 군현마다 서로 다른 지리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어 〈해동여지도〉가 이러한 군현지도 나름의 전통을 잇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판1. 동국지도 3(대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판1. 조선지도(대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도판1. 해동여지도(대구·현풍)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8. 도판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고서전문원은 “『청구도』이본 4개 유형의 지도적 특징과 변화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를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청구도》 2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도》 4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요람》 2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도》 2책을 대상으로 4개 유형의 특징을 《청구도》이본 4개 유형의 분류안(표)을 통해 청구도제, 범례, 산표현, 팔도분표, 도곽 등을 비교하며, 유형별 도판과 함께 특징과 변화를 비교하여 발표했다.

또한 《청구도》의 지도적 특징과 변화를 찾아보기(색인) 기능이나 제책 방법과 같이 지속적인 개선의 방향성과 기호의 사용이나 새로운 정보의 첨가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 등 일정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통해 그 속에 담겨 있는 김정호의 고민으로 이해하며 풀어냈다. 《청구도》이본 4개의 유형 중 “어느 것이 가장 우수한가”, 또는 “점점 발전했을 것이다”와 같은 관점으로는 김정호의 고민을 이해하기 어려움을 설명하며, 김정호가 지도에 수록된 기본 정보에서는 이전 지도의 것을 재편집하였을 뿐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청구도》를 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용자

들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과, 동일 계통의 이전 지도에 없으면 서도 이용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 첨가해야 할 정보의 종류에 대한 선택이었으며, 이러한 개선과 선택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반영된 작품이 목판본 《대동여지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림 9. 〈청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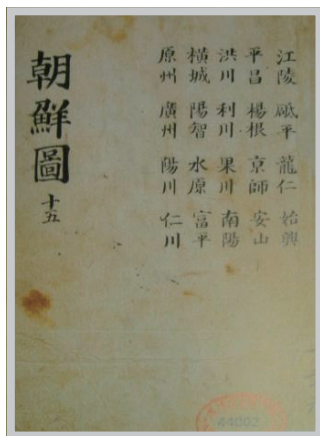


그림 10. 〈조선도〉



그림 11. 〈팔도분표〉

포스터 발표는 배우성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사학과)의 진행으로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원본 크기의 복제본과 사본 등을 전시하고, 규장각, 국립도서관을 비롯해 국내 여러 공공도서관에 다양한 사본들이 전하고 있으나 보물로 지정된 두 지도는 화원의 솜씨가 분명한 색채와 사자관의 글씨가 분명한 필치 등이 관찬지도였음을 설명했다.

개실기념 학술대회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보물급 고지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에는 국내에서 서양 고지도를 가장 많이 소장한 고지도 전문박물관인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지도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자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5월 31일 협약 체결과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 5층 로비에 고지도 상설전시관을 개관하였으며, “서양 고지도와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형태 변화와 동해, 울릉도/독도, 북방영토/간도, 제주도 등의 표기의 변천을 고지도 전시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영토 및 역사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림 12. 개실기념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그림 13. 국립중앙도서관 · 경희대 혜정박물관 업무교류 협정 체결

고지도 상설 전시관을 통해 처음 소개된 전시는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이다.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양 고지도 중 우리나라가 그려진 16~20세기 지도 20점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나라-대한민국 KOREA’, ‘우리나라, 우리땅-독도’ 등 4개의 소주제 코너로 구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한 번 보고 끝나는 전시가 아닌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유용한 지식이 되는 전시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그림 14. 2010 고지도상설전시관 개관



그림 15. 2010 전시 관람

9월 독서의 달에는 지리학 강의를 통해 지리학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리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쉽게 이해하는 지리학 강좌」를 개최하였다. 성신여대 양보경 교수의 강의로 뛰어난 지도제작자이자 지리전문가인 고산자 김정호의 삶과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11월에는 지도자료실 개실 1주년을 맞아 “지도로 읽는 더 큰 세상”이라는 주제로 전공연구자와 일반인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를 통해 연구자는 지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일반인은 지리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지리학은 지도 · 지리 · 지형학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의학, 군사학,

관광학 등 여러 학문이 결합되어 나오는 다양한 주제의 학문이며 여러 가지 형태로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연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리학자이며 아일랜드에서 1년을 보내며 느낀 여행기를 책으로 출간한 이승호 교수(건국대 지리학과)의 “지도와 여행: 녹색의 땅, 역동적 아이리시”라는 주제로 여행이나 답사에서 지도의 역할, 우리나라 지도제작법과 기술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사진자료를 통해 단순히 아름다운 풍광이 아니라 지리학, 지질학과 연결한 설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었다.

“지도와 전쟁: 지도 위의 전쟁, 지도 이전의 전쟁”에서는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류호상 연구원이 지도가 전쟁에 끼친 영향에 대해 고전 『삼국지』의 일화를 예로 들어 지리정보가 전쟁과 통치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도와 전쟁의 관계를 ‘선전의 도구’로서 지도의 역할과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추출하는 ‘정보무기’로서 지도의 역할 등 2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가 전쟁의 정당성 투쟁과정에서 선전선동의 도구, 여론 환기의 도구로 활용된 사례(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선전전과 미국의 지도를 이용한 여론 결집)와 전쟁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담은 지도에 대한 요구와 지도화 기술이 전쟁전략과 기술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도표를 통해 잘 보여주었다. 전쟁 중에 습득된 새로운 기술(기반암, 고도정보, 항공사진 등)이 민간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지도와 전쟁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통찰이 있을 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증진됨을 강조하였다.



그림 16. 개실1주년 기념세미나 <지도와 전쟁>

최진무 교수(상명대학교 지리학과)는 “지도와 역학(疫學): 지리정보를 이용한 질병 분포 지도와 보건지리학”에 대해 발표하며, 지리학 분야의 한 갈래인 보건지리학 분야에서 지역별 질병 유형이 다뤄지고 있으며, 지리정보학의 출현과 발달로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 분석 결과가 지도로 쉽게 표출되면서 그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오늘날의 독감분포도를 통해 전염병은 지역별로 발생과 확산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 공간적 이동 네트워크(인간 이동의 경로)에 따라 모든 국가에 쉽게 확산되는 세계적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대 질병은 지역적 특징(개발도상국의 전염병, 선진국 만성질환의 문제)에 따라 발생하며 종류와 공간분포가 동일 지역 내에서도 소득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상호 비교·검토를 통해 적절한 치료전략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지구 환경의 변화로 열대지역의 전염병이 온대지역으로 확산되는 등 질병의 발생과 확산에서 기존과 다른 양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공간분석을 통한 보건지리학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림 17. 개실 1주년 기념세미나 <지도와 역학>

세미나에 참석한 연구자와 일반인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는 지리적 현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연구로 이어지기 바라며, 지리학 분야의 새로운 주제 발굴과 관련 연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세미나를 개최해달라는 의견을 주었다.

2011년에는 지도자료실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에게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와 강좌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지도자료실 홈페이지를 통해 지리학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계 행사와 지리학 칼럼을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전시실과 지도자료실을 연계한 자료이용으로 우리나라의 영토 관련 지도 및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한 역사 교육공간으로 구성한 고지도 전시관에는 “영원한 우리바다 - 동해”를 주제로

2월 14일 고지도 특별전시를 시작하였다.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 속의 동해의 모습을 보고 동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왜곡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작된 고지도 속의 동해는 16~17세기에는 “동방해”, “동양해”로 불렸고, 18~19세기 중반에는 “코리아해” 또는 “코리아만”으로 표기되었다. “일본해”라는 표기는 18세기 후반부터 등장하여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확장되는 19세기에 그 수가 점차 늘어났는데, 전시를 통해 이를 연대별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동해가 표기된 서양 고지도 20점을 4개의 소주제로 구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전시되는 고지도에 QR코드를 부여하여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스캔하면 고지도의 상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도입하고, 아이패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독도의 모습을 통해 동해의 역사적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8. “영원한 우리바다 동해” 전시실

지리학강좌 “동해지키기 그 첫걸음”은 “영원한 우리바다 동해”전과 연계하여 전시와 강좌를 통해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제별로 기획된 고지도를 전문 강사와 함께 둘러보며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다.

“동해지키기 그 첫걸음”은 3강으로 구성하여 심정보 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이 “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일본해 지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한국고지도, 서양고지도, 일본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해역의 다양한 명칭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 조사국의 견해차 등을 설명하고 동해 지명이 토속지명에 해당하고, 일본해 지명이 외래지명 또는 추인지명에 해당함을 여러 근거를 사례로 설명하였다. 또한 심정보 연구원은 서양과 일본에서 제작된 고지도에서 동해 해역이 동해/한국해, 한국해/일본해 등으로 병기된 다양한 사례를 들며 현재 한국이 제기하고 있는 토속지명 우선의 원칙 또는 동해/일본해 지명의 병기가 합리적인 주장임을 전시와 강좌를 통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그림 19. 동해지키기 그 첫걸음 1강 강연

제2강 “서양 고지도에서 동해를 찾다”에서는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의 김혜정 관장이 고지도가 우리나라와 주변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열쇠이며 당대의 문화적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 지식의 발달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고지도를 통해 한·중 간에 일어나는 간도 및 북방영토에 대한 문제,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동해 및 독도에 대한 문제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더 큰 틀에서 동해를 말하기 바라며, EAST SEA가 아닌 토속지명 그대로 DONG-HAE로 표기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고지도·고문헌 속의 우산도를 왜 독도라 말해야 되는가”는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고서전 문원이 조선시대의 지도와 지리지 등 고문헌자료 등의 기록을 근거로 독도가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의 영토였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화 시대인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역사

현상을 이해할 때 단순히 감정적 차원을 넘어 논리적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어야 세계인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적인 분쟁이 꼭 논리적으로만 해결되지 않지만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할 때 더욱 설득적일 수 있으니 고문헌 속의 기록을 통해 우산도와 독도의 다양한 명칭과 표기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의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을 갖기를 당부하며 강좌를 마무리하였다.



그림 20. 동해지킴이 그 첫걸음 3강 강연

전시와 강좌가 연계되어 1회성이 아닌 연강의 형태로 진행된 강좌를 통해 고지도에 담긴 예술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동해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지도자료실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과정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립중앙도서관 지도자료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도·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실로 설치되어 다양한 지리정보를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실을 운영하는 사서는 지도·지리분야 장서를 수집하여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수집된 자료를 좀 더 쉽게 제공하기 위해 책자형 목록(날장지도 및 영인본 고지도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참고정보원 개발 및 보완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자료실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도들을 했다면, 이제는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연구자 및 일반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지도자료실에서는 지리, 측량, 토목 등 관련 연구자 및 학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학과에 산재되어 있는 항공사진, 지질도, 지형도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장되는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지도의 형태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년 도서관 기획대담 김정호의 일생과 그의 저작 (2011. 11. 07.)

06

사회: 이기봉 고서전문원 / 패널: 김기혁 교수, 배우성 교수, 양윤정 박사, 이태호 교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11년부터 새로운 기획 하에 매호별 주제를 선정하여 『도서관』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호의 주제는 대동여지도 간행 150주년을 기념하여 ‘고지도’로 선정했고 주제와 관련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논고와 전문가들의 기획대담을 개최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기획대담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이기봉 고서전문원의 사회로 2011년 11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었다. 패널로는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김기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배우성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양윤정 박사,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이태호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기봉 안녕하세요. 이번 기획대담 사회를 맡게 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서전문원 이기봉입니다.

먼저 “김정호의 일생과 그의 저작”이라는 기획대담에 참석해주신 명지대학교 이태호 교수님, 부산대학교 김기혁 교수님, 서울시립대학교 배우성 교수님, 성신여자대학교 양윤정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간행 15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행사 및 전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김정호의 꿈, 대동여지도의 탄생”이라는 전시회가 있었고, 학술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김정호의 삶과 그의 작품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호의 삶과 그의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면서 미래의 연구 방향과 현대인의 삶에 주는 메시지 등에 대한 다수 연구자의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가 간행하는 잡지인 『도서관』에서 이번에 고지도 특집을 기획하였고, 그 일환으로 ‘김정호의 일생과 그의 저작’에 대한 종합 토론의 장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분의 선생님께서는 《대동여지도》 간행 150주년의 다채로웠던 행사에 대한 종합적 마무리 자리로 생각하시고, 김정호의 삶과 그의 작품에 대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한 주제에서 모두 답하지 마시고, 각 주제에 적절하게 배정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가 평생을 바쳐 지도와 지리지를 만들었고 지도연구자들은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이용자들은 지도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도와 지리지는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창의성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 저작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대 이전에 제작된 전통 지도에서는 저자가 안 밝혀져 있

는 지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청구도(靑邱圖)》와 《대동여지도》와 같이 김정호의 이름이 쓰인 지도들도 있긴 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김정호의 작품이 어느 정도 범위에 걸쳐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태호 교수님은 김정호의 작품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 김정호는 지금까지 지리학자 내지는 지도제작자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대동여지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김정호는 판화예술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제작된 거의 모든 목판화 지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9세기에 조선전도부터 《대동여지도》까지 목판화 지도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로서 목판화 지도의 시대가 끝났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대한전도(大韓全圖)>가 목판화지도의 맥을 이어갔습니다. <대한전도>는 19세기 후반 동판화지도로 착각되었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목판화지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19세기는 목판화지도의 절정기였고 그 중심에 김정호가 있었습니다. 1830년대에서 60년대에 제작된 대부분의 목판화지도들은 대부분 김정호의 작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호가 목판지도 제작에 인생을 걸고 작업을 했고 그 결과를 집약한 것이 《대동여지도》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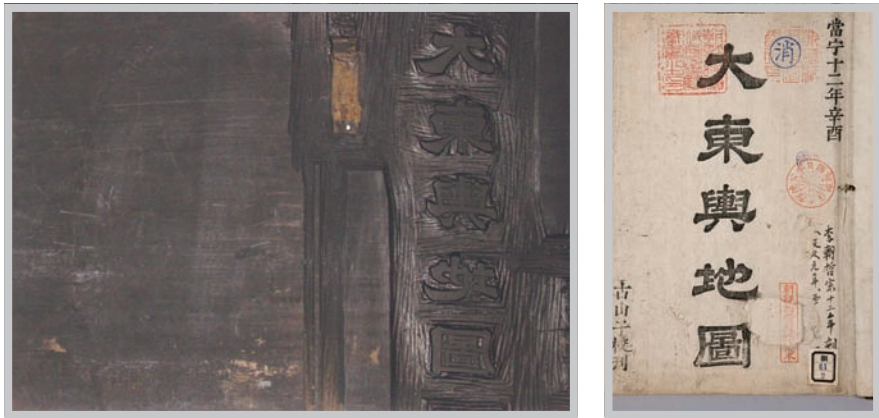


그림 1. 대동여지도 표지 목판(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기봉 일반적으로 <해좌전도(海左全圖)>의 경우, 보통 작자미상으로 이야기되는데 이태호 선생님께서는 <해좌전도>까지도 김정호의 작품으로 보고 계십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여총도(東輿總圖)> 그리고 <도리도표(道里圖標)> 속의 조선전도까지도 김정호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태호 선생님의 주장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태호 사실, 《대동여지도》 말고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의 작가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대동여지전도> 또한 김정호의 작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동여지도》에 있는 제목 글씨를 똑같이 판각에 썼기 때문이고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제작하기 전후에 상업성을 갖춘 조선전도의 형태를 꾸준히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 2. 대동여지전도

이기봉 앞에서 <해좌전도>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양운정 선생님께서 <해좌전도>에 관하여 석사논문을 쓰셨는데 이태호 선생님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운정 ‘김정호의 작품이다 아니다’라고 확답을 할 순 없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검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좌전도>의 경우 《대동여지도》와 마찬가지로 목판본 지도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판본과 유사한 필사본 지도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도들을 비교해 보면 《대동여지도》의 발달단계처럼 <해좌전도>

또한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판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김정호의 작품으로 규정짓기 보다는 19세기 후반의 목판본 지도, 목판본 전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및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3. 해좌전도

이기봉 오늘 나오는 다양한 주장이 앞으로의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대동여지도》처럼 대축적지도에 관해서 한 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배우성 교수님은 대축적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성 저는 지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과 당대 의의 등 지도와 연관된 다른 변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호의 작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목판화 지도를 융성하게 만든 시대적 배경 등 전체적 맥락을 찾는 논의가 선행된다면 김정호의 저작을 규정짓는 논의가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자가 김정호인가를 계속 논의하다 보면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지고 그 만큼 토론에 대한 생산성, 확산가능성이 외소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봉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태호 선생님께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태호 19세기는 조선사회가 몰락해가는 시기로 경제가 하강하는 시기였습니다. 목판화 지도는 돈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인데 19세기에 왜 갑자기 발달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목판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 초기에는 불경 목판화가 발달했고 고려 때보다도 뛰어난 목판화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16~17세기에 목판화의 대중화 단계를 거쳐 점점 퇴락기에 접어들었지만, 18세기에 다시 중흥기를 맞게 됩니다. 18세기 후반은 초절정기로 최고의 기술자들이 배출되었지만 이후 목판화의 역사가 단절되게 됩니다. 추사 김정희나 다산 정약용의 문집 등 문집 제작도 거의 안 될 정도로 목판화 제작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19세기에 갑자기 목판화 지도들이 대거 출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입각하여 19세기를 바라볼 때 19세기는 조선이 몰락해가는 시기였기도 하지만 문화사가 집약되었던 중요한 시기였다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작가와 관련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김정호의 일생과 학문적 견해를 밝힌 문헌 등이 없다는 것이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데, 그것이 또한 19세기의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원 신윤복, 중인충 화가였던 북산 김수철, 새 그림으로 유명하고 승지를 지냈던 홍세섭,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오원 장승업까지도 문헌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기봉 지도라고 하면 지리학하고 가장 연결을 많이 하지만 배우성 교수님과 이태호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지리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같은 대상에 대하여 연구하시면서 큰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도의 종류와 쓰임새의 측면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김기혁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기혁 역사에서 큰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는 항상 개입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콜럼버스의 세계발견에서는 2세기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세계 전도, 중국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그 후에 근대국가로 넘어 올 때에는 국가지도가 큰 역할을 했던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배우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대가 확연히 구분되는데, 그 시대 지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띠면서 변화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지도에서 나타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세기에는 대축척 전도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은 지도의 대형화, 지리정보의 종합화를 왜 시도했을 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사회적 요구로서 18세기 외국 선교사 등의 외국 세력들이 들어 오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이 상당히 흔들렸고 그러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통합화를 꾀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학자와 조선의 지식인들은 지도를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이고 지도를 만드는데 있어 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지도를 주머니에 지니고 다닐 만큼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었으며 외국 선교사들은 지도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지도를 사용하고 만드는 기술이 유입되면서 조선 지식인들은 지도가 가지는 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리정보가 종합화되고 대형지도들이 자연스럽게 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기봉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와 지식인’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성 교수님이 대동여지도 15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2011.10.20~21.) 때 많은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역사학과 출신들의 장점은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 시대를 종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배우성 교수님께서서는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세기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우성 지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도를 오늘날의 분류 방법으로 분류했을 때 회화식인가, 기호식인가 아니면 필사본인가, 목판본인가에 관심을 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디까지가 그림이었고 어디까지가 지도였는가를, 그리고 전근대에 우리가 향유했던 모든 지식들이 오늘날의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이 전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자가 누구인가 하는 논의는 이루어지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와 동양사를 전공하신 연세대학교의 김유철 교수님께서 고지도는 왜

동일한 이름이 많은가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규장각에서 ‘조선지도’로 검색을 하면 동일한 제목을 가진 9건의 자료들이 검색결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동여지도》라고 부르는 지도 중에는 실제로 “대동여지도”라는 이름을 갖지 않은 자료들도 많습니다. 《청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다른 사람의 기록에 김정호가 남겼다고 하는 지도 이름과 기타 지지의 이름이 현재 전해지는 실물의 이름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의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연구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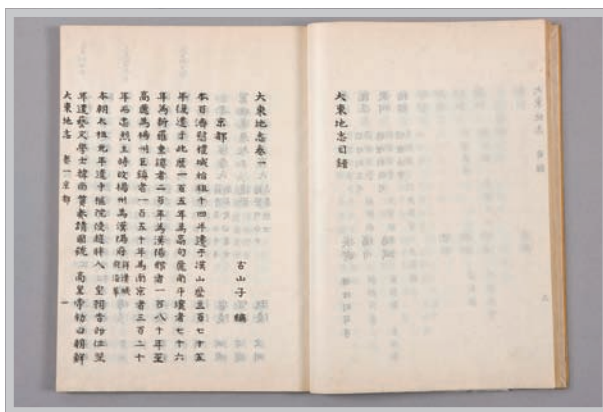


그림 4. 대동지지

조금 다른 예로, 『택리지(擇里志)』를 많은 분들이 연구하셨지만 이상한 점은 “택리지”에 대한 제목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청구도》의 이본, 《대동여지도》의 이본, 김정호가 만들었다고 하는 다양한 지리지의 실물로서 확인되지 않는 현상, 이는 지도 내지 지리지가 그 당시 지식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와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 지리지를 시대적 맥락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택리지』를 지리지로 인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중환의 서문에 자기의 서문을 붙이기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택리지의 편차(編次)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도 내지 지리지가 18~19세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식인 사회가 가지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에 관한 논의를 김정호를 둘러싼 지식인 집단 및 지도/지리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와 《대동여지도》를 포함한 19세기 조선사회 속에서 이런 종류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혁 배 교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택리지』를 말씀하시면서 같은 내용의 책을 여러 가지로 재편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9세기에 들어서 만들어진 지도들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김정호의 일관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림 5. 청구도(서울부근)

배우성 《청구도》를 보면 사회 경제적인 수치가 적혀있습니다. 그 수치는 1828년에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통계치인데, 김정호의 다른 지도에서 보면 끝내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김정호의 지도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호의 지도 작업이 온전히 김정호 개인의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이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구도’라 해서 나온 지도책에 보면 김정호의 범례가 나오기 때문에 김정호의 책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 구사된 정보들을 본다면 그 당시 중인이 접근 불가능했던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를 고려할 때 꼭 김정호 개인의 저작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독도가 그려진 《대동여지도》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주기 설명은 《청구도》에 기록된 강원감사 조최수의 보고 내용인데, 조최수라는 사람의 문집을 끌고 올 수 있을만한 정보의 흐름은 사실 중인 각수(새기는 사람) 김정호라고 하는 조건만을 고려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구도》 간행단계에서 김정호와 김정호 주변인물 사이에 다양한 정보의 소통이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의 종합으로서 《청구도》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비춰 본다면 이후에 《청구도》에서 《대동여지도》로의 변화 과정은 또 어떤 식으로 설명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역사학과 선생님께서 색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 토론이 더욱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각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 이태호 선생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태호 《대동여지도》가 목판화라는데 초점을 맞춰보면 각수는 주로 하층민으로 구성됩니다. 조선 후기의 각수들은 대체로 도각수라고 하는 상류 기술자 팀장 한 명에 20명 내외의 승려와 지방, 특히 경상도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농사를 지으며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로 각수 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전통적인 목판화의 기술이 전승이 되었는데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 판화사에서 급반전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각수가 만들어낸 목판화 내지 목판문집은 조선시대 후기를 중심으로 판의 재질이 주로 단풍나무 류가 많습니다. 목판은 여러 장을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단단하면 새기기 힘들어 그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김정호도 처음에는 단단한 나무에 목판을 새겼지만 《대동여지도》 판목(국립중앙박물관 11장 소장, 숭실대학교 박물관 1장 소장)은 전부 피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피나무는 재질이 고무판과 비슷하고 현대 목판화거나 조각가들이 칼질이 쉬워 선택하는 재질입니다. 피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김정호가 재질 선택에 있어서 천재성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나무는 싸고 파기 쉬웠기 때문에 김정호가 특별한 각수의 기술이 없어도 혼자 작업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수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19세기 경제적 하강기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판본을 본 결과 굉장히 거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정호가 상품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방시스템을 갖춘 것이 아니라 조수 1~2명은 있었겠지만 혼자서 거의 모든 작업을 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김정호는 19세기 1860년대 조선 몰락 직전 시기에 최고의 목재와 기술, 제작방식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봉 그 당시 화가나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의 지식수준, 작업관계에 대해 말씀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호 김정호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인층 화가들은 그 시대의 지성입니다. 그 시대에는 영향력이 적었지만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만들 수 있

는 지식과 감성,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혁 김정호의 각수 역할만 강조하다 보면 1834년 《청구도》 제작에 있어서 김정호의 역할이 너무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 제가 의미하는 바는 본인이 전문 각수 훈련을 하지 않았어도 김정호가 피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새기는 작업을 직접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기혁 《대동여지도》를 김정호가 직접 새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대동여지도》 앞에 고산자 교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태호 교간(校刊)이라는 것이 ‘교’는 교정한다는 의미이고 ‘간’은 목판 새김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호가 교정을 하여 목판으로 새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기혁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태호 아니요. 그 ‘간(刊)’ 자는 분명하게 목판으로 새긴다는 뜻입니다.

김기혁 저는 김정호가 각수 역할 그 이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대단한 지도학자로 지리정보를 모아 체계화하고 대중에게 공급하는 방법까지 생각한 대단한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각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많은 학자들의 동의를 얻어나가고 있는 주장이 《대동여지도》는 김정호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그 당시 지식인들의 프로젝트로서 김정호는 한 명의 지도학자로 참여하여 지도제작의 총 기획을 담당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간을 단순히 새겼다는 의미 보다는 지도 전체를 총괄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태호 저도 ‘간’ 자라는 글자 하나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전을 다 찾았지만 절대적으로 ‘간’ 자는 어떤 사전을 뒤져보아도 ‘목판에 칼로 새기다’라는 의미 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목판에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교간이라고 김정호가 특별히 쓴 이유는 ‘직접 새겼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기봉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전환을 해보고자 합니다. 18~19세기 김정호가 지도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18세기에 비해 더 많이 만들어졌는지, 19세기에 많이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양윤정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양윤정 올해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전시를 담당하게 되어 규장각에 있는 지도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판지도를 정리해보면서 목판본 지도가 19세기에 이르러 시작되었다기 보다는 15~16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의 발달은 전도 또는 도별도,

동남도형 지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 차이 속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도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목판본과 필사본 7종을 같이 보았을 때 단 한 종도 같은 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사본과 목판본을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필사본이 더 정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시에 김정호가 판각을 하면서 필사본을 제작했다면 그 부분을 김정호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서지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대동여지도》 필사본과 목판본에 장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고 각각 소장되어 있던 곳과 사용했던 이용자가 달랐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오늘 교수님들께서 앞서 언급하신 주제들에 대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봉 우리 연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잠깐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정상기, 정철조 등 본인이 만든 지도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물론이고 옛날에도 사람들은 지도와 지리지는 창조적인 작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실용적인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기가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던 이유 등, 보편적인 입장에서 지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호가 고산자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것, 최한기가 서문에 김정호가 제작자라는 것을 밝혀놓은 것 자체가 아주 특이한 현상이지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호를 다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배우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더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못하신 말씀을 좀 더 해주시지요.

배우성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으로 목판본에 대한 사람들의 환상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니다. 《대동여지도》가 목판으로 인쇄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수가 보급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남아있는 사본의 숫자를 기타 자료에 견주어 생각해보면 이것은 환상입니다. 보통의 지식인들이 어떤 종류의 지도나 자료를 볼 때 각수를 데려다가 목판본을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고 조선 말기까지도 대부분이 필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는 당대의 선진적인 지식인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21세기적인 평가에 기초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는 하지

만 김정호가 그 당시 양반지식인들이 구사했던 논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여도지(東輿圖志)』의 서문에 명나라를 ‘황명(皇明)’, 원나라를 호원(胡元)이라고 썼는데 고려 말 조선 초기만 해도 원나라를 호원이라고 지칭한 것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몽골을 오랑캐로 부른 것은 대체로 17세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었고 대개 지식인 집단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호도 19세기 중후반 지식인 집단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림 6. 대동여지도(서울부근)

마지막으로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서 “대동(大東)”이라는 말을 쓴 것은 19세기 초반에 정약용이 『대동수경(大東水經)』을 썼던 정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조시기에 여러 가지 문화정리 사업을 벌이는데 청나라를 많이 의식하면서 개별자로서의 조선이라는 생각을 고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 정약용의 『대동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서 “대동(大東)”을 쓰게 된 것도 정조시대의 여파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봉 제가 오늘 기획대담을 준비하면서 꼭 선생님들의 견해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한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목판본 지도가 대량 보급 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정호는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려 했었던 것일까요? 각자의 견해만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태호 목판본으로 제작한 이유는 대중적인 보급보다는 여러 본의 원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하고 또 찍을 수 있다는 목판화의 용이함 때문에 수정을 통한 여러 점의 원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성 추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 볼 수 있겠으나, 저는 아직 그 부분에 관하여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판본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미지를 19세기에 그대로 반영하여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목판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신다면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현재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근거를 알아내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저도 《대동여지도》가 왜 목판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한 평생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태호 선생님의 의견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이 몇 부를 만들어 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견해인데, 《대동여지도》는 목판 내용만 같고 나머지 정보는 전부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보급의 개념은 주문 제작이 아니었는지 추정해봅니다. 주문하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자연스럽게 지도의 형태가 달라진 게 아닌가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이는 보급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기봉 양윤정 박사님은 목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윤정 《대동여지도》 보급과 관련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김정호가 보급에 더 신경을 썼다면 〈해좌전도〉를 좀 더 발전시켜 이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2첩(약 6.6미터)의 《대동여지도》보다 1미터 정도의 작은 〈해좌전도〉를 보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면에 있어서도 《대동여지도》와 〈해좌전도〉는 큰 차이가 있는데, 보급 문제에 대해 김정호가 더 신경을 썼다면 또는 대중을 위한 보급이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해좌전도〉를 더 발전시켜서 판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동여지도》를 왜 목판으로 제작했는가’에 대해 대중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편이성을 위해 정확한 지도를 제작할 때 매번 필사하기보다는 목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봉 이번에는 동해·독도 문제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는 왜 《대동여지도》에 우산도를 그리지 않았을까요?

김기혁 이 질문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우산도는 독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동여지도》를 보는데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지도를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지도를 볼 때 영토문제에 입각하여 1861년에 만들어진 지도를 그 시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시각으로 보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21세기의 시선이 아닌 19세기 시선으로 《대동여지도》를 보아야 할 것이고, 《대동여지도》에 우산도를 그리는 것은 김정호 선생의 몫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이기봉** 이번 기획대담은 김정호와 그의 저작 위주로 진행했습니다만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한국고지도에 대한 이야기도 미래의 더 나은 연구를 위해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 김기혁** 현재 미국 의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외국의 한국고지도 소장처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 지도가 나타나 있는 한국 관련 고지도 소장처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국내 여러 기관에서 영인이나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관련 고지도를 확보하여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외에 있는 모든 한국 고지도 및 한국 관련 고지도에 대한 전수조사 작업은 어느 한 기관이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동안 국내 각 기관에서 수집한 한국 고지도 및 한국 관련 고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 정보와 간략한 해설을 담은 총목록을 작성하여 전문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연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연구의 질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기봉**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이태호** 제가 보는 김정호는 근대적 자의식을 가진 지도에 ‘미친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회화사와 연결해 보면 그때 예술가들(신윤복 등)은 기존의 방식을 뒤엎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룬 동시에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호는 판화예술의 새 장을 열고, 피나무의 선택과 조형적으로 시대상을 반영한 거친 표현을 함으로써 예술성을 끄집어 낸 혁신적인 지식인이자 예술가였다고 생각합니다.
- 양윤정** 김정호는 19세기~20세기 초를 대표하는 지도제작자의 일반적인 대표명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김정호의 작품에 한정되지 않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제작된 지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 지도의 모습, 발달과 함께 김정호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기혁** 저 또한 이제부터 《대동여지도》가 본격적으로 입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 이기봉** 이번 기획대담을 통해 지리학 아닌 다른 분야에 입각하여 지도를 볼 수 있을 때 지도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번 기획대담이 김정호의 삶과 그의 저작, 더 나아가 조선의 지도 제작과 지리지의 편찬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현장연구

II

07 _ 일본의 사서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 116

1. 서론
 2. 일본의 현행 사서자격제도
 3. 일본의 사서양성교육 체계
 4. 일본의 사서자격제도 개혁
 5. 결론
- 〈참고문헌〉

일본의 사서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brarian Certification System in Japan

조재순 (Jo, Jae-soon)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이용과 사서
soonjo@mail.nl.go.kr

07

| 초록 |

본고는 일본의 사서자격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서자격의 취득요건 및 사서양성교육체계, 최근의 개혁내용 및 실시배경 등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혁의 성공요건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도서관법에 규정된 사서자격은 사실상 공공도서관 사서자격제도라는 데에 최대의 한계가 있다. ‘일본도서관협회 인정사서’와 ‘도서관정보학 검정시험’과 같은 최근의 사서자격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 전문단체의 자율적인 개혁의지와 연구결과에 따른 산물이 궁극적으로는 법제화에 반영되어야 하며, 둘째, 채용이나 승진임용과 연결되는 인센티브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만이 아닌 관중을 초월한 사서자격제도로 발전해 나갈 때 참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일본 사서자격제도, 일본도서관협회 인정사서, 도서관정보학 검정시험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ibrarian certification requirements specified by the Library Act of Japan, Japanese education system for librarians, recent changes in librarian certification systems, its background to analyze the librarian certification system in Japan, and suggest strategies for the success of newly reformed systems. The weakest point of the Library Act is the fact that

it can be applied only to librarians of public libraries. To make recent librarian certification systems successful such as the Certified Professional Librarian by Japan Library Association and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mination, Japan should focus on three main parts: first, the Library Act should reflect the active voice of private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reform certification systems and results of relevant studies from the organizations. Second, incentives and an institutional strategy related to employment and promotion have to be prepared. Lastly, the system should include not only public libraries but also all kinds of libraries. These will enable the certification systems to achieve real reform.

Keywords

Librarian Certification System in Japan, Certified Professional Librarian by Japan Library Associati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mination

1. 서론

일본의 사서자격제도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에 관한 소정 학점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무시험 국가자격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사서자격 제도에 대한 비판 및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최근 사서의 높은 전문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명칭의 사서자격을 신설하거나, 시험을 통해 사서자격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전문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일본도서관협회는 ‘일본도서관협회 인정사서’(日本圖書館協會 認定司書)라는 명칭의 제도를 만들어 첫 인정사서 37명을 배출하였으며, 일본도서관정보학회(日本圖書館情報學會)는 ‘도서관정보학 검정시험’(圖書館情報學 檢定試験)을 처음으로 공개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 도서관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는 자격취득을 위한 최저 이수학점을 20학점에서 24학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사서자격의 전문성과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 외에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속에서 추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제도는 업무 독점자격이며 3가지 종류로 등급화되어 있고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 전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시험 국가자격으로 자격취득이 용이하다는 점, 이로 인한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점 등에서는 일본과 유사하다. 일본

의 사서자격제도 개혁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사서자격의 수준 향상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사서자격제도는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도서관법은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공공도서관법에 해당한다.⁽¹⁾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도서관 사서자격제도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선행연구에서 면밀히 분석되지 않았던 사서자격의 취득조건과 취득방법으로서의 양성교육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최근의 개혁으로 탄생한 일본도서관협회 인정사서와 도서관정보학 검정시험 제도의 실시 배경 및 내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혁의 성공 요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개선 방식을 고찰 분석함으로써 그 해법의 적용 가능성 등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일본의 사례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의 현행 사서자격제도

일본의 사서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50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으로, 이는 사실상 공공도서관에 관한 법률이다. 본 장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사서자격과 관련된 최근의 법률 개정의 배경 및 내용을 고찰하고, 사서자격의 법적 요건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2.1 도서관법의 개정

(1) 도서관법 개정의 배경

현행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전문 직원)에는 “도서관에 둘 수 있는 전문 직원을 사서 및 사서보라 칭한다.”라고 하고, 사서는 “도서관의 전문적 사무에 종사”하고 “사서보는 사서의 직무를 돕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서 및 사서보의 자격과 그 교육에 대해서는 각각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과목 및 학점 수 등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성령(文部科學省令) 도서관법시행규칙에 의해 대학에서 2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일본의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법에 규정된 최저 이수 학점 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즉, 도서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1) 일본의 도서관 관련법은 도서관법 이외에 국립국회도서관법(國立國會圖書館法), 학교도서관법이 있다. 국립국회도서관법은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학교도서관법에는 사서교사 자격이 규정되어 있다.

는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강습을 수료한 자”, 제 2호에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 대학에서 문부과학성령에 규정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로 강습이 우선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법률제정 당시 기존 도서관 직원의 부족 및 시급한 사서양성을 위해 유예조치로 취해진 것이었다. 또한, 강습에 관한 과목은 도서관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대학에서의 도서관학 과목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도서관학 과목이 개설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문부과학성으로부터 그것이 사서강습과목에 상당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일본의 사서 양성 교육은 법률상 대학의 도서관학 교육보다 단기 사서강습이 표준화되었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2008년에 개정된 도서관법⁽²⁾은 2차대전 이후 고착화되어 버린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본 학계의 대정부 요구가 수용된 것이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후 그 후속조치로 학교교육, 교육행정의 개혁에 이어 교육 관련법 즉, 사회교육법, 도서관법, 박물관법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문부과학성 주최로 열린 수차례의 회의에서 일본의 학계에서는 일본도서관정보학회를 중심으로 한 LIPER(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s and Education Renewal)⁽³⁾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문부과학성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문부과학성은 그것이 정부방침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률 개정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즉,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규정된 대학에서의 도서관에 관한 과목에 대해 하위법인 도서관법시행규칙에 해당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기존 사서강습 규정에 대한 규제강화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2) 개정 도서관법의 주요내용

문부과학성은 2008년 6월 도서관법 제5조(사서 및 사서보의 자격)에서 사서자격을 <표 1>의 신 조문과 같이 개정하고, 2009년 4월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장에는 ‘도서관에 관한 과목’이 법제정 60여 년만에 새로 제정되었다. 즉, 도서관학 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사서자격을 취득하려면 필수과목 11과목과 선택과목 7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하여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종래의 20학점에서 24학점으로 4학점이 증가된 것이다. 사서자격 취득에 필요한 도서관학 전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법률상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갑군(甲群)에 속하는 도서관학 과목은 도서관정보 기술론, 정보서비스 연습(演習) 등 각각 2학점으로 필수과목에 해당하며, 을군(乙群)에 속하는 선택과목은 도서·도서관사, 도서관

(2) 그 후 2011년 8월 도서관법 제15조 및 제16조의 도서관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3) 정식명칭은 ‘정보전문직 양성을 위한 도서관정보학 교육체계의 재구축에 관한 종합적 연구’(情報専門職の養成に向けた図書館情報學教育體制の再構築に関する総合的研究).

실습 등 각각 1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표-1 도서관법 제5조 제1항 사서자격의 신규 조문 비교⁽⁵⁾

구분	구 조문	신 조문
제1호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강습을 수료한 자	대학을 졸업한 자로 대학에서 문부과학성령에 규정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제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 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강습을 수료한 자
제3호	3년 이상 사서보(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의 부속도서관 직원으로 사서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근무한 경력을 갖는 자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강습을 수료한 자	다음의 직위에 있던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인 자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강습을 수료한 자 가. 사서보 나. 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부속 도서관의 사서보에 상당하는 자 다. 관공서, 학교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사회교육주사, 학예원, 기타 사서보와 동등 이상으로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하는 자

단,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2011년 현재 20학점 이수만으로도 사서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2012년 4월부터는 2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개정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나타난 주요내용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양성의 가장 실질적이며 표준화된 방법은 대학에서의 도서관학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도서관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순서를 바꾸어 대학의 도서관학 과목 이수를 상위 규정에 두고,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장 제1조에 해당과목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에서의 도서관학 교육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사서자격 취득방법의 표준이 사서 강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도서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서보에서 사서로 승급하기 위한 자격 취득방법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국립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고등전문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보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사서 강습을 수료하면 사서자격을 부여했는데, 그밖에 관공서, 학교 또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사회교육주사, 학예원, 사서보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도 사서강습을 수료하면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규제를 완화하였다.

셋째,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장 제1조에서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최저 이수 학점 수를 20학점에서 24학점으로 늘림으로써 도서관에 관한 식견을 높이도록 하였고 전문지식 습득에 취

(4) 학과목은 강의, 연습(演習), 실습으로 구성되며, 연습(演習)은 보고, 토론, 강독으로 이루어진 세미나를 말한다. 1학점 당 강의는 15시간, 연습은 15~30시간, 실습은 30~45시간을 필요로 한다.

(5) 사서보 자격에 관한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생략하였다.

약하다는 비판과 단점을 보완하였다. 일본은 도서관법 제정 이래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최저 학점 수가 15학점(1950년), 19학점(1968년), 20학점(1997년)으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24학점으로 늘어난 것이다. 학점 수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통해 도서관계에서는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법률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 속에서도 최저 학점 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전통적 도서관학에 치중되어 있던 강의과목을 보완하였다. 즉, 이수과목에 ‘도서관정보기술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정보기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자료’를 ‘정보자원’으로 표현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2.2 사서자격의 법적 요건

(1) 사서자격 취득의 일반 요건

사서자격의 법적 요건은 도서관법 제5조 및 제6조,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장에 규정되어 있다. 개정 도서관법상 사서 및 사서보 자격의 취득요건(표 2)과 자격취득 방법에 따라 이수해야 할 과목과 학점 수(표 3~표 5)는 다음과 같다.

표-2 사서 및 사서보 자격 취득요건

종류	자격 취득방법	최저 학점 수	최종학력	수강자격
사서	대학에서 도서관 관련 과목 이수	24학점	단기대학 ⁽⁶⁾ 졸업이상	대학 재학 중
	사서 강습	20학점	단기대학 졸업 이상	① 대학 2학년 이상+62학점 이상 취득자 ② 고등전문학교 또는 법규상 대학에 포함되는 학교 졸업자
			고졸 이상 (①은 3년 경과후)	① 국립국회도서관 등(도서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 구 국립도서관 부속 도서관직원 양성소(圖書館職員養成所) 및 구 문부성 도서관강습소(文部省圖書館講習所) 졸업자, 구 공립도서관 사서검정시험(公立圖書館司書檢定試驗) 합격자 ③ 기타 문부과학성 장관이 ②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자
사서보	사서보 강습	15학점	고졸	대학 입학 자격자(고졸)

(6) 단기대학(短期大學)은 우리나라의 2년제 전문대학에 해당한다.

표-3 대학의 도서관학 과목

군(群)	과목	학점 수
甲群(필수과목)	생애(生涯)학습 개론	2
	도서관 개론	2
	도서관제도 · 경영론	2
	도서관정보 기술론	2
	도서관서비스 개론	2
	정보서비스론	2
	아동서비스론	2
	정보서비스 연습	2
	도서관정보자원 개론	2
	정보자원 조직론	2
	정보자원 조직 연습	2
乙群(선택과목)	도서관기초 특론	1
	도서관서비스 특론	1
	도서관정보자원 특론	1
	도서 · 도서관사	1
	도서관 시설론	1
	도서관 종합연습	1
	도서관실습	1

표-4 사서강습 과목

군(群)	과목	학점 수
甲群 (필수과목)	생애학습 개론	1
	도서관 개론	2
	도서관 경영론	1
	도서관 서비스론	2
	정보서비스 개설	2
	참고봉사 연습	1
	정보검색 연습	1
	도서관자료론	2
	전문자료론	1
	자료조직 개설	2
	자료조직 연습	2
	아동서비스론	1
乙群 (선택과목)	도서 및 도서관사	1
	자료 특론	1
	커뮤니케이션론	1
	정보 기기론	1
	도서관 특론	1

표-5 사서보 강습 과목

과목	학점 수
생애학습 개론	1
도서관의 기초	2
도서관서비스의 기초	2
참고봉사	1
참고자료 해제	1
정보검색 서비스	1
도서관 자료	2
자료 정리	2
자료 정리 연습	1
아동서비스 기초	1
도서관 특강	1

이상과 같이 사서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2)대학에서 사서강습을 집중 이수해야 한다. 학력요건은 기본적으로 대학(단기대학 포함) 졸업 이상이며, 재학 중 과목 이수 또는 강습 수료 후 최종 학력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사서자격증이 발생한다.

(1)의 경우, 필수과목(갑군)으로 11과목 22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선택과목(을군)에서 2과목 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므로 최저 13과목 24학점을 이수해야 사서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본격 시행에 앞서 2년간의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존의 사서강습 상당 과목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2)의 경우, 필수과목(갑군) 12과목 18학점에 선택과목(을군) 2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므로 최저 14과목 2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사서보 자격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강습 필수과목 11과목 15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법률 개정은 대학에서의 도서관에 관한 과목이 처음 명시되고 이수학점 또한 4학점이 추가되어 사서자격 소지자가 도서관에 관한 식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대학에서의 도서관에 관한 과목이 신설되어 사서강습 과목보다 선택 범위가 더 넓어졌으며, 개념의 확대 및 최신지식의 습득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여름방학 기간 중 2~3개월간 집중 강의를 실시하는 사서강습은 종전과 다름없이 20학점 이수만으로도 자격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자격취득을 위해서라면 대학에서의 도서관학 과목 이수보다는 강습에 의한 자격취득이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강생들의 강습 선호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2) 사서자격 취득의 예외 요건

사서자격의 일반적 취득요건 외에도 도서관 근무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공무원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사서자격을 보다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예외요건이 있다. 즉, 상기 요건에 따라 도서관학 특정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습과목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1996년에 제정되었다. 문부과학성 고시 제149호 ‘사서 및 사서보 강습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의 학점 취득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및 자격 등을 정하는 건⁽⁷⁾에 의하면, 사서(보) 강습 이수 면제 과목과 학점 조건은 다음과 같다(표 6, 표 7 참조).

표-6 사서강습 면제 과목 및 학점 수

구분	평가 내용	면제 과목	학점 수
근무 경력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단순노무 고용자 제외)	도서관서비스론	2
	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부속도서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 고용자 제외)	자료조직 개설편	2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에서 2년 이상 사서보로 근무한 경력 (단순노무 고용자 제외)	생애학습 개론	1
		도서관서비스론	2
		자료조직 개설편	2
		자료조직 연습	2
경력	사서보	생애학습 개론	1
		자료조직 개설편	2
	사서교사	아동서비스론	1
		커뮤니케이션론	1
	사회교육주사	생애학습 개론	1
	박물관 학예원	생애학습 개론	1
		정보기기론	1
시험	국가공무원 II종시험 도서관학 구분 합격자가 합격 후 3년을 경과한 날 이후 최초 3월 31일까지 사서자격을 취득할 경우	도서관 개론	2
		도서관자료론	2
		자료조직 개설편	2

(7) 文部科学省, “司書及び司書補の講習において履修すべき科目の単位の修得に相当する勤務経験及び資格等を定める件.”
[cited 2011.10.17]. <http://www.mext.go.jp/a_menu/shougai/gakugei/shisyo/04040505.htm>.

표-7 사서보 강습 면제과목 및 학점 수

구분	평가 내용	면제 과목	학점 수
근무 경력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단순노무 고용자 제외)	도서관서비스 기초	2
	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부속도서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 고용자 제외)	자료 정리	2
자격	사서교사	아동서비스 기초	1
	사회교육주사	생애학습 개론	1
	박물관 학예원	생애학습 개론	1
시험	국가공무원 II종시험 도서관학 구분 합격자가 합격 후 3년을 경과한 날 이 후 최초 3월 31일까지 사서보 자격을 취득할 경우	도서관 기초	2
		도서관자료	2
		자료 정리	2

즉, 도서관 실무경험과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 도서관학 구분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보다 용이한 자격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자격취득의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특히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경우, 필수과목 12과목 18학점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사서강습에서 1/3에 해당하는 6학점을 면제해 주고, 사서보강습의 필수과목 11과목 15학점 중 40%에 해당하는 6학점을 면제해 주고 있다. 도서관학을 수험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전공 여부를 떠나 이미 도서관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는 것을 시험 결과로써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취득의 용이성과 지나친 규제완화는 사서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낮추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의 사서양성교육 체계

일본의 사서양성교육기관은 모두 대학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서관학 강의과목 개설대학, 강습과정 개설대학, 통신과정 개설대학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유형별 대학을 소개하고 자격증 발급에 관해 기술한다.

3.1 사서양성교육의 유형

문부과학성의 도서관정책 담당부서는 관중에 따라 세 부서로 나뉜다. 공공도서관 담당부서는 생애학습정책국 사회교육과 도서관진흥계, 학교도서관은 초등중등교육국 아동생도과(児童生徒課) 지도조사계, 대학도서관은 연구진흥국 정보과 대학도서관계에서 담당하고 있

다. 공공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생애학습정책국에 의하면, 일본에서 사서(보)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서양성교육기관의 유형은 (1)도서관학 강의과목 개설대학, (2)사서(보) 강습과정 개설대학, (3)통신과정 개설대학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모두 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1) 도서관학 강의과목 개설대학

2009년 4월 현재, 도서관·정보학과와 같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을 포함하여 도서관학 강의과목이 개설된 단기대학 이상의 대학은 총 237개교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표적 유형에 속한다. 구체적으로는 4년제 대학이 국립 10, 공립 5, 사립 141개교로 총 156개 대학, 2년제 단기대학이 공립 3, 사립 78개교로 총 8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표 8 참조).

표-8 도서관학 강의과목 개설대학(2009.4.1.)⁽⁸⁾

구분	설립주체	대학수	대학명
4년제 대학	국립	10	쓰쿠바 대학(筑波大學), 도쿄 대학(東京大學), 교토 대학(京都大學), 오사카 교육 대학(大阪教育大學) 등
	공립	5	오사카 부립대학(大阪府立大學), 고베시 외국어대학(神戸市外國語大學), 야마구치 현립대학(山口県立大學) 등
	사립	141	스루가다이 대학(駿河台大學), 아오야마가쿠인 대학(青山學院大學), 게이오기주쿠 대학(慶應義塾大學),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 등
	소계	156	
2년제 단기 대학	공립	3	아미가타현립 고메사와 여자단기대학(山形県立米澤女子短期大學), 나가노현 단기 대학(長野県短期大學), 시마네현립대학 단기대학부(島根県立大學短期大學部)
	사립	78	오비히로 오타니 단기대학(帯廣大谷短期大學), 구시로 단기대학(釧路短期大學) 등
	소계	81	
총계		237	

(2) 강습과정 개설대학

〈표 9〉에서 보듯이, 사서(보) 강습과정은 약 2~3개월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집중강의를 실시하는 자격취득방식이다. 강습실시 대학, 강습기간, 모집인원 등은 매년 3월 하순에서 4월

(8) '도서관·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과 '사서과정' 등 자격취득을 위한 도서관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 포함되어 있다. 文部科学省, "司書講習相当科目の単位認定大學一覧," [cited 2011, 10, 17]. <http://www.mext.go.jp/a_menu/shougai/gakugei/shisyo/04040502.htm>.

상순 사이에 관보에 고시된다. 학생 선발은 13개 대학 중 2개 대학에서만 서류심사로 전형 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작문과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모두 사립 대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2011년 4월 현재 사서강습은 13개 대학(단기대학 1개교 포함), 사서보 강습은 6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강습과정 개설대학을 통해 배출한 사서(보) 자격자 수는 사서 1,510명, 사서 보 290명으로 총 1,800명이다. 도서관학 강의과목 개설대학 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서를 배출하고 있다.

표-9 강습과정 개설대학(2011년)⁽⁹⁾

연번	대학명	자격구분	강습기간	정원	선발방법
1	후지 대학(富士大學)	사서	7.19-9.13	70	작문, 서류심사
		사서보	7.19-8.27	40	
2	세이가쿠인 대학(聖學院大學)	사서	7.22-9.24	100	작문, 서류심사
3	세이토쿠 대학(聖徳大學)	사서	7.25-9.17	100	작문, 서류심사
		사서보	8. 5-9.10	50	
4	아지아 대학(亞細亞大學)	사서	7.30-9.24	120	작문, 서류심사
5	메이지 대학(明治大學)	사서	7.19-9.10	100	작문, 서류심사
		사서 (미디어) ⁽¹⁰⁾	'11.7.2- '12.3.12	100	
6	쓰루미 대학(鶴見大學)	사서	7.15-9.15	120	작문, 서류심사
		사서보	7.15-9.15	50	
7	추부가쿠인 대학(中部學院大學)	사서	7.13-9. 8	80	작문, 서류심사
8	아이치가쿠인 대학(愛知學院大學)	사서	7.15-9.17	200	작문, 서류심사
		사서보	7.16-8.27	50	
9	시가분쿄 단기대학 (滋賀文教短期大學)	사서	7.20-9.30	50	작문, 서류심사
10	모모야마가쿠인 대학(桃山學院大學)	사서	6.21-9.12	200	작문, 서류심사
		사서보	7. 2-9.12	50	
11	히로시마분쿄 여자대학 (廣島文教女子大學)	사서	7.20-9.17	70	작문, 서류심사
12	벳푸 대학(別府大學)	사서	8. 1-9.26	160	서류심사
		사서보	8. 1-9.10	50	
13	가고시마 국제대학(鹿兒島國際大學)	사서	7.26-9.24	40	서류심사
계		사서 (13개 대학)		1,510	
		사서보(6개 대학)		290	

(9) 文部科學省. “平成23年度司書及び司書補の講習實施大學一覧.” [cited 2011.10.17].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afiedfile/2011/05/13/1260111_01_3.pdf〉.

(10) 사이버교육을 말한다.

(3) 통신과정 개설대학

통신과정은 우리나라 방송통신대학과 마찬가지로 직접 대학의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통신교육을 통해 원격 강의를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과정 교육 또한 모두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연한은 최저 반년에서 1년 이상이 보통이다. 사서자격 취득과정은 4년제 대학 8개교 및 단기대학 1개교, 통신대학 1개교로 총 10개 대학에, 사서보 자격 취득과정이 단기대학 1개교에 설치되어 있다.⁽¹¹⁾

이수학점 수는 대학에 따라 최저 21학점에서 28학점까지 다양하나 대체로 강습과정 개설대학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령, 오사카 게이주쓰대학은 27학점, 호세이 대학 등은 28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상 규정된 사서강습(20학점)보다 많은 학점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표-10 통신과정 개설대학(2010년도)⁽¹²⁾

연번	대학명	사서	사서보
1	세이토쿠 대학(聖徳大學) 단기대학부 통신교육부	○	
2	다마가와 대학(玉川大學) 통신교육부	○	
3	데이쿄 헤이세이 대학(帝京平成大學) 통신교육과정	○	
4	도요 대학(東洋大學) 통신교육부	○	
5	호세이 대학(法政大學) 통신교육부	○	
6	메이세이 대학(明星大學) 통신교육부	○	
7	아에가쿠인 대학(八洲學園大學)(통신대학으로 설립)	○	
8	붓쿄 대학(佛敎大學) 통신교육과정	○	
9	오사카 게이주쓰 대학(大阪藝術大學) 통신교육부	○	
10	긴키 대학(近畿大學) 통신교육부	○	
11	긴키 대학(近畿大學) 단기대학부 통신교육부		○

(4) 유형별 사서양성교육기관 분석

이처럼 사서(보)자격은 일본 내 240여 개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사서양성교육의 유형은 도서관학 강의과목 개설대학이다. 도서관학 강의과목 개설대학은 전체 대학수의 20.2%를 차지하는 237개교로, 5개 대학 중 1개 대학꼴로 많은 대학에 자격 취득의 길이 열려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자격소지자를 배출하는 유형은 사서(보) 강습과정 개설대학(13개교)에서 도서관학 집중강의를 받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통신과정 개설대학(11개교)에서

(11)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별 자료신청에 의해 정보를 얻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모집인원은 파악하기 어렵다.

(12) 日本圖書館協會, “通信教育について,” [cited 2011, 10, 17]. <<http://www.jla.or.jp/library/shisho/tabid/197/Default.aspx>>.

원격교육을 통해 도서관학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표 11 참조).

표-11 유형별 사서양성교육기관수⁽¹³⁾

구 분	총 대학 수('10)	도서관학 강의과목 개설대학('09)	강습과정 개설대학 ('11)		통신과정 개설대학('10)	
자격증	-	사서	사서	사서보	사서	사서보
4년제 대학	778(44)	156	12	6	9	-
2년제 단기대학	395(11)	81	1	-	1	1
계	1,173(55)*	237	13	6	10	1

* ()는 통신대학 수. 이 중 통신교육만 실시하는 대학은 4년제 6개교, 2년제 1개교로 총 7개교임.

일본도서관정보학회에 의하면, 매년 배출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수는 12,000명 이상이나 실제로 채용되는 정규직 사서는 연간 1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日本圖書館情報學會 研究委員會 2006, 3). 도서관 취업률은 신규 자격증 소지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도서관협회에 의하면, 2010년 공립도서관 3,188개관에 배치된 전임 직원 수는 12,144명이며, 이 중 사서 및 사서보 자격자수는 6,188명이다(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調査事業委員會 2011, 24). 사서자격자수가 전임직원의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서자격은 법률에 근거한 독점적 지위로서 채용과 연계되어야만 실효성이 성립된다. 법적인 자격은 있으나 채용 시에 해당자격을 요구하지 않거나 가산점 부여가 없다면 자격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특히 현재 일본의 도서관 고용시장 사정에 의하면 정규직 사서로 취업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비정규직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15~20학점을 이수하기만 하면 국가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도서관학 교육의 저변 확대와 사서자격증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지나친 불균형과 그로 인해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 종이자격증의 남발이라는 폐해, 자격증 취득의 용이성으로 인해 도서관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저하 등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13) 비교연도는 문부과학성과 일본도서관협회에서 공표한 최신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연도별로 현격한 차이는 없다.

3.2 사서자격증 발급

사서(보) 자격증의 발급은 1953년부터 1967년까지 문부성(文部省)에서 담당하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도서관학 과목을 사서강습 과목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 이후부터 문부성은 별도의 자격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와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취득증명서로 자격증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부성의 사무절차 간략화를 위한 개선책으로 취해진 조치이다. 단, 대학 재학 중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해당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며 총장(학장)이 발행하는 자격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별도로 발행하지는 않는다. 대학 졸업 후 통신교육, 야간, 강습 등으로 이수할 경우에도 자격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¹⁴⁾

이처럼 단일한 자격증 발급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의 전문직단체인 일본도서관협회에서조차 정확한 자격증 발급자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4. 일본의 사서자격제도 개혁

2010년 일본의 사서자격제도에 관한 두 가지 개혁이 이루어졌다. 일본도서관협회의 ‘일본도서관협회 인정사서’(이하 ‘인정사서’)제도와 일본도서관정보학회의 ‘도서관정보학 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 그것이다. 자격취득의 용이성과 전문성의 취약에 대한 비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본 전문단체의 개혁 실시 배경 및 내용 등을 고찰·분석한다.

4.1 일본도서관협회 인정사서

(1) 인정사서제도의 실시 배경

일본도서관협회는 2010년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근무경력, 실천적 지식과 기능 등을 평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서자격으로서 ‘일본도서관협회 인정사서(Certified Professional Librarian by Japan Library Association)’라는 명칭의 제도를 출범시켰다.

(14) 文部科学省, “司書について司書資格証明書交付のとり止めについて,” [cited 2011, 10, 10].
(http://www.mext.go.jp/a_menu/shougai/gakugei/shisyo/04040506.htm).

일본도서관협회가 도서관법에 규정된 사서자격 이외에 인정사서제도를 시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6년 문부성 생애학습심의회 사회교육분과 심의회의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문부성 심의회의 지적을 요약하면, 법규제 강화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사서의 명칭 부여제도를 창설하라는 것이었다(生涯學習審議會 社會教育分科審議會 1996, 416-425).

이에, 일본도서관협회는 1998년 ‘전문성 확립과 강화를 목표로 하는 연수사업 검토 워킹그룹’(専門性の確立と強化を目指す研修事業検討WG)을 결성하여 전문직원 인정제도에 관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직원 연수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중견사서 스텝업 연수(Librarian Step up Training; LIST)⁽¹⁵⁾’를 매년 실시하고, 2002년부터는 ‘전문직원 인정제도 특별검토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 및 전국도서관대회 발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검토를 실시해 왔다. 2008년의 앙케이트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3%가 이 제도의 창설을 찬성하고, 예비조사 응모자수도 81명에 달하는 등 현장 사서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표명이 있었다(秋本敏 2010, 266-267; 日本圖書館協會 専門職員認定制度 特別検討チーム(第四次) 2009, 305-307). 이와 같은 여론의 성숙도를 반영하여 일본도서관협회는 2010 3월 ‘인정사서’ 제도 사업을 승인하고 인정사업위원회를 조직, 동년 11월 1개월간 서류접수를 하여 2011년 3월 합격자를 발표하였던 것이다(日本圖書館協會 認定事業委員會 Homepage).

국가자격인 사서자격과 달리, 일본도서관협회가 인정사서제도를 법제화하지 못한 것은 일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민간개방 정책과 관련이 있다. 2000년 12월에 각의(閣議) 결정된 ‘행정개혁 대강’(行政改革大綱)에서는 공익법인이 위탁이나 추천 등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검사, 인정, 자격부여 등의 경우 굳이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2001년 4월에 설치된 일본 내각부의 종합규제개혁회의에서는 국가자격 중 업무독점자격과 필치(必置)자격에 대한 검토 지침이 제시되었다. 그 검토지침은, ①자격자 이외에도 실시 가능한 전문성이 낮은 것, ②자격취득 시 시험합격 등 특단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③시험 합격률 또는 강습 수수료가 지극히 높은 자격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하여 그 존재를 검토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어서 종합규제개혁회의의 후신으로 탄생한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¹⁶⁾에서는 2004년 8월 중점적으로 민간에 개방해야 할 국가사업 중의 하나로 ‘허가 인가 등과 관계되는 심사·검사·검정, 자격시험 등’

(15) LIST(1)의 수강자격은 기본적으로 사서자격 취득 후 도서관 경력 3년 이상인 자, LIST(2)는 7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는 2000년 이후 매년 1회 12과목 30시간, 후자는 2004년 이후 매년 1회 24과목 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2009년의 수료자수는 LIST(1)이 279명, LIST(2)가 80명으로 총 359명이며, 인정사서 응모자 대부분이 LIST 수강자이다.

(16) 이 회의는 2007년 1월에 폐지되고, 이후 ‘규제개혁회의’를 거쳐 2010년 4월부터 ‘행정쇄신회의’ 내에 ‘규제·제도개혁에 관한 분과회’로 설치되었다.

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바로 사서자격 강습이었다(總合規制改革會議; 內閣府 規制改革・民間開放推進會議; 行政改革推進本部의 각 Homepage). 심사 결과, 사서 자격이 민간개방 사업에서는 제외되었으나⁽¹⁷⁾ 논란이 재점화될 소지는 남아 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완화 및 행정개혁 움직임에 따라 현재 일본에서는 검정시험이나 인정시험 등에서 정부기관의 인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가정책 하에서 인정사서 자격을 법제화된 국가자격으로서 신설하거나 정부기관인 ‘문부과학성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2) 인정사서의 자격요건 및 내용

인정사서는 그동안 가칭 ‘상급사서’(上級司書)로 통용되어 왔던 전문사서의 정식명칭으로, 지난 10여 년간 일본도서관협회에서 기존 사서자격과 차별화되는 상위 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온 야심찬 결과물이다.

표-12 '일본도서관협회 인정사서'의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내용
인정대상	도서관법에 규정된 공립도서관 또는 사립도서관 직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로, 비정규직 고용자 포함
사서자격	도서관법 제4조에 규정된 사서 또는 사서자격 소지자
근무경력	① 공공도서관 근무경력이 사서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②사서자격 취득일로부터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이외의 도서관, 기타 유연기관의 근무경력 합계가 10년 이상인 자로, 신청 시 과거 10년간 중 최소 5년은 공공도서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경력개발 활동	신청일 현재 과거 10년간 일본도서관협회 주최 중견 스텝업 연수(2), 문부과학성 주최 도서관사서 전문강좌 등의 연수를 포함하는 경력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자
저작물	<p>지난 10년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을 저술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신청을 위해 집필한 독창성 있는 저작물 - ② 10년 이내에 공개된 도서, 잡지기사·논문, 보고서 등으로 단독 저작물 또는 담당부분이 확실한 분담 저작물 - ③기타 심사회가 인정하는 저작물 중의 하나여야 함 <p>- 단일 또는 복수(5점 이내) 저작물의 문자수가 8,000자 이상일 것.</p> <p>- 복수 저작물은 각각 일정 저작물로서 성립해야 함</p> <p>- 도서관 업무, 운영 등 도서관경영에 기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단순한 사례소개는 제외)</p> <p>- 문장에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함</p>

(17) 사서자격 강습은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대학의 사서자격 강습비는 총 360시간의 강의가 평균 약 10만엔(약 14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고, 대학과 동등한 수준 및 내용으로 사서자격 강습을 한 요금으로 실시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는 없으리라 판단되므로 민간에 개방해도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문부과학성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인정사서의 기본자격은 공공도서관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서로서 일정 연수경험과 8,000자 이상의 저작물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인정사서제도의 특징은 그 평가기준에 현장 실무경력, 지속적인 경력개발활동과 함께 연구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현장사서들의 연구 저작물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이론(연구)과 실무(현장)에 능한 사서를 전문사서로 인정함으로써 실무에서 얻은 집적된 경험이 저술활동으로 나타나 장차 도서관 경영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자격요건은 <표 12>와 같다(日本圖書館協會 認定司書事業委員會 2010, 681-683).

인정사서 심사회는 협회 사무국장, 인정사업 담당 상무이사 등 이사장이 지명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심사 후 인정증 교부 및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기간 경과시에는 유효기간 내에 자격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日本圖書館協會 2010).

2011년 3월 일본도서관협회가 공표한 제1회 인정사서는 총 응모자 54명 중 37명이 합격하여 69%의 합격률을 보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비정규직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성별 분포는 여성이 21명, 남성이 16명으로 일반적인 사서의 여초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근무지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도서관보다 시립 및 구립도서관 근무자가 더 많아 지역주민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사서가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연령은 최연소자가 36세, 최고령자가 60세로, 평균연령은 48.2세였다(絲賀雅兒 2011, 270-271). 인정사서의 주된 연령층은 실무를 담당하면서 관리직을 보좌하는 중간관리자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2. 도서관정보학 검정시험

(1) 검정시험의 실시 배경

일본의 사서자격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자격증에서는 필수인 국가시험이 없다. 일본의 국가자격 중에서 무시험제도로 자격취득이 가능한 것은 교사, 사서, 학예원으로 교사는 채용시험상 자격증 소지가 필수이므로 독점자격이다. 그러나 사서와 학예원은 업무 독점자격이 아니므로 사서직제도의 전문성 논의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새로운 국가시험이나 자격신설과 같은 규제강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서관정보학 검정시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해 보자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검정시험의 첫 구상은 2003년 일본도서관정보학회(엄밀히 말하면 학회에 소속된 연구자)가 실시한 LIPER 프로젝트(2003~2005년)에서 비롯되었다. LIPER는 2000년 미국의

KALIPER(Kellogg-ALISE Information Professions and Education Reform Project)⁽¹⁸⁾ 보고서, 2002년 영국의 도서관협회(Library Association)와 정보전문가협회(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의 통합으로 탄생한 도서관정보전문직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와 같이 21세기 사서직 양성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자극을 받아 일본의 사서직 양성제도의 기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였다.

LIPER의 연구결과 최종적인 제언은 첫째, 정보전문직(information profession) 교육은 대학원 수준의 문헌정보학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둘째,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이나 사서자격은 향후 4년제 대졸 또는 대학원 석사과정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서자격에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의 습득 정도를 평가하여 사서자격자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서관정보학 검정시험’(가칭) 실시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였다(上田修一 2006, 21-31).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사서양성이 강습보다는 대학에서의 교육으로 전면 제도화되고, 2009년 도서관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대학의 도서관학 과목이 처음 명시된 것은 이러한 LIPER의 연구성과가 법률 개정에까지 이어진 것으로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LIPER의 이러한 제언에 따라 2006~2009년에는 그 후속 프로젝트로 LIPER2가 발족하였다. 이는 검정시험 실시의 구체적 실현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검정시험은 2006년 학회 내에 설치된 검정시험 임시위원회의 답신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根本彰 2010). 현재 LIPER2에 이어 2010~2014년까지 LIPER3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¹⁹⁾

(2) 검정시험 실시의 목적 및 내용

2010년 11월 일본도서관정보학회 주최로 사서자격의 수준 향상을 위한 도서관정보학 검정시험이 공개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그 목적은 LIPER에서 제시한 8가지 기초적인 핵심영역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 입장에서는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지침이 되도록 하여, 시험의 지속적인 실시가 교육내용과 교육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도서관정보 전문직의 수준향상과 고용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根本彰 2009, 640).

시험의 범위인 핵심영역은 LIPER 연구의 커리큘럼에서 제시한 핵심영역에 해당하며,

(18) 미국 도서관정보학교육협회(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LISE)가 1998~2000년 켈로그재단(W.K. Kellogg Foundation)에서 받은 기금으로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문헌정보학 커리큘럼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9) LIPER2의 정식명칭은 ‘정보전문직 양성을 목표로 한 도서관정보학 교육의 재편성’(情報専門職養成をめざした図書館情報學教育の再編成), LIPER3의 정식명칭은 ‘도서관정보학 교육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기반 형성’(図書館情報學教育を高度化するための研究基盤形成).

①도서관정보학 기초, ②정보이용자, ③정보미디어, ④정보자원 조직화, ⑤정보서비스, ⑥경영관리, ⑦정보시스템, ⑧디지털정보의 8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표 13 참조). 핵심영역은 학부과정 문헌정보학 교육의 일반적 커리큘럼의 구성내용으로서 정보시스템과 디지털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공공도서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정시험의 대상은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관중에 종사하는 사서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인사서의 대상과 차별화된다.

표-13 도서관정보학 검정시험의 핵심 영역과 내용⁽²⁰⁾

핵심영역 구분		내 용
1	도서관정보학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유통의 기초, 도서관, 정보에 관한 제도·정책 등에 대한 이해 - 정보 이해, 사회의 정보, 지식론 등에 대한 이해 - 정보전문직에 필요한 조사연구법 이해
2	정보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정보탐색 행동 이해, 탐색행동 모델 등 - 이용자 교육 커리큘럼, 정보활용 교육 방법 등
3	정보자원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매체 및 각종 매체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장서의 역사와 의의, 장서개발 방침, 출판유통론, 자료선택론 등
4	정보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록법, 전자통제 등 서지기술에 대한 이해 - 주제분석과 표현(분류, 주제명, 디스크립터)에 대한 이해
5	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사회에서 정보서비스의 필요성 이해 - 참고봉사 도구 지식, 질의응답 연습, 패스파인더 작성 등
6	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보시스템의 개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등 - 정보검색의 기본 기법에 대한 이해
7	경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정보기관의 경영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지적 정보자원 관리의 기초(저작권, 권리 관리, 라이선싱, 컨소시엄 등) 지적재산 관리 포함. - 도서관정보 서비스 계획과 마케팅에 대한 실제 이해
8	디지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도서관의 역사와 현황,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디지털 데이터의 저작권, 디지털 데이터에 관한 기준 등의 이해 -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자연언어 처리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기술 - 디지털 콘텐츠의 수집, 조직(메타데이터 작성), 보존(디지털 보존), 제공에 대한 이해

검정시험은 2007년 일본도서관정보학회에 검정시험 실행가능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정대학 549명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무료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한 데서 출발하였다. 2008년, 2009년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각각 277명, 302명에 대한 비공개 무료시험을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공개 유료시험으로 전환하여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쓰쿠바

(20) 日本圖書館情報學會, “圖書館情報學檢定試驗,” [cited 2011.10.17]. <<http://wwwsoc.nii.ac.jp/jslis/kentei/>>.

(筑波)의 3개 지역에서 객관식 5지선다형 50문항을 90분 동안 실시하였다.

2010년 검정시험 결과, 응시자 총 238명 중 학부생이 116명(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도서관 40명(16.8%), 공공도서관 18명(7.6%) 등의 순이었다. 자격취득이 예정된 학부생들의 응시율이 높은 것은 학부생들에 대한 홍보효과가 높고 자격수준의 향상이라는 검정시험의 취지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험결과와 인정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성적표만 발송하고 합격 여부의 판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 하에 보류 중이다(日本圖書館情報學會 圖書館情報學檢定試験 實施檢討委員會 2011, 37-49).

공개시험 2년째를 맞이하는 2011년에는 11월 27일 380명을 대상으로, 상기 3개 지역에 나고야(名古屋)가 추가된 4개 지역에서 제2회 검정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日本圖書館情報學會 圖書館情報學 檢定試験 Homepage).

4.3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1) 인정사서 제도의 고찰·분석

인정사서제도는 정부당국의 지적에 따라 12년간에 걸쳐 심사숙고한 끝에 마련된 제도이며, 주로 관리직 또는 지도적 입장에 있는 중견사서를 대상으로 한 매우 엄격한 심사제도이다. 일본도서관협회는 협회의 평가에 의해 도서관경영의 핵심을 담당할 수 있는 사서를 공적으로 인정하며, 사서 전체의 연수노력을 장려하고 사서직 경력개발과 사회적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이 자격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인정사서의 제도화에 의해 충분한 지식과 기능, 의욕을 가지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계속적, 안정적인 고용 확보와 일본 도서관 전체의 진흥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1년 3월 첫 인정사서를 배출하기 시작한 이 제도는 아직 출발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경과와 기대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현시점에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법에 규정된 자격이 아닌 전문직단체가 마련한 사서자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인가(accreditation)제도가 석사과정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커리큘럼, 시설 등을 평가하는 기관 대상의 제도라면, 일본도서관협회의 인정(certification)제도는 국가자격인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ALA의 인가제도는 반세기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서채용 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도서관협회는 이 인정제도가 사서의 지위향상은 물론 도서관진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법제화된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 전문단체의 자격제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특히, 상위직 채용 또는 승진 시 이 인정사서 자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앞으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관중을 초월한 사서자격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문성만을 평가하는 자격제도라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일본의 도서관법이 사실상 공공도서관법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사서자격에 토대를 두어 그 상위자격을 의도했기 때문이라는 것과 하나의 기준만으로는 관중별 성격에 따른 사서의 전문성을 모두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도서관협회가 일본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라면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문성만을 논의 또는 인정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타관중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또한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정규직 사서는 물론 비정규직 사서도 인정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도서관 구직현황을 보면 정규직 채용은 약 1%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이 비정규직 채용이다.⁽²¹⁾ 또한 2010년 『日本の図書館』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62.6%를 차지하며, 정규직의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47.2%인데 비해 비정규직(비상근 또는 임시직)은 53.7%로 비정규직의 사서자격 비율이 더 높다(日本図書館協會 図書館調査事業委員會 2011, 2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정규직을 포함시킨 것은 일본 도서관 고용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연령 등의 사유로 취직이 어려운 비정규직의 경우 상위직 사서의 채용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도서관경영에 주체적으로 관여한다거나 정규직 이상으로 주도적 업무를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위계질서가 명백한 공무원 제도 속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인정사서에 대한 인센티브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승진이나 급여 인상, 고위직 채용조건 등과 연결된 인센티브 없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자기만족에 불과할 것이며, 사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도서관 진흥에 기여한다는 막연한 기대효과 이외에 즉각적,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따라서 승진 및 채용과 연계된 인센티브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검정시험의 고찰·분석

일본의 사서자격증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시험 국가자격이다. 비교적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인식이 별로 높지 않은 점도 한국과 비슷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자격인 사서자격제도에 민간단체가 시험이라는 평가의 잣대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진전되는 추세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검정시험 또한 인정사서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시행된 지 1년에 불과하

(21) 사서의 모집현황에 대해 망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われわれの館」(<http://www5b.biglobe.ne.jp/~wir/>)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원을 모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부분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당 약 1,000엔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을 모집한다.

여 다년간에 걸친 실적과 그에 따른 피드백이 필요하나, 현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험의 성격이 다소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사서자격을 인정하는 국가시험이 아니라 민간 학술단체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의문시된다.

둘째, 아직 공개시험 초기 단계로 합격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기준도달점을 알 수가 없다. 개인의 취득점수와 전체 성적 순위, 편차치를 개인에게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셋째, 수험자의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시험결과를 반영할 장이 없다. 사서 자격요건과 관계 없는 자기평가 시험에 불과하므로 대학원 수험생이나 도서관 근무자에게는 검정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일부 시험면제나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 여건상 정규직 사서 채용은 한정되어 있고 해당기관의 별도 채용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향후 사서직 채용기관에서 채용시험을 대신하여 검정시험 결과를 적용한다면 이 시험제도는 활성화될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이 시험결과를 사서의 비정규직 파견업체나 위탁관리사업자에게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정시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정사서제도와 마찬가지로 시험 점수에 따라 또는 합격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즉 채용 시 시험면제나 승진 임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 사회의 제도나 교육은 역사적 산물이다. 특히 관습적인 역사가 오래될 수록 그 제도의 수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수용이 어렵다. 일본의 사서자격제도와 사서양성교육은 오랜 역사를 토대로 진전되어 왔으며, 일본사회의 특성상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학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 일본 도서관계의 점진적인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서자격제도와 사서자격 취득방법으로서의 사서양성교육체계, 제도개선을 위한 최근의 개혁내용 및 실시배경 등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혁의 성공요건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도서관법에 규정된 사서자격제도는 전 관중에 통용되는 자격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사서자격이다. 자격 취득을 위한 최저 학력요건은 단기대학 졸업 이상이며, 가장 일반적인 자격 취득방법은 대학에서 문부과학성령에 규정된 도서관학 과목을 최저 15~24학점

이수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일본의 사서자격제도는 무시험 국가자격으로 자격취득이 용이하다는 점, 전공에 구애됨이 없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 공공도서관 사서자격에만 국한된다는 점, 채용시험에서 자격증 소지가 필수여야 하는 업무 독점자격이 아니라는 점⁽²²⁾,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둘째, 자격취득을 위한 사서양성교육체계는 도서관학 강의과목 개설대학, 강습과정 개설대학, 통신과정 개설대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도서관학 강의과목 개설대학은 전체대학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대학에서 사서자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학 교육의 저변 확대로 도서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자격증의 남발로 수요와 공급의 지나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자격취득의 용이성으로 인한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저하 등 부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최근의 법개정과 제도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학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특히 일본도서관협회와 일본도서관 정보학회가 201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정사서와 검정시험은 1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검토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점,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지 않는 개혁이라는 점, 법제화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동반하지 않는 민간 전문단체의 자율적 시도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서자격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민간 전문단체의 개혁에 대한 연구 및 노력이 법제화에 반영되어야 하며, 채용이나 승진임용과 연결되는 인센티브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공도서관만이 아닌 관중을 초월한 사서자격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참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제도는 학력요건 및 취득방법, 등급화 등의 면에서 일본의 제도에 비해 우수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시험 국가자격으로 자격취득이 용이하며, 이로 인한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평가라는 잣대의 도입을 통해 사서자격의 수준을 높이고, 한 단계 높은 등급화를 통해 사서자격의 전문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일본의 개혁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만하며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2)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립국회도서관법에는 사서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직원 채용시에는 학력에 따라 국가공무원 I, II, III종 시험을 실시하며, I, II종 시험의 선택과목에 도서관학이 들어있다. 일본 도서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국가도서관에서 사서자격을 업무 독점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根本彰. 2007. 圖書館員養成とポストLIPER報告.
『圖書館雜誌』, 101(11): 741-743.
- 根本彰. 2009. 圖書館情報學檢定試験の實施計劃について.
『圖書館雜誌』, 103(9): 640-643.
- 根本彰, 研究責任. 2010. 『情報専門職養成をめざした圖書館情報學教育の再編成
(研究成果報告書)』. 東京: 根本彰.
- 김세훈, 연구책임. 2003. 『도서관 전문성 강화방안: 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内閣府 規制改革・民間開放推進會議.
“公表資料(中 中間とりまとめ-官製市場の民間開放による
「民主導の經濟社會の實現」).” [online]. [cited 2011.10.17].
〈<http://www8.cao.go.jp/kisei-kaikaku/old/publication/index.html>〉.
- 大谷康晴. 2005. 日本における公共圖書館の認定制度とその課題-圖書館職員の
研修と處遇. 『現代の圖書館』, 43(1): 26-33.
- 文部科學省.
“司書について.” [online]. [cited 2011.10.17].
〈http://www.mext.go.jp/a_menu/shougai/gakugei/shisyo/〉.
- 文部科學省.
“平成23年度司書及び司書補の講習實施大學一覽.”
[online] [cited 2011.10.17].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afieldfile/2011/05/13/1260111_01_3.pdf〉.
- 文部科學省. 2011. “文部科學統計要覽(平成23年版).” [online]. [cited 2011.10.17].
〈http://www.mext.go.jp/b_menu/toukei/002/002b/1305705.htm〉.
- 絲賀雅兒. 2011. 司書のキャリアデザインと認定司書制度.
『圖書館雜誌』, 105(5): 270-271.

- 上田修一, 研究代表. 2006.
『情報専門職の養成に向けた図書館情報学教育体制の再構築に関する総合的研究』. 東京: 上田修一.
- 生涯学習審議会 社会教育分科審議会. 1996.
社会教育主事, 学艺員及び司書の養成, 研修等の改善方策について(報告). 『図書館雑誌』, 90(6): 416-425.
- 윤희운. 2005. 『도서관 사서직제도 연구』. 서울: 테일사.
- 栗原祐司. 2008. 図書館法等の改正と今後の課題について.
『図書館雑誌』, 12: 634-637.
- 日本図書館情報学会. “図書館情報学検定試験.” [online]. [cited 2011.10.17].
〈<http://wwwsoc.nii.ac.jp/jslis/kentei/>〉.
- 日本図書館情報学会 図書館情報学検定試験 実施検討委員会. 2011.
『図書館情報学検定試験準備試験報告書』.
東京: [日本図書館情報学会].
- 日本図書館情報学会 研究委員会. 2006.
『図書館情報専門職のあり方とその養成』. 東京: 勉誠出版.
- 日本図書館協会. “司書(補)資格の取得方法について(中 通信教育について).”
[online]. [cited 2011.10.17].
〈<http://www.jla.or.jp/library/shisho/tabid/197/Default.aspx>〉.
- 日本図書館協会. “認定司書事業委員会.” [online]. [cited 2011.10.17].
〈<http://www.jla.or.jp/committees/nintei/tabid/203/Default.aspx>〉.
- 日本図書館協会. 2010. はばたけ 認定司書. 2p.
- 日本図書館協会 図書館調査事業委員会. 2011.
『日本の図書館: 統計と名簿 2010』. 東京: 日本図書館協会.



- 日本圖書館協會 認定司書事業委員會. 2010.
 日本圖書館協會認定司書 募集要項.
 『圖書館雜誌』, 104(10): 681-683.
- 日本圖書館協會 専門職員認定制度 特別検討チーム(第四次). 2009.
 専門職員認定制度について.
 『圖書館雜誌』, 103(5): 305-307.
- 竹内比呂也. 2011.
 圖書館情報専門職養成の高度化への道-検定試験の
 経験を踏まえて考えたこと.
 『圖書館雜誌』, 105(5): 266-268.
- 総合規制改革會議.
 “制度改革・民間開放推進3か年計劃(中 資格制度關
 係).” [online]. [cited2011.10.17].
 <<http://www8.cao.go.jp/kisei/siryō/040319/3-17-1.pdf>>.
- 秋本敏. 2010.
 JLA中堅職員ステップアップ研修の10年. 『圖書館雜誌』,
 104(5): 266-267.
- 行政改革推進本部.
 “行政改革大綱(平成12年12月1日閣議決定).”
 [online]. [cited2011.10.17].
 <<http://www.gyōkaku.go.jp/about/taiko.html>>.

2011년도 연구현황

08_ 2011년도 연구현황 · 144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1년도 국민독서실태 조사

- 연구책임자 :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우리 국민의 종합적인 표준 독서지표의 조사 및 국민 독서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와 국회, 언론, 각급 교육기관, 도서관, 출판계 등에 배포하여 국민독서 증진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2011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연구책임자 :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

독서환경 조성, 독서생활화 사업 추진, 독서운동 전개,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 독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독서진흥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 독서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지표 개선 연구

- 연구책임자 : 조현양(경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분석 및 지표별, 관종별 변화 추이 등의 분석을 통해 2012년 관종별 통계지표 및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전국 작은도서관(문고)에 대한 실태조사,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실태 및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한국형 가상참고서가 구축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남영준(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형 가상참고서가(KVRD: Korea Virtual Reference Desk) 구축 방향 및 시스템 모형을 제안하여, 인터넷의 무질서하고 비체계성을 지닌 유용한 정보자원을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지향적 도서관서비스를 구현한다.

국립중앙도서관

Linked Data를 활용한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연구

- 공동연구자 : 박진호(디지털기획과 연구관)
오원석(주) 탐쿼드란트 코리아 책임연구원)

주제명, 저자명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Liked Data 발행을 위한 연구과제로 주제명은 SKOS기반, 저자명은 FOAF기반의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변환하고 데이터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PREMIS 기반 보존메타데이터 목록 규칙 연구

- 공동연구자 : 박진호(디지털기획과 연구관)
박옥남(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디지털정보자원 영구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 셋 확정을 위해 PREMIS Dictionary 분석 및 목록 규칙 생성에 관한 연구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중장기 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 남영준(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박재혁(대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교수)
정상원(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연구원)
김혜경(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주제별, 유형별, 매체별 분석과 디지털화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디지털화 추진로드맵을 수립하고, 디지털컬렉션 구축 방안 등 디지털 서비스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사업 평가

- **연구책임자** : 강승호(주) 씨에이에스 전문위원)
- **공동연구자** : 변상선(주) 씨에이에스 연구원)
이수영(대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주요자료 원문정보 DB구축,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등 정보화 5개 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위탁평가를 실시하여 각 사업의 문제점 도출 및 사업 수행절차, 성과향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국립중앙도서관 DAISY도서 전화서비스 연구

- **연구책임자** : 신인식(한국시각장애인선교연합회장)
- **공동연구자** : 이준(종달새 전화도서관)
송기안(종달새 전화도서관)
백종현(종달새 전화도서관)

노년층 및 정보취약계층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DAISY도서(디지털 음성도서)의 ARS 전화서비스 적용 및 서비스 방안을 제시한다.

■ 도서관이용자 응대서비스 매뉴얼 개발연구 ■

- **연구책임자** : 황금숙(대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이영숙(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사무관)

도서관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도서관이용자응대서비스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공공 서비스문화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다.

■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만족도 증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연구 ■

- **연구책임자** : 정현태(도서관연구소 연구관)
- **공동연구자** : 김영기(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황재영(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순화(디지털정보이용과 사서주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서 실시 중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평가지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여, 이용자 수요에 근접한 서비스 개선노력을 지원하고 Hybrid 환경의 디지털도서관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디지털도서관서비스의 품질평가 기본모형을 제공한다.

■ 디지털파일 납본 · 기증 활성화 방안연구 ■

- **연구책임자** : 김기태(세명대 청작미디어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김계수(세명대 통계학과 교수)
이영숙(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사무관)
이영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파일의 납본과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비도서자료 보존처리 및 매체변환사업

- 연구책임자 : 김성준(주 케이제이엔시스 이사)

손상된 음질, 화상 등 비도서자료를 디지털 복원처리하고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변환 및 장기보존용 보존매체로 매체변환하여 보존한다.

자치단체단위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공동서비스 기본모형연구

- 연구책임자 : 정현태(도서관연구소 연구관)
- 공동연구자 : 이진우(파주시 교하도서관 팀장)
송재술(경기도 사이버도서관 팀장)
장보성(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주무관)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자료 유형과 서비스방식은 기술적 특성 및 저작권 방침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서비스에 대한 현안을 검토하여, 구매 및 관리비용을 줄이고 전자자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자자료 서비스모형을 도출하여 제공한다.

장기보존을 위한 디스크평가 S/W 및 기록기술개발

- 연구책임자 : 조원익(주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로지 코리아 수석연구원)
- 공동연구자 : 현상훈(주 도시바삼성 수석연구원)
신정목(주 도시바삼성 책임연구원)

국제표준에 의한 광디스크의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보존 기록기술개발 및 광디스크 평가 S/W를 개발하여 업무에 적용한다.

장애인 대체자료 종합목록 DB 구축 사업

- 공동연구자 : 변회균(주 리베카)
이경림(주 라임커뮤니티)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대체자료 종합목록 구축 및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독서장애인 정보 접근권 향상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장애유형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홍보 전략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안인자(동원대 아동문헌정보과 교수)
- 공동연구자 : 노영희(건국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미영(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초빙강의 교수)
유명화(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장애인서비스의 홍보활동 실태분석과 새로운 지식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방안을 제시한다.

장애인 대체자료 표준 목록 지침 연구

- 연구책임자 : 남태우(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박재혁(대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승민(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혜경(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원)
서만덕(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연구원)

장애인 대체자료 종합목록 및 서지구축을 위한 표준목록 지침 제정에 대한 연구이다.

전문사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헌정보학 전공과목 정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노영희(건국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안인자(동원대 아동문헌정보과 교수)
최상기(전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내 37개 대학 등의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의 운영실태와 사서자격증 신청자의 전공과목 이수실태를 분석하여, 사서양성교과목 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전문사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헌정보학 전공과목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서비스 확대전략개발연구

- 연구책임자 : 곽동철(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윤정옥(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심 경(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김정호(성북구청 도서관담당 주무관)

『도서관법』 제43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에 따라 지식정보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농산어촌 주민 등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실효적인 중장기 서비스전략을 제안한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모델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 송기호(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공동연구자 : 이병기(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김도연(충청남도 부여도서관 사서)
소병문(서울 우신고등학교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따른 현실적 선결조건으로서 시설과 장서 및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국내외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서비스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한 지역사회 개방모형을 도출하며,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작은 도서관으로서 개방되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서비스 운영매뉴얼을 제시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매체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 종이책과 전자책의 상생과 융합을 위하여 –

- 연구책임자 : 정연경(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정은경(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백지원(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

다양한 독서 매체 기반의 어린이 이용자의 정보 이용 행태 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새로운 독서 매체로 각광받는 전자책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인식과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책 접근 및 이용 모형을 제안한다. 또한 도서관의 어린이 장서 개발, 장서 접근, 정보 서비스, 이용 교육, 사서의 전문성 증진 등 어린이 서비스를 영역별로 개선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성격유형에 따른 예방적 차원의 발달적 독서지도

- 연구책임자 : 한윤옥(경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조현양(경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미아(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

21세기의 사회적 성격은 공감의 시대로서 공감하는 능력의 인재가 필요하고, 공감 능력은 바른 성품교육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품교육의 방안으로써 성격 유형에 기반한 발달적 독서지도를 제안한다.



도시
관

통권 제 385호

2011

비매품

기획 · 편집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인쇄 | 2011년 12월 16일

발행 | 2011년 12월 20일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전화 | [02]590-0797

팩스 | [02]590-0502

웹사이트주소 | <http://www.nl.go.kr>

인쇄처 | (사)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쇄사업장

DOSEGWAN

Vol. 385

December 2011

Publishing office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npo-ro 664, Seocho-gu, Seoul, Korea

Tel | [02]590-0797 Fax | [02]590-0502

